

特輯 民主主義와 生活管理

- ◇ 言 語 管 理
- ◇ 儀 式 管 理
- ◇ 健 康 管 理
- ◇ 文 字 管 理
- ◇ 禮 節 管 理
- ◇ 衣 裳 管 理
- ◇ 家 住 管 理
- ◇ 計 宅 管 理
- ◇ 樂 管 理
- ◇ 娛 樂 管 理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의 自己管理

軍人이 자녀야 할 일 품 가지 生活型



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 朴正熙將軍

은 케네디 美國大統領의 招請으로 지

난 十一月十三일부터 二十三日까지

美國을 訪問하였다.

八寫眞 十一日金浦空港에서 全國

民에게 出發人事를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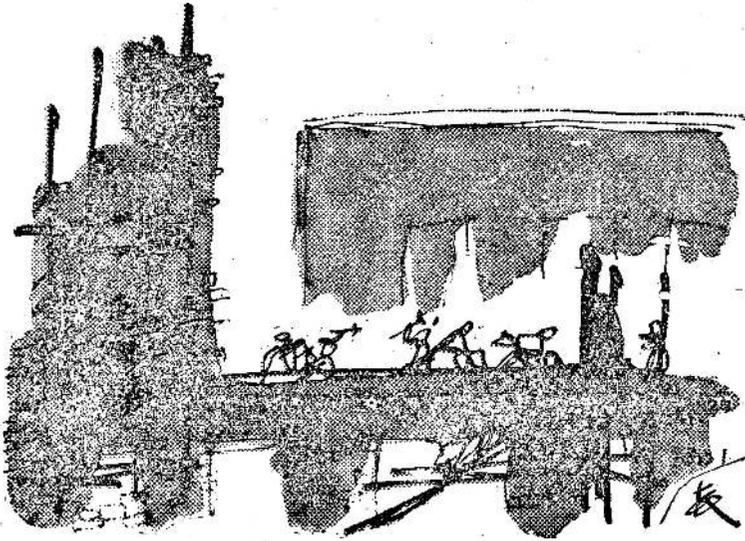
는 朴議長.



長官의 出迎을 받으며 워싱턴空港에 도착한 朴議長은 美國民의 鄭重한 환영에 感謝하는 答辭를 하였다.

朴議長과 케大統領은 15日과 16日 두차례에 걸쳐 白堊館에서 歷史적인 韓美頂上會談을 開催하고 兩國의 協助를 다짐하였다.





表紙……閔 哲 世
門扇……李 哲 喜

<目 次>

★畫 報

特輯·民主主義와 生活管理

民主主義社會에 있어 自己管理

生活의 改革과 創造

★言語管理

★文字管理

★家計管理

★式典管理

★總務管理

★住宅管理

★健康管理

★衣裳管理

★娛樂管理

軍人이 지녀야 할 일곱가지 生活型

漫畫로 본 革命半年

智照夫人

姜太師

▲미사일의 歷史 ⑤

▲防空救國 三個月 ②

▲世界의 驚異를 찾아서 ④

▲世界新聞 이야기 ② (伊太利篇)

第三回 雄辯大會 雄辯原稿 1, 2, 3 等

○오늘의 우리政府

<解說> 美國의 地下 核實驗이 무엇을 爲하느냐

<수필> 61年 노벨文學賞 受賞者

<수필> 自手成家

<詩> 十代의 職業

<小說> 모든들人間은 太陽을 안고 歩다

<戲曲> 새

人間再生

(表紙二, 三画)

李鍾雨 (二)

韓太壽 (五)

鄭忠長 (九)

李恩毅 (二)

金成毅 (二)

李恩毅 (二)

金成毅 (二)

崔台鏡 (三)

尹甲子 (四)

尹敬子 (五)

尹敬子 (五)

金宗文 (六)

申東憲·金庚彦 (三)

金一笑·白眞溍 (七)

李明温 (七)

鄭漢淑 (六)

하리파른 (吳)

金基漸 (吳)

柳根國 (吳)

特輯 民主主義社會의 自己管理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의

自己管理



李 鍾 雨

의 實踐에 있어서의 失敗를 또 무엇이 吟味自得했다면 이것이 하나의 收穫이라고 말할 것이다.

西歐 民主主義의 理念과 制度가 우리社會에 實驗된지 어느덧 十七年이 되었다. 그러나 八·一五 解放後 美軍政을 거쳐 自由黨獨裁와 民主黨執權一年에 이르는 期間은 한국인 주주의의 苦難史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民主主義란 말판없이 쉽게 體得 實踐되기 쉬운 原理」라는 것일 것이오 또한 이 民主主義

는 過去 우리는 「民主主義」나 「自由」이니 하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 왔고 國會議員 選舉, 投票, 言論自由, 에 모등을 民主主義로 錯覺할 程度였으니 韓國의 民主主義는 失敗할 수 밖에 없었다. 數年前 큰 申報告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現在(自由黨 治下를 말함) 筆者註) 不安定 狀態에 놓여 있다. 약간의 進歩는 보여지나 지난 數年間 民主主義의 外貌만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奇蹟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民主主義의 制度들은 最近 가장 큰 試驗에 直面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도 豫測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은 우리의 記憶에 새롭다. 그런데 同報告가 한국社會의 診斷을 마치고 將來를 위한 處方을 쓴 것이 다음 글이라고 볼 수 있다. 卽 「한국에는 仁慈한 專制政治가 보 다 타당할런지도 모른다. 大韓民國이 當面 한 바와 같은 內憂外患 밑에서는 民主主義가 不相當할런지도 모른다. 最少限度로 그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民主主義에 어느 程度의 節制가 必要하고 過渡期에는 어느 程度 指導가 必要할런지도 모른다」고 指摘했다. 이러한 見解는 어느 程度 우리의 反省을 촉구하는 警告도 되는 同時에 「韓國人은 民主主義를 할만한 自治能力이 없다」는 뜻으로 解釋이 되어 서글픈 생각마저 품게 하는 것이다. 특히 民主黨治下 地方自治團體長 選舉에서는 投票率이 極도로 低下하여 「포리티칼 아파시」(political apathy) 現象을 나타내어 결국에 가서는 「보다 強力한 政治」를 바라는 民衆의 마음에 反應하여 다시 惡한 獨裁가

操頭하게 되거나 앉을까憂慮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었다.

그리하여 뜻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仁慈한 專制政治」나 「善良한 獨裁」만이 危機에 처한 한국 사회를 구출할 수 있다는 의견마저도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仁慈하다」든가 「善良하다」는 修飾語를 머리에 부쳤다고 해서 「專制政治」나 「獨裁」를 許容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A·A 불려에 속하는 後進國들이 一人政治 혹은 善良한 獨裁를 俟해 經濟復興을 이룩하는 實例에 外面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事實上 後進國에서는 民主主義나 自由니 하는 理念의 特權層의 不正과 奸惡을 默認케 해 주는 「腐敗의 自由」로 變質되는 수가 尙왕히 있었던 것이다. 民主主義의 自由가 마치 放逸 無節制를 許容하는 것처럼 錯覺하여 合理的이고 安定된 行政力을 必要로 하는 後進國 實例에 議會와 매스·콤의 부패 橫暴는 무질서와 破滅을 招來한 實例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후진국들은 西歐民主主義를 直輸入하는 데 失敗한 經驗을 通하여 民族의 主體性을 恢復하는 한편 그네들이 받아들인 民主主義가 결정매기에 불과하고 그 理念의 內實은 진느리키 조차 못했음을 통감한 것이다. 특히 傳統과 生活樣式을 달리하는 東洋文化圈에 속하는 諸民族이 異質의인 그리스도敎文化傳統위에 꽃핀 西歐民主主義를 자기나라 現實에 「接木」했다고 해서 平成的인 成長을 기대하기는 困難한 것이다.

△特輯▽民主主義와 生活管理

二

民主主義는 그 文化傳統속에서 울어난 生活樣式이다. 民主主義란 것은 단지 政治制度에 始終하는 것은 아니다. 民主主義는 政治制度이기 이전에 生活樣式이며 그러한 生活樣式을 成立시키는데는 오래동안에 걸쳐 形成된 倫理가 밑바침되어 있는 것이다. 후진국들이 民主主義의 理想이 훌륭한 것이라고 해서 그 代議制 投票制를 채택한다고 하여 그 移植에 성공할 수 없으니 그것은 마치 감자 줄기만을 꺾어다가 심고 뿌리를 옮겨가지 못한 잘못과 같은 것이다. 敎養을 지니지 못한 女人의 盛裝을 想像해 보라.

그러면 民主主義의 「뿌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西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敎傳統에 긴밀하게 밀바침된 「倫理」인 것이다. 民主主義는 多數決의 原理、自由、平等 議會民主制 投票制라고 규정되지만 그것은 分枝들이지 民主主義의 뿌리는 아니다. 民主主義는 democracy 라는 述語의 語源이 말해주듯이 「大衆 卽 國民의 支配」이다. 국민이 支配란 것은 國民들 스스로가 支配하는 政治의 뜻이니 「自治」가 곧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民主主義의 根底에는 自治의 精神이 있는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퍼슨」은 民衆의 「常識」이 民主主義에 의 依賴의 기초가 된다고 했다. 民主主義가 愚民政治일 수 없는 것도 역시 그 때문인 것이다. 개나 도야지와 같은 動物이나 未開人들에게 自治를 要求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자.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人間은 動物이지만 「理性的」動物이라고 했던 것이

다. 理性이란 分別心이나 算數를 셀 수 있는 能力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칸트의 「實踐理性」이 말해주듯이 人間의 意志規定의 能力을 의미하는 것이다.

民主主義의 基本이 되는 自治가 가능하려면 그 個人은 各自가 道德的 理性에 눈은 公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主義의 「自由」는 「放縱」과 混同될 수 없으며 쉽게 말하면 責任性있는 自由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大概 自由를 弛바라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拘束으로부터의 解放」을 自由라고 生覺한다. 事實上 政治的 自由는 支配者의 壓制나 暴政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러한 消極的 自由보다 優位에 있는 眞正한 自由 卽 積極的 自由를 生覺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선 칸트가 말하는 自律의 自由인 것이다. 칸트의 道德律의 根本이 되는 것은 「理性에 따라서 行爲한다」는 것이다. 理性이 스스로 自己立法을 하여 그 法則에 따라서 行爲하는 것을 칸트는 自律이라고 했다. 일핏 생각하면 칸트의 自律은 「法則에 服從하는 것」이므로 拘束이요 法律이라고 生覺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自律은 他律과는 反對로 「제가 세운 法則에 스스로 自己의 尊崇하는 것」이므로 自己原因의 이요 自己立法의 이므로 法則에 따름은 外的 因果必然의 系列에서 벗어나 새로운 系列을 제 意志가 새로 始作하는 것이므로 「自由」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自律의 行爲의 主體는 「人格」임으로 칸트의 自由는 人格의 自由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自律性을 가진 自由는 自己가 세운 法則에 自己가 服從한다는 點에서 嚴肅한 責任感을 띠

받침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民主主義의 自由는 責任性과 人格의 自覺의 倫理를 지닌 自由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自律의 道德을 갖지 못한 무책임한 개인이나 民衆에게 他律의인 強制命令을 내리는 支配자가 있는 社會에서는 自然히 民主主義가 死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各個人이 「自己管理」를 할 줄 알아야 한다. 「自己管理」란 것은 쉽게 말해서 「自制力을 가진 個人」 「리어나 불행한 行爲를 하는 個人」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民主主義社會에서는 먼저 個人의 重要性을 인정하며 個人의 自由와 人間性의 尊嚴이 옹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個人은 적어도 「自己管理」를 할 수 있는 個人이요 앞서 말한 責任性은 自覺한 人格을 뜻하는 것이다.

三

個人의 自己管理란 곧 自治라는 말로 代置시켜서 生覺해도 무방하다. 印度民族解放의 恩人인 마하트마·간디는 政治的 獨立에 앞서 「스와라지」(自治)를力說했으며 폭력을 통한 反英運動보다 民衆個人의 眞理를 파악하고(사치아크다하) 自治스와라지) 할 수 있는 民主社會의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길러야 한다고 의젓던 것이다.

民衆의 自治가 重要한 것이 아니라 自治할 수 있는 民衆의 成長이 民主主義再建의 先行條件이다. 오늘날 後進國들은 民主主義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自治의 精神을 기르고 各個人이 自己管理를 할 수 있게 교육하여 民主主義의 礎石을 하나씩 쌓아올

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五·一六革命後 再建國民運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再建國民運動은 온갖 封建的 舊習과 舊惡에 물든 國民들의 精神과 習性을 革新하는 運動이며 다시 말해서 自己管理와 責任性을 지닌 국민을 만드는 운동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過去누 政權이 저지른 暴行 過去를 一掃하고 清新하고 社會正義가 다시 선 새나라를 건설하는 途上에 있다. 우리의 긴급한 革命課業은 軍事革命을 民間革命으로 發展시킴으로써만 完遂될 수 있다.

어느 革命을 막론하고 國民의 同調와 支援없이 성공한 例가 없으며 우리에게 있어서도 국민 각자가 정신 혁명을 거쳐 「새사람」으로 再誕生되지 않는 限 民主主義의 再建은 不可能한 것이다.

西歐가 우리에게 준 文化的 價値는 自由, 平等, 寬容 등의 精神이다. 우리가 共產主義에 反對하는 精神的 根據는 바로 이 民主主義와 自由의 守護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後進國中에서는 民主主義는 여러가지 挑戰에 直面해 있으며 많은 長點에도 불구하고 그 脆弱性으로 말미암아 危機에 處해 있는 例가 없지 않다. 더욱이 共產主義와 그밖의 全體主義의 攻勢를 맞나 民主主義의 自由를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尤혹에 빠지는 수도 있는 것이다. 眞正한 自由는 고되게 무거운 責任性을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實存哲學者 J·P·사르트르는 「人間은 自由에 의해 處刑되어 있다」고 했던 것이다. 우리人間은 民主主義나 自由와 같은 高貴한 文化價値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려고 하는 傾向까지 있는

다. 責任의 苦役을 면하고 自由로부터의 도의를 피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自由와 自由의 憲法을 버린 독일이 擇한 狹를 터 獨裁는 무엇일지 가려 왔던가? 그리하여 카알·야스퍼스도 現代 「自由 拒否의 誘惑」에 빠져 있다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던 것이다.

「自由를 포기케 하려는 유혹은 憐憫의 情과 忍耐의 缺乏에서 생긴다.

먼저 憐憫의 情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自由에 기본해서 事物을 處理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더러 自由에 기본해서 行動하라고 要求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대해 自由를 기대하는 것은 殘酷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同情의 念에서 그의 손을 붙들고 引導해 주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自由를 포기케 만드는 결과가 된다.

다음으로 忍耐의 缺乏은 愚鈍, 怠惰, 惡意 등과 대면할 때 생긴다.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밝은 사람이 그 일에 無知한 사람과 이야기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무의미하게 되었을 경우 權威있는 宣言으로 말을 中斷시킬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自身이 對話를 거부함으로써 服從을 強요케 되는 것이다.」고 했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態度는 결국 自由를 濫用하게 되고 마침내는 萬人의 奴隸化를 초래케 된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우리는 결코 自由拒否의 유혹에 빠져 民主主義의 再建에 無關心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國民이나 指導者에게는 自己管理가 必要한 것이며 權力의 甘味에 誘

感되거나 服從과 責任免除에 安住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끊임없는 努力으로 平穩히 民主主義를 키우고 自由를 伸張시키는 일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至今 우리나라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向하여 그 基礎를 닦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지

生活의 改革과 創造



一、序 論

우리 민족의 生活改革은 오래 前부터 그 必要性이 論議되어 왔다. 春國 李光洙氏가 上海에서 돌아 오면서 民族性 改造論을 부르짖은 것을 矯矢로 하여 解放後 自由黨時代에도 生活改善運動이 微微하나마 展開되었고 四·一九革命後에는 서울文理大 學生들을 中心으로 하여 새 生活運動이 烽火와 같이 일어 났었다. 그것이 五·一六革命後에는 再建國民運動으로서 積極적으로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이 問題는 누구나 切實히 느끼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成功하고 못하는 것이 國家運命을 左右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 民族에게는 重要한 問題이며 가장 核

△特輯▽民主主義와 生活管理

년十七年の 쓰라린 경험에 참나운 民主主義의 再建에 저지 않은 影響을 줄 것이며 西歐 民主主義의 「既成服」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前轍을 反省하여 「民主主義의 韓國化」를 위한 摸索과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筆者·高大副總長)

韓 太 壽

心的인 課題인 것이다. 그러면 이 問題가 如何한 意味에서 그렇게도 重要한가 하는 것을 몇가지 方向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二、歷史的 傳統으로 본 生活改革의 必要性

우리 民族은 生活上 여러가지 歷史的 傳統을 가지고 있다. 그 傳統中에는 자랑할 만 한 것도 많고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더욱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여러가지 傳統中에서 改革을 必要로 하는 것만을 指摘해서 考察하려고 한다.

첫째 우리는 儒敎的인 生活傳統에 있어 있는데 勿論 여기에도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改革해야 할 점이 더욱 많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切實한 것은 虛禮虛飾이다. 冠婚喪祭에 關한 것을 생략해 보자. 只今도 婚姻을 하는데 있어서 女子側에서 많은 禮

節을 媿家에 가져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男子側에서는 이 禮物을 많이 받기 위하여 그에 對應하는 準備를 한다. 이와 같이 해서 彼此가 無理를 取行하고 그 때문에 負債을 저서 結局 敗家하는 일이 非一非再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傳統이 形成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女子가 媿家에 갈 때 禮節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媿家의 歡心을 사기 위하여고 그렇게 해야만 媿父母待下에서 無事히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男子側에서 結婚을 위하여 準備하는 것은 거의 全部 新婦 一身에 關한 것으로서 衣服과 佩物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新婦가 어떻게 媿家사리를 잘하고 싶었기 않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集中된 處事인데 그 根本은 男尊女卑의 大家族制度를 土臺로 한 婚姻이란 點에 있는 것이다. 이 傳統이 儒敎의 思考方式에서 온 것이고 只今도 이 傳統을 지키는 것은 虛禮虛飾이며 敗家亡身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喪祭에 關하여도 儒敎式 思考方式은 父母가 死亡한 것은 子息이 孝를 다하지 못한 罪라고 하여 喪主를 罪人取扱하는 것인데 「孝」에 對한 이러한 觀念도 上下 階級을 土臺로 한 封建社會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傳統 때문에 오늘날도 虛禮虛飾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可憐할 일이 아니겠는가?

祭事에 關한 것은 一種의 宗教的 觀念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宗教의 發達史的으로 보면 아직도 未開宗教에 不遇한 것이다. 宗教는 三段階로 發達하였는데 첫 段階는 自然崇拜였고 둘째 段階는 祖先崇拜

였으며 셋째 段階는 神崇拜이다. 卽 처음에는 人間 아닌 것을 崇拜의 對象으로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人間을 崇拜對象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人間 아닌면서 人間과 類似한 하나님을 崇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祭事는 第二段階의 祖先崇拜인 것이다. 그러므로 死亡한 祖先의 靈魂은 살아 있어서 後孫을 保護한다고 생각하고 盛大히 祭事를 차려야만 子息된 道理가 되는 동시에 그 加護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現代의 觀念으로 볼 때 어딘서기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傳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結局 科學的 教育이 널리 보급이普及되지 못한 탓이기도 할 것이다.

그밖에 또 한가지 儒敎의 傳統으로서 우리 民族의 骨髓에 깊이 박힌 것은 周易思想이다. 陰陽을 前提로 한 演繹的 推理가 未來를 占칠 수 있다는 것으로 確信하여 갖은 豫言書가 續히 있고, 이것이 끝없는 神秘感을 造成하여서 科學的 思考를 阻害하고 있는 것이다. 鄭鑑錄思想은 그 顯著한 것이며 이러한 神秘思想이 基督教과 阻付하여 갖은 邪敎을 造出하고 있는 形便이다. 모든 것을 科學의 으로 分析하여 自然의 理致를 把握하고 이미 人間이 宇宙를 旅行하게 된 때에 아직도 至極히 不確實한 演繹的 推理에 滿足하여서 될 것인가?

以上 儒敎의 傳統外에 들쳐 傳統으로서 佛敎의 影響을 들 수가 있다. 佛敎는 그 根本原理가 生死를 同一視하는 데서 安心立命하고저 하는 哲理인데도 不拘하고 이것이 上述한 바 儒敎의 神秘感과 結付하여 갖은 迷信을 낳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佛敎는 「覺」한 存在가 아니고 庶民들의 福을 비는

偶像으로 化하였으며 寺刹이란 寺刹은 모두 遊興場으로 變하고 民家 복판에 깊숙히 分店을 내어 民衆을 詐欺하는 賭博場이 되고 만 것이다. 이어져 釋迦如來가 못하지 않던 悲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좀더 健全한 宗教가 必要하고 僥倖을 기다리지 않는 着實한 生活이 要求된다고 할 것이다. 要컨대 儒敎의 封建의 思考方式과 神秘感이 基督教, 佛敎, 佛敎 할 것 없이 一切의 宗教를 迷信化시켜 버린 것이 아니라 할 때 이 儒敎의 習에서 脫及하는 것이 生活改革의 要諦가 될 것이다.

三、民族性으로 본 生活改革의 必要性

우리 民族性이 現在 重大한 缺陷을 內包하고 있는 것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이다. 이 缺陷이 先天的인지 後天的인지는 速斷할 수 없으나 如何튼 現在 重大한 問題로 登場한 것만은 事實이다. 그 缺陷 根까지를 논다면 첫째 協同心이 不足한 것, 둘째 恩惠를 느낄 줄 모르는 것, 셋째 勤勞心이 不足한 것 등이다.

첫째 協同心이 不足한 것은 누구나 하는 말이다. 個個人은 모두 獨特하고 伶俐하고 또 頭腦가 明哲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個個人이 모이려 集團力을 發揮하지 못하는 것이 病인 것이다. 英國人은 힘이 모이면 힘이 倍加되고 셋이 모이면 또 三倍로 增加하는데 우리는 힘이 모이면 힘이 半으로 줄고 셋이 모이면 또 三分之一로 준다는 것이 一般的으로 하는 말이다. 무슨 까닭인가? 筆者는 그 理由를 國家觀念의 缺如乃至 稀薄이라고 指摘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 缺陷은 後天的이라고 筆者는 생

각한다. 李朝 五百年間에 자라난 事大主義 思想이 그 根本이 되는 것이다. 中國을 大國이라고 하며 이것은 不可侵이라고 생각하고 그 屬國으로서 滿足해 하는 弱者心理가 事大思想을 낳았으며 이 事大思想으로 말미암아 强者를 쫓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데서 結局 獨立的인 國家意識을 喪失하고 만 것이다. 韓日合邦 前段階에서 日, 露, 中이 韓國을 노리고 서로 角逐할 때 親中에서 親日로 親日에서 親露로 勢力따라 來往하던 것을 생각해보고 韓日 合邦後 親日에서 解放後 親美로 넘어가면서 對美援助에만 一方的으로 依存하고 自主獨立의 基를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한 過去를 回想할 때 李朝 五百年間에 자라난 弱者意識이 하나의 民族性으로 굳어진 것을 感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要는 이 弱者意識에서 自暴自棄하고 國家意識을 拋棄한 소이니 終局的으로 남은 것이 依他的으로 個人의 生存과 榮達을 圖謀하는 것 뿐인 것이다. 이러한 國家觀念의 缺如가 協同心을 刺奪하고 만 것이다. 이 民族性으로 봐서 어찌 自主獨立國家

의 建設을 期待할 수 있겠는가? 獨立을 目標로 鬪爭하는 抗日戰線에서도 協同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春國의 民族性 改造論이 나온 것을 單純히 春國의 自己辯明으로만 돌려버릴 수 없는 것이다. 如何한 方法으로서는지 우리는 國民에게 갖은 國家觀念을 넣어 주어야 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亦是 靑少年을 相對로 하는 徹底한 教育이 必要한 것이다. 國家觀念만 바로서면 協同心은 저절로 形成될 것이다. 要는 共同目標을 提示하고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具體的인 方法과 實踐을 通한 信念을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恩惠를 느낄 줄 모르는 缺陷에 또 한 重大한 것이다. 보라, 남의 恩惠를 입고도 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式으로 行動하는 사람이 周圍에 얼마나 많은가? 이와 같이 具體적으로 눈에 보이는 恩惠를 받고도 잊어버리거늘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社會의 恩惠를 느낄 수 있겠는가? 社會에서 出世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勿論 個人의 力量에 달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社會로부터 받은 恩惠도 큰 것이다. 따라서 社會에 대하여 恩惠를 받을 진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더 그렇게 하여 社會가 더욱 隆盛할 때 個人은 一層 더 發展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에도不拘하고 우리 社會에서는 社會를 爲하여 眞心으로 努力하는 면이 거의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元來 社會事業이라고 하는 것은 社會로부터 많은 恩惠를 받고 이에 報答한다는 意味에서 社會를 爲하여 自己 財產의 일부 또는 努力의 일부를 提供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社會事業이야말로 高貴한 것이며 衆人이 推仰하는 德望이 되는 것이다. 孤兒院, 慈惠病院, 教育事業, 其他各 救濟事業이 모두 이러한 性質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實情을 보라. 거의가 羊頭狗肉으로서 社會事業이란 美名 아래 企業을 하고 있지 않는가? 孤兒院이란 이름 아래 異邦人의 情賊이던 喜捨를 받아 가지고 私財를 蓄積하는 일, 教育事業을 빙자하고 學生을 擄取하여 個人의 出世를 圖謀하는 일, 其他 救濟事業云云하여 募金한 金品을 橫領하는 일, 等等

△特輯 V 民主主義와 生活管理

이나라의 實情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社會事業을 하였다고 하여 功勞를 云云하고 名譽를 獨차지하려 들지 않는가? 社會로부터 받은 恩惠를 깨닫지 못한 자가 社會事業을 제대로 할 道理가 없는 것이다. 社會를 떠난 個人의 生活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튼튼한 社會的 基盤 위에서 個人의 繁榮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國民에게 徹底히 認識시켜야 할 것이다. 個人이 億萬의 住宅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必要가 있는가? 六·二五事變때 避難가던 일을 생각해 보면 社會的 安定이 없는 個人 財產은 물위에 뜬 거품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社會의 恩惠에 應分의 報答을 할 수 있는 民族性을 길러야 할 것 같다.

셋째 勤勞心이 不足한 것은 兩班이란 特權階級을 認定하고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優待했다는 歷史的事實이 招來한 結果라고 생각된다. 勤勞하는 사람은 常人이라고 하며 賤待하고 일하지 않고 詩文을 論하는 兩班을 優待하였기 때문에 勤勞 그 自體가 賤視된 것이다. 이러한 오랜 傳統이 하나의 民族性을 形成하여 現今도 그러한 思考가 뿌리 깊게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될 수만 있다면 勤勞하지 않고 살 생각을 하니 여기에 詐欺 挾雜, 橫領, 背信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길으로만 말속하게 차리려고 하는, 말하자면 兩班態를 내려고 하는 虛飾이 만들어 내는 現象인 것이다. 오늘날 韓國처럼 武士는 社會가 없는데도不拘하고 사말들이 奢侈하기로는 有名한 風潮도 이러한 하나의 歷史的 產物인 것이다. 貧困한 兩班이 生活의 方

途가 없어서 견디다 못해 世人이 賤視하는 장사를 해볼 勇氣를 내었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함부로 할 수는 없고 兩班이 日常만지는 白紙장사를 始作하였는데, 이것을 「사시오」라고 외칠 수가 없어서 종이 장사하는 商人이 「종이 사시오」라고 외치고 다니는 꼴을 따라 다니며 「내 것도」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는 實로 意味深長한 것이다. 이러한 勤勞賤視의 精神을 뿌리서부터 때버리지 않고는 이나라의 經濟再建을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다.

四、時代的 要請으로 본 生活改革의 必要性

上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좋지 못한 歷史的 傳統과 民族性의 缺陷 때문에 終乃 自主獨立 國家를 維持하지 못하고 異民族의 奴隸가 되어 三十六年間을 呻吟하다가 世界第二次大戰의 德澤으로 解放이 되었다. 그러나 不幸히도 國土가 兩斷되어 民族的 統一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우리 國土가 兩斷된 것은 어느 누구의 造作이란 것보다도 世界가 二天陣營으로 對立하는데서 不可避하게 이루어진 現象이니 이 問題는 世界問題의 解決과 함께 終末이 될 性質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길은 當分間 南韓만을 據點으로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좁은 國土 내에서 密度 높은 人口를 가지고 어떻게 經濟建設을 해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深刻한 問題다. 이 問題를 解決해 내지 못하는 이상 우리의 前途는 또다시 暗黑인 것이다. 多幸히 우리는 美國이라는 世界 第一의 富強國으로부터 積極的인 援助를 받고 있으며 其他 自由 友邦으로부터 여

러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만
精神차려 울타른 길을 걷기만 하면 이 어려
운問題도 能히 克服할 수 있는 것이 分明
하다.

그런데 過去 自由黨 政府가 걸어 온 길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도 많은 美國의 援助를
받으면서도 조금도 이나라 經濟建設의 土臺
를 닦지 못하지 않았는가? 國家全體를 爲
한 援助를 一部 勢力層이 壟斷하고 또 그
政權維持를 爲하여 浪費하고 만 것이다. 如
前히 이나라 國民은 過去の 惡夢을 깨지 못
하고 있는 것을 實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自由黨이 이렇게 한테는 民主黨의 責任도
크게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民
主黨의 前身은 民主國民黨이고 民主國民黨
의 前身은 또 韓國民主黨이었다. 이 韓民
黨은 美軍政과 結托하여 呂運亨中心의 勤勞人
民黨을 打倒하였고 그 다음에는 또 李博士
를 일으켜 金九先生中心의 韓獨黨을 打倒하였
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李博士를 相對로
政權鬭爭을 하였으니 이에 對抗하기 爲하여
李博士는 自由黨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自由黨이 만들어지
자 韓民黨은 黨勢를 擴大하여 民主國民黨으
로 하고 自由黨과 鬭爭하였. 또 그 鬭爭過
程에서 다시 黨勢를 擴大하여 民主黨으로
한 것이다. 自由黨의 亂暴하니 이것을 牽制
하기 爲하여 鬭爭한 것은 조금도 잘못이 없
다. 그러나 李博士와 對立하여 李博士로 하
여금 自由黨을 만들어 내게끔 한 것은 決코
稱頌할 수 없는 일이다. 要는 黨爭을 激化
시킨 動機가 여기에 潛在한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黨爭으로 亡한나라
가 또 다시 黨爭을 助長하여서 建國이 될 것

이 무엇인가? 如何든 民主黨과 鬭爭하는데
서 自由黨은 度를 넘었고 그 때문에 自由黨
은 四·一九革命으로 國民의 裁判을 받았
다. 그 結果 民主黨은 執權하게 되고 國會
內에서 三分之二線을 突破하는 國民의 信任
을 얻었는데 왜 民主黨은 兩黨으로 分裂하
여 國會內의 安定勢力을 喪失하고 그 때문에
政治細工만 하다가 政策遂行은 着手해 보
지도 못하고 말았는가? 모두가 쓸데 없는
派爭이었던 것이다. 그때문에 五·一六革命
으로 또 다시 國民의 裁判을 받게 된 것이
다.

때는 派爭의 時期가 아니다. 總國民이 團
結하여 民族의 運命을 打開해야 할 時期
인 것이다.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의
하나 하나가 모두 汎國民的인 團結이 아니
고는 解決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一例
를 들어 써야 하면 有名無實한 大學 하나를
開鎖하려 해도 黨爭이 指續하는 限은 不可
能한데 今日와 같은 教育界 全般에 걸친 大
幅整理를 總國民的인 團結이 아니고 可能하
겠는가? 韓日問題와 같은 外交問題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國內에 派爭이甚하면 外勢
는 이것을 利用하여 浸透하는 것이 歷史的
事實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核心課題
로 하는 經濟建設이야말로 國民의 總力이
아니고는 到底히 克服할 길이 없는 것이다.
外國援助도 좋지만은 結局 經濟的인 自立은
民族資本의 育成에 있는 것이며 이것을 하
기 爲하여는 健全한 國民生活이 먼저 要求
되는 것이다. 여기에 「生活改善運動」이 必
要하고 또 「新生活運動」이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自由黨時代도 民主黨時代도 國民的

인 呼應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成果를 보
지 못하였다. 五·一六革命으로 民族의 運
命을 마지막 씨름하는 이때도 國民은 깨지
않아야 하겠는가? 오늘날 革命政府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完全할 수는 없을 것
이다. 그러나 眞正과 熱과 誠意로써 하는
것만은 事實이고 全體的인 方向에서 틀림이
없다면 枝葉的인 問題는 建設的인 批判으로
써 足할 것이고 나머지는 全的으로 協力하
여 最後로 民族의 運命을 決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意味에서 再建國民運動은 國民
各自의 問題인 것을 力說하지 않을 수 없
다.

五、結 論

改革은 곧 創造를 意味한다. 우리의 生活
이 改革되어야 한다는 것은 上述한 바 여러
가지 角度로서 考察하였다. 問題는 어떻게
改革하며 새 生活을 創造해 가느냐 하는 것
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民族이 處해 있는
位置를 알고 스스로의 民族的인 缺陷을 깊이
反省한다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自然히
明白해질 것이다.

過去の 因襲에 盲目的으로 追從하지 말고
하나하나 批判을 加하여 多少라도 合理的
인 方案이 없는가 하는 것을 細心히 研究한
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새 生活은 創造될 것
이다. 美國사람은 「질승거리」까지 힘을 들
이고 걷는 方法을 研究한다고 한다. 조금
만 合理的인 思考로써 우리의 周邊을 살펴
보아도 너무나 改革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을
發見할 것이다.

(筆者·漢陽大 政經大學長)

文字管理



이 희 부

우리의 둘째에 있는 글자들을 살펴보면 그 번거로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1, 반공을 국사의 제일의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歐羅巴 諸國도 韓國 軍事革命을 擁護 支持하였다.

3, U.S.O.M에서 한류 경제 계획을 지지하였다.

4, 五〇〇年 治亂興亡을 간직할 南大門樓, 더욱이 任賢讓能을 爲한 讓讓의 機明.....

이렇게 볼 때의 1은 순 구문의요, 2는 3은 4는 5는 모두 한문이고, 3은 로마자가 섞인 구문이고, 4는 숫자와 한문 섞여 섞인 글이다. 이렇게 복잡한 네 가지 종류의 글자를 쓰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도 드물 것이다. 다른 각도에 서 보면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문자생활을 하되 그만큼 문자를 배우기 위하여의 정력을 소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치 운동이 있었고, 한글 전용 운동도 있었으나 오랜 시일을 두고 뿌리박힌 전통을 쉽사리 쫓기도 어렵거니와, 오랜 시일을 두고 쌓아올린 문화유산도 쉽사리 버리기는 쉽지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간행되는 서적중에서도, 교과서나 소설 따위, 또는 일부 식자의 글은 순 구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한문 혼용이라야 읽기가 쉽다든지, 시각적인 효율이나 뜻을 잡기에 편하다든지 하는 이유는 있다 손 치드라도 우리 글이 유리할 줄 표기하는 데에 아무 부자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숫자는 하나의 기호로 쓰기 때문에 실제 글자의 생활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로마자 역시 교육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다 하겠고, 문제는 자연히 한자 문제로 쏠리게 된다.

한자에 대해서 제한이냐? 전폐나? 또는 방음이냐? 해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었고, 본교부의 자문기관인 국어심의회에서 우리 국어 정책을 위하여 토의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렇게 할 두드러진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현실은 교육한 자 一,〇〇〇자를 제정하여 초등에서 눈으로 익히기, 중등에서 한자 지도, 고등학교

〈藥이 되는 말〉
★ 읽습니다.

後漢의 司馬徽는 他人의 愚을 笑하지 않는다 해서 宗景을 罵았다. 그러나 宗景은 失手를 하는 마가 없지 않았다. 그 까닭은 愚을 笑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고 아무는 말을 할 때 마다 「종습니다」라는 것이 입바릇이었다. 가령 고양인 顔川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요즘은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종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날 오레간만에 찾아온 사람이 「오랫동안 찾아 뵈지 못하였읍니다. 實은 子息을 잃었읍니다」라고 말하니 그는 대뜸 「그기 참 좋았읍요」라고 응대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이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드님을 잃었다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라고 चे하자 그는 「당신의 그 말도 참 좋군!」

에서 한문 지도의 단계를 밟고 있으나, 일반 사회에서는 줄이자는 의견은 많지만 실시는 어려워져 거의 무제할이라고 하겠다. 수십 년 전에 일반 간행물에도 적용하게 하도록 一,三〇〇자를 제정한 바 있었으나 이도 한글 전용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뜻에서 공포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자 학습의 실태도 보아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함이 결과적으로 파져서 유리하다. 한자를 一,〇〇〇자 폐워서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쓸 수 있는 글자는 50% 60%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한자 一,〇〇〇자라고 하자만 사실에 있어서는 음파세 김으로 배가 되는 二,〇〇〇가지가 두가지 세가지에 불과한 한 글자를 따가지 세가지의 음이나 뜻으로 읽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많아진다. 六(유) 月, 五(유) 月, 五(유) 島, 六(유) 十 등으로 六자 하나를 四가지로 읽는다면, 自殺(自), 相殺(相), 切(切) 斷(斷) 一切(切) 등 두 자지는 수두룩하다.

거기다가 새로운 술어는 국내에 어떤 연구 기관이 없는 것과,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原子, 核武器 頂上會談 등이 한자어로 받아들여지고 기성 세대에서도 한자어 통하는 만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니 앞으로 이런 한자 술어는 증가될 가망이 많다. 한편 국내 사정을 보더라도 성명, 지명, 호적, 옛 문헌이 모두 한자이기 때문에 이를 일조 인적에 폐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한자 술어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말의 본모습을 따려고 하는 인적(人情)도 많이 작용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쉽사리 한자를 폐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나 이 상배가 그대로 방임되면 더욱 우리의 문자 생활은 부장 일로로 밟을 것이며 따라서 문화고 자체의 발전보다 이를 발전시키는 수단인 학습에 더욱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배 국자를 버리고 로마자로 과감한 개혁을 하는 예도 있는 것처럼 우수 한 우리글을 가진 민족으로서서는 한글을 단말라된 문자 생활의 실천이 요구되는 바 크다.

(筆者: 文敎部 編纂官)

家計管理

李恩馥



家庭經濟의 計劃 原則

家庭生活를 營爲함에 있어 收入이 많아지고 財産이 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갖는 人情이다. 그러나 願하는대로 收入이 늘지 않고 갖고 싶은대로 財産이 생기지 않는 것은 또한 社會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을 지나치게 벗어나 欲望이란 空想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家庭經濟 計劃의 原則은 健全한 生活基礎를 닦고 生活內容을 향상시키며 萬一을 爲한 예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收入과 이에 부응하는 支出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原則을 실제로 구현하자

① 收入과 支出의 均衡이 表示되어야 하고

特輯 民主主義와 生活管理

이 되어야 한다. 事實 우리들은 十人 家族인 경우에 五人家族를 토대로 하는 小規模收支均衡의 數字를 그대로 利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또한 이러한 收支均衡이 世帯主의 年齡如何에 따라 달라짐으로 收入 또는 支出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世帯主의 年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④ 그리고 이와같은 收支均衡은 이 들레면 食費는 食事의 量보다 質에 重點을 두어 榮養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이와같은 飲食費를 全支出의 二分의 一로 한다든지 所要飲食費의 二倍에 해당하는 收入을 가져 오도록 家族의 經濟活動을 계획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收入에 알맞는 合理的 生活基準과 태도가 필요하며 社會實情에 부합되는 계획이 계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以上的 計劃原則이 概念에만 限定되는 문제라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周邊을 살펴보면 利子들이므로 收入을 잡는 사람, 月給, 週給, 日當, 諸手當으로 生計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며 商人은 商人대로 代金의 決済時期가 달라 收入의 規模나 期日에 차이가 차이가 있다.

이와같은 相違한 條件下에서 앞서 말한 計劃과 原則을 收入과 支出面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시 몇가지 要點下에서만 可能하다는 것을 指摘해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點은 限定되어 있다 싶은 한 收入보다도 支出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첫째 家族의 欲望을 「콘트롤펀」해서 生活環境에 부합되도록 支出을 調整해야 하고

둘째 收入이나 支出에 合理的 生活態度가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生活를 無意識의으로 또는 散漫하게 함으로써 損害를 보고 있는 例가 한두가 지가 아니다. 物件을 살 때에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삼으로써 損의 피로를 덜리고 交通費가 절약되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支出面에 貯蓄을 反映시키야 된다. 將來爲爲해 保險, 貯蓄 또는 私積같은 것은 이런 方法으로서 저절할 것이 될 것이다.

넷째 收入支出은 一定期間을 두고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보통 一箇月의 收入을 보고 있음으로 月間의 收入支出을 豫算化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섯째 以上の 計劃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家族이라는 集團生活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全家族의 理解와 協력이 있어야 한다.

收入은 어떻게 計上하는가

첫째 收入의 平均化가 成立되어야 한다. 그럼으로 日常生活費를 충당할 수 있는 金額以上을 계속적으로 벌어들여야 할 것이다. 둘째 收入은 確實性 있는 것을 計上해야 한다. 期待되는 以上の 것을 計上해서는 안되며 確實性 있는 것을

計上하되 그것을 經常的인 性格의 것이거나 아닌가를 구분해서 經常收入과 臨時收入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勤勞所得 또는 商, 農家에서 生計費로 計上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內職兼職같은 家族의 所得은 經常收入이 될 것이며 賞與金, 賞金 등은 臨時收入이 될 것이다.

支出은 어떻게 計上하는가

支出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限定된 收入을 가지고 어떻게 合理的으로 使用하느냐 하는 것이 主된 과제 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 支出에 있어서도 平均化된 數字가 表示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金額과 時機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것을 經常支出으로 豫算해야 하며 不時에 多額을 支出한 性質의 것을 臨時收入의 限度內로 인정하도록 하고 平時에 加入해 두었던 預金과 保險 등으로 充當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不意의 事故나 行事に 대한 支出은 家族意見에 따라 調整해야 한다. 그리고 收入如何에 따라서는 不動産이나 株을 사는 등 財産增加 또는 生産成長準備 등을 위한 貯蓄性을 띤 支出이 計上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둘째로 支出은 그 家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與件을 충분히 고려한 數字여야 한다. 家族의 人員이 고려되어야 하고 家族의 年齡과 性別이 交通費를 줄이고 間食費를 늘리며 女子에게는 衣服費를 늘리는 것 등이 다. 다음에는 衣服의 健康狀態와 各자의 취미,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全家族가 같은 취미와 성격을

가질 수 없고 또한 限定된 收入으로서는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 이 아니다.

支出에 영향을 주는 것은 以上の 것이지 富貴 家族의 職業, 居住地, 季節의 變動, 物價變動, 家族의 知識水準의 高低 또한 家計全般에 큰 영향을 미친다.

以上과 같이 家計의 收入과 支出

儀式管理



現在 우리 國民들이 當面한 課題는 經濟의 復興과 健全한 生活態勢의 確立에 있다. 經濟를 復興시키고 健全한 生活態勢를 確立하려면 먼저 過去の 모든 奢侈와 浪費 등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한다. 즉 國民生活의 合理性이 強調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라고 해도 그렇게 간단히 計上되는 것이 아니라 그 家庭을 둘러싸고 있는 또는 家庭을 이루고 있는 여러가지 要素에 따라 規模와 內容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家庭生活에 합에 있어 無意識에 흐르지 않고 合理的이고 均衡있는 家計를 營爲한다는 精神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筆者·韓國生産本部 理事長)

金潤成

위해서 땅마지기 팔아야 하고 兩親의 回甲을 피기 위해서 오직 한 마디 밖에 없는 農牛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혼수에 땅마지기 팔지 않으면 人情없는 父母라고 洞리를 아들의 指彈을 받고 回甲에 農牛를 아끼면 후배자식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 實情이다. 果然 이래서 움을 까?

五·一六 軍事革命을 國民革命으로 이끄는 再建國民運動에 있어서 新生活體制의 樹立 特別 冠婚喪祭의 簡素化와 合理化는 그 核心課題가 아닐 수 없다. 勿論 原則의 上으로 말하면 新生活이란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한 좀더 進歩된 發展된 便利하고 華麗한 生活를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부르짖는 新生活은 어느 意味에서 그와는 反對로 도리어 後退한 不便하고 簡素한 生活를 이르는 말처럼 되어 있다. 冠婚喪祭만 하더라도

〈藥이 되는 말〉

★ 見解의 相違 春秋戰國時代 宋나라의 어떤 사나이가 우연한 기회에 귀중한 玉을 손에 넣었다. 그는 이것을 重臣인 子罕에게 갖다 바쳤다. 그러나 子罕은 아무래도 이것을 받지 않았다. 자나이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玉을 잘 鑑定하는 사람에게 보였

도 되도록 華麗하게 豊足하게 치루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慾望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되도록 이를 簡素化하고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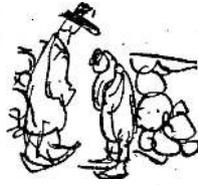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新生活이란 무엇의 의미하는 것인가. 果然 表面의 條件 그대로만 본다면 우리들의 新生活은 勿論 退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저급자에게 제 자신의 處地를 沒却하고 제 精神을 잃고 남의 힘에 의존한 가장 不合理한 生活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革破하고 새로운 覺醒의 生活로 들어서서야 않으면 안 된다. 즉 民族全體가 甦난에 高度의 幸福된 生活를 누리기 위해서 이 時代의 우리는 民族生活의 새 터전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당면한 우리 現實의 要諦인 것이다.

한가지 例로서 이 冠婚喪祭의 簡素化運動의 先鋒으로서 지난 九월 六일 全州에서는 合同結婚式과 合同回甲을 計劃實施하고 있다. 雙이 되던 여리 新郎 新娘들이 한식 式場을 빌려 百年僧老를 盟誓하면 그 費用이 節約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回甲을 마치고는 분들이 한 자리를 빌려 壽筵을 편

더니 세상에서 보기 드문 보배라고 하여 이것을 進上하는 터입니다. 「그 뜻은 고맙네. 그러나 나는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며로 삼고 있네. 자네는 玉을 보배로 알고 있는데에 만약 그 玉을 나에게 준다면 나도 자네도 다 같이 보배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各自的 보배를 잘 간직함이 좋지 않겠는가?」라 하여 끝내 거절하였다.

禮節管理

崔台鏞



再建國民運動本部에서는 標準儀禮規範을 發表하여 虛禮와 虛飾을 버리고 簡潔眞實한 生活 實踐을 勸獎하여 實踐期間을 두고 國民의 自發的인 實踐을 要望하고 있다. 萬若에 自律的인 遵行이 積極的인 成果를 지루지 못하는 境遇에는 法制化하여 強力한 規制性을 附與하겠다는 決意도 表明하였다.

元來 禮節은 社會의 習俗으로서 長久한 時日에 育成되어 왔기 때문에 人間關係의 精神的인 倫理觀念과 社會秩序를 維持하는 法制과도 關聯이 있어 人爲的으로 一朝一夕에 變換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家庭에는 家風이 있고 鄉里에는 鄉俗이 있고 地域에 따라 習俗이 다르고 宗教에 左右되고 民族과 國家 사이에는 종종 誤解를 받을 만할 업칭인 形式의 差異가 있어서 世界民主社會를 指向하는 現代에 있어서 國家의 統一的으로 國際的으로 形式의 統一이 必然的으로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特輯 民主主義와 生活管理

우리나라는 東方禮儀之國이라 稱號가 있는데 歷史的으로 禮節을 尊崇하여 李氏朝鮮時代는 三綱五倫을 根本으로 하는 儒教思想을 實踐하였고 身分秩序와 近世封建社會國家를 維持하는 道德的 律典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形式的 禮節은 一般庶民生活의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繁文縟禮는 도리어 國政을 紊亂하기에 이르러 英祖 正祖 年間에는 實事求是의 原則에 따라서 簡素化運動이 일어났고 禮出於情을 부르짖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妙한 禮節의 世界에 살고 있다. 古來의 美風이 되는 精神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時代錯誤의 遺習을 盲目的으로 踏襲하는 舊思想과 日常時代에 隱然히 스며든 倭風殘滓와 解放後 滯留한 율리들은 수박 겉 핥기 洋風이 범람이 되어서 是可謂禮節의 無政府 狀態에 놓여 있는 것이다. 冠婚喪祭에 이르러서는 그 번거로움이 弊害를 떠나서 民生問題에 累가 되고 精神生活에 墮落을 招來할 지경이다. 질수는 없이 겉치레만 하는 것이 韓國民族의 短點이었고 指摘한 外國人도 있었다지만 事實 冠婚喪祭 實用으로 破産한 사람은 非一非再이며 이것을 是正하려 해도 體面과 他人의 眼目이 두려워서 勇斷을 내리는 일이

아려왔던 것이다. 여기 對해서는 隣圉에 倭政 때 中樞院에서 禮節의 簡素化를 試圖한 結果 「儀禮準則」까지 만들었는데 日政에 對한 抵抗心도 있고 해서 오히려 逆效果를 낸 일이었다. 오늘날 國家再建의 새한 希望에서 舊習을 打破하여야 하며 이면이 制定한 標準儀禮規範은 마땅히 있어야 했고 또 國民 스스로가 遵守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儀禮規範이 制定되었다고 해서 禮節은 冠婚喪祭와 같은 形式問題로 解決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禮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民主社會에 있어서 人間關係의 親善을 圖謀하고 「나와 남」과의 接觸中에서 共通된 行動條件을 必要로 하는 것인 만큼 모든 社交活動에 있어서 精神의 인好호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社交라든가 公家道德이 生活化된 새로운 形式、民主生活에 必要로 하는 行動規範이 廣範圍하게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五倫이라는 原則으로 보더라도 國家 尊屬朋友 夫婦 長幼 間의 關係를 形式化하는데 있어 從前

의 舊時代의 遺習으로 좀더 人間的인 면에서 合理的인 生活을 할 수 있도록 되게 양호한 時代는 자칫 하면 五倫조차 否認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舊은 世代는 가끔 道義墮落을 慨嘆 하지만 舊形式에 있어 어느 면에서는 主從關係를 固執하고 있고 公衆道德에 關한 禮節을 等閑視하기 쉽다. 民主社會에 있어 禮節의 根本精神은 어디까지나 「人間尊重」의 原則에서 서로 사람 대접을 하기 위한 秩序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國家再建의 重要한 要素는 人間改造에 있다고 革命政府는 明白한 態度를 가지고 있다. 이 人間改造는 腐敗된 因習을 打破하고 形式的인 遺習을 止揚하여 自由와 平等의 社會、勤勞를 愛護하는 國民性에 있다고 생각할 때 禮節의 새로운 方向도 亦是 이리하여 歸結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기 사슬에 스스로 얽매어 俗된 禮式에 困難을 痛感하던 이 때 새로운 儀禮規範을 制定을 보고 滿腔의 贊意를 表하는 바이다.

(筆者·國立圖書館長)

藥이 되는 말

★ 李舜臣將軍의 節操

「李舜臣이 將軍제복으로서 勇將하니 한번 볼러서 쳐 보시오」

副提學 柳成龍이 그 李舜臣將軍을 兵曹判書 李栗谷에게 추천하는 말이였다.

「정 그렇다면 한번 만나게 하여 주오」
李栗谷은 말과 같다면 李舜臣을

한번 쳐 볼 생각이 있다고 어떻게 말함으로써 柳成龍은 즉각 李舜臣將軍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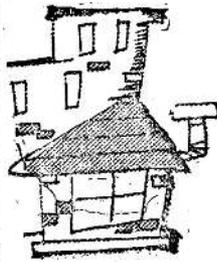
「栗谷先生은 자기네 일가 어른이 기도 하니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네」

柳成龍은 李舜臣의 榮達을 위해서 어떻게 勸했다. 그러나 李舜臣은 柳成龍의 말이 웃음들이 가도록 근소 리로 쓰아 부쳤다.

「일가 어른으로는 찾아갈만 하나 다 兵曹判書는 찾아 필수 없네」

住宅管理

공 병 우



나는過去 三年동안 우리 住宅계
선을爲하여 몇개의 집을 짓고
술여를 살면서 신지로 實驗을 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事實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선 目標은 적은 경비로 집
을 지어 가지고 적은 돈으로 잘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보자는 것입니
다.

一, 주택대지

주택은 높은 곳을 택하지 말고 평
평한 곳을 택해야만 경제적으로 지
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살 수 있
습니다. 높은 곳이 있는 주택은 또
다른 것을 운반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물을 얻
기가 곤란합니다. 지반여를 장중
단에서 일어난 흠대 파피로 수 많
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도 높은 곳
을 택한 까닭입니다.

二, 길과 물

주택은 정원까지 자동차 마차나
야카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를 만
들어야만 합니다. 길과 물을 먼저

확보해야만 경제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지은후 경제적으로 편한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三, 수혈과 문턱

주택은 문턱이 없이 방 부엌 변소
마루가 다 푸 같은 물이로 평평하게
지어야만 합니다. 높고 낮으면 다니
기에 불편하고 일의 능률이 나지 않
습니다. 문턱이 있으면 물건을 운반
하는데 힘이 들고 다니는 데도 불편
합니다. 우뚝하게 들어간 부엌은 막
대한 시간 손해와 위생적으로 불결을
가져 옵니다.

四, 변소와 부엌

변소와 부엌은 안방 즉 살림방 가
까히 두고 안방에서 직접 드나드는 출
입문이 달려야만 합니다. 만일 안방
에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변소나 부
엌에 들어가게 하면 겨울에 안방과 변
소와 부엌은 두 열 손실이 많고 출
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생활
에 능률이 나지 않습니다. 밖을 통하
여 부엌이나 변소를 드나들면 감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五, 수세의 변소

변소는 살림방 가까히 두어야만 하
기 때문에 반드시 수세식이어야만 하
고 배수관을 여섯(六)치 이상 되는 것

을 사용하여 후자로 신문지를 사용하
여도 막히지 아니 하도록 해야만 됩
니다.

六, 변소 세수 목록

대변, 소변, 세수, 무욕을 한 방에
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시간
이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이 때까지
를 세로 벌여져 있는 장소에 만들면
왔다 갔다 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불
편을 느낍니다.

七, 문

창문과 출입문을 되도록 저게 내야
만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덥게 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람
이 남쪽으로 통할 수 있는 창문이 꼭
있어야만 여름에 방이 서늘 합니다.

八, 실내 온도 확보

한국은 겨울이 길고 대단히 춥습니
다. 바깥 온도가 영하 十度 이하일 때
에도 구공탄 난로를 가지고 二十度 이
상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 살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이 필요 합니다.
(一) 흙벽돌로 벽을 만든다. 미꾸
기슬자들이 가져다 준 흙벽돌 기
제도 벽도 八 센치화 二를 섞어
서 적은 것입니다. 흙 벽돌은 여
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덥고 값이
싸고 견고하다.
(二) 천반 위에 가마니와 톱밥을 잔
다.
(三) 기와 또는 합석 밑에 흙 또는
톱밥을 잔다.
(四) 천정과 평마루 사이에 있는 공
간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통하지
않도록 천정속 벽을 흙으로 잘

바른다.
(五) 창문은 수와 크기를 최소로 저
게 만들고 비니루로 二층창을 만
든다.
(六) 온돌을 가급적 폐지하고 구공
탄 난로를 놓는다.
이상과 같은 설비로 겨울에 아무리
추운 날에도 二十度 이상 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작년 겨울에 실제로 증
명 하였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상과 같은 시설
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안방, 부엌, 변소 할 것없이 十度 이
하에서 누구나 출게 지냈읍니다.

九, 망사

창문에 망사를 쳐서 파리 모기가 못
들어 오게 합니다. 十六坪 住宅에 망
사費用이 약 萬圓 듭니다. 약 五年間
쓸 수 있습니다. 一年에 二千圓 消費
하는 셈이 됩니다. 二千圓 消費로 부
엌 살림방 변소 그밖에 온방에 파리
모기가 들어 오지 못합니다. 겨울에
도 망사를 뗄 필요가 없습니다. 모기
장을 五, 六千圓 주고 사다가 썼다 건
당면하다면 서한두 사람만이 사용하고
하면 시간적, 경제적, 위생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十, 더운 물

더운 물이 二十四時間 계속하여 나
오도록 변소에 더운물 보일러를 놓아
서 수시로 목욕 할때 세수를 더운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더운물 비용
은 하루 十九공탄 두덩이로 충분합니
다. 十九공탄 두덩이로 더운물 뿐만
아니라 변소와 목욕실 온도를 살림방

보다도 높게 보존합니다.

十一、복 육

복육은 「샤와」로 할 수 있게 하여서 복육하는 때 물과 시간이 절약되며 더운물 보이다 때문에 살림방보다도 향삼 二, 三度 높아서 옷을 벗고 복육하는 기분이 대단히 좋읍니다.

十二、온돌방 폐지

온돌방은 늙은이들을 위하여 한 개쯤 필요하지만 그밖의 모든 방은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세레트 바닥으로 만들어 밖에 출입하는데 신을 벗고 신는 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양말과 구두가 덜 떨어지고 패로는 구두를 잃어 버리는 일이 없어야만 일에 능률이 남니다. 침실에는 침대를 놓고 갈때만 구두를 벗읍니다.

이상과 같은 주택은 九월 현재 卍當 十萬圓으로 지을 수 있고 지은 후 모든 것이 衛生的이고 文化的인 여자 家族들의 健康的인 增進의고 일의 能率이 오르고 生活費가 적게 들므로서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종래에 지은 住宅들은 建築費가 十萬圓以上 消費되며 겨울에 많은 燃料費를 消費하면서도 방과 부엌과 便所가 좁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부엌이 不便利고 便所가 더럽고 더운물이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목욕, 세수, 빨래를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感氣에 잘 걸리고 藥값을 支拂하게 됩니다.

特輯 民生主義의 生活管理

다사 말하면 종래의 住宅은 돈을 많이 들이고도 衛生的으로 經濟的으로 能率的으로 損害가 莫大합니다. 옛날부터 「집 짓고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 韓國式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純 韓國式은 模樣을 보는데 莫大한

衣裳管理



崔敬子

돈을 들입니다. 實用的 價値는 거의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改良 住宅은 집 짓고 반드시 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짓는데 돈 크게 들고 잘 살 수 있는 設備가 具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筆者: 公眼科病院長)

近間 우리의 생활전반에 걸쳐 개선과 개혁의 소리가 漸高되어 가고 있다. 過去에도 생활개선이 新生活운동이나 하여 여러번 이러한 문제가 「크로즈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결코 우리 귀에 생소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五·一六혁명후에 전개되고 있는 생활운동은 從來의 운동이 자못 일종의 口呼에 그치고만 폐비하여 이번것은 광우할만한 실천적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類를 말리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우리의 衣生活속에서 決然 除去해야 할 非合理的인 要素를 축출하고 合理的인 衣生活의 方向으로 一大 轉換을 하지 않으면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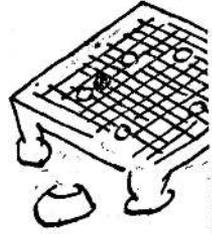
될 것이다. 예로부터 服裝은 그 나라의 민족성乃至 時代性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重要視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크게 注意하여야 할 것은 時局이 改善과 改進黨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衣裳에 缺함이 있는 것은 無條件고 처야 한다는 公式論은 回避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선은 어디까지나 절정에 한하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점은 계속 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상의 개선 내지 합리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색상과 민족성의 균형있는 배려라 할 것이다. 무조건 세계의 경향에 따른다거나 반대로 민족의 고유성을 고집하는 것은 어디로 보나 곤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국민의 일원인 동시에 세계의 일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옷을 가려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오는 거리에 양산을 걸칠 필요 없이 불건 시장

에 나타난다거나 網織으로 노동복을 만든다든가 하는 陳陳스카 하지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나 非 非再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비단 옷을 입고 입히는 것은 우리 특산물이다. 옷은 입을 장소를 가려 입음으로써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양장도 마찬가지다.

세째로 옷은 자연스럽게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데코레이션을 강조하면 시대는 지났다. 침플하고 간편한 것이 자연스러운 물론 세련미도 있는 것이다. 아무데나 세치(三寸)짜리 하이힐을 신고 다닌 다거나 모양을 낸다고 外出복으로 입을한다면 결국 옷을 꺼리밖에 될 것이 없는 것이다. 네째 경제적 활동적이어야 한다. 이는 생활개선 전반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지만 본수 이상의 성장을 해야 체면이 선다는 식의 사고 방식은 아예 금물이다. 우리 형편에 맞는 값싸고 활동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새로 제정된 신생활복은 새시대 생활복에 걸맞은 옷 즉 경제적이며 활동적이며 미기성고 또 시대적 감각을 가진 훌륭한 옷이라고 하겠다. 결국 양복, 학복을 막론하고 이상의 조건을 구비한 옷이라면 곧 재건생활에도 부합되는 옷이라 하고 믿는다. Simple is beauty 라는 말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衣생활의 方向을 잘 설명한 말이라 믿는다. (筆者: 崔敬子 洋裁學院院長)

娛樂管理

尹吉九



娛樂이라고 하면 自由奔放한 것
아무렇게나 웃고 즐기는 것으로 생
각하기 쉽다. 그러나 娛樂은 골레
벤티은 망아지와 같이 自由無限한 것
은 아니며 스즈 저커야 할 規範
이 있고 쌓아야 할 율타리가 있다.
趣味가 個人的이고 內向的인 性質
을 가진데 비해 娛樂은 集團的이고
外向的인 性質을 가졌는데 이러한
性質 때문에 娛樂은 그 율타리를 兩
束할 必要性이 증가된다. 뿐만 아
니라 娛樂은 재미있게 노는 것이니
재미는 娛樂의 生命이요 그 生命을
維持 保存하기 爲해서도 必要한 要
件을 具備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다.

人類 始初의 娛樂은 多分히 動的
이고 肉體的인 것이었다고 생각된
다. 사냥, 各種 競技, 춤 등은 그
들의 娛樂이 아니었을까? — 이
러한 傾向은 어린이들에게서도 찾
아볼 수 있다. 술마궤질, 딱지치
기, 말타기, 필박질 等 原始人의 娛
樂을 想像케 한다. 그러나 사람이
成長하고 文明이 發達함에 따라 娛
樂은 차츰 보다 靜의이며 頭腦的인

것으로 變遷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
다. 웃노리, 박동, 「트럼프」 등이
으로 말 수 있고 最近에는 漫談, 수
수께끼의 四子쯤 되는 퀴즈, 劇等이
盛況을 이루어 知的이고 推理的인 娛
樂에로의 흐름을 如實히 보여 준다.
娛樂은 分明히 하나의 方向으로 흐
르고 있으니 思索的이고 推理的인 方
向으로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小
集團의 娛樂에서 大衆娛樂으로 달리
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傳達力이 強
한 「패스·콜」의 發達에 起因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娛樂의 合理
化는 더욱 強調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패스·콜」을 通한 娛樂에 관
注目해보면 거기에는 세가지 類型이
있다. 하나는 文字, 圖形, 寫眞等을
手段으로 쓰는 雜誌, 新聞에 依한 娛
樂,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娛樂이
다. 둘째는 말, 音樂, 擬音等을 手段
으로 使用하는 放送에 依한 娛樂, 그
것은 귀로 듣는 娛樂이다. 끝으로
상두가지 手段을 合한 娛樂으로서 映
畫, 텔레비 등에 依한 것이 있다. 그
럼 여기서 娛樂의 合理化를 「패스·콜」
을 通한 娛樂을 中心삼아 얘기해 보
겠다.
合理化라는 말이 結局 目的과 手段
의 調和를 뜻할 때 合理化의 要件으
로서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一、健全한 娛樂性
娛樂은 보고 듣는 사람을 充分히 즐

藥이 되는 말

★湯武時代는 열었다 어떤 將軍이
天下를 平定했다. 그의 部下가 將軍
앞에 나아가
「장군님의 높은 신 德望이 天下에
빛나고 만백성들이 湯武時代를 만년
것 같이 여기나이다」
「음, 그럴까? 그러나 湯武時代에
는 너같이 아첨하는 部下는 없었을
걸……」
이말에 부하는 그만 몸을 움추렸
다. 장군은 다시 말을 이어

「이것만 해도 탕무시대 같기는 아
직 멀었다. 아첨하는 사람이 이나
라에 있는 동안은……」
★鄒麟의 清白 靑松府史 鄒麟과 領
議政 成希顔은 절친을 때부터 친한 사
이었다. 成希顔은 어떤 友情만 믿고
靑松府의 名廉인 골과 것을 좀 모래
라고 편지를 썼더니 곧 답장이 왔는
데 그 내용인즉 「것은 높은 산 꼭대
기에 있고 골은 백성을 짐 밑동안에
들어 있는 데 이 골은 원노릇하는
대가 어찌 얻느냐?」는 사연이었다.
이 답장을 받은 成希顔은 그만 무
안 해져서 사귀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게 해줘야 함은 勿論이지만 同時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밝고 아늑하게 해
줘야 한다. 슬기로운 「유모어」 豐富
한 「윗트」와 더불어 그 土臺에는 健
康하고 明朗한 즐거움이 흐르는 것임
을 요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日常生活에
도움을 주는 有益한 內容이 加味되었
다면 그것은 最上의 웃기는 데에 안重
點을 두는 나머지 웃고 나서 마음이
어두어지고 不快感을 隨伴하게 하거
나, 웃기는 커녕 노여움, 역겨움을 맛
보게 하는 일도 없지 않다. 個人的
됨담, 身體的인 欠陷, 또는 더럽고淫
亂한 內容은 娛樂을 破壞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또한 健全한 娛樂은 冒險의 快感을
內包하면서도 射倖心을 刺戟 助長하
지 않아야 한다. 巨額의 金錢이나 賞
品을 걸어 投機, 賭博으로 情落해 버
리는 일이 없도록 警戒해야 하겠다.
二、簡單한 形式과 알기 쉬운
「말」

娛樂의 形式은 되도록 簡單하고 한
두번 보고 들어서 「말」을 理解할 수
있어야 한다. 形式이 複雜하고 理解
하기 어려울 때 즐거움은 일어나지 않
는 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娛樂은 되
도록 簡單하거나 아니면 다른 既存形
式을 모방함이 좋다.

三、빠른 進行
빠른 進行이 라는 말은 보고 듣는 사
람들이 즐길 수 있는 限度 안에서 빠
른 進行을 말한다. 娛樂의 要素는 「유
모어」나 「윗트」뿐만 아니라 「스릴」과
「저스펜스」를 포함한다. 너무 느리고
脈박진 進行은 倦怠로운 것이다. 興
奮과 迫力을 維持할 수 있는 進行은
娛樂의 能率을 높이는 條件이 되는 것
이다.
只今까지 娛樂을 合理化하기 爲한
세가저 要件을 들이 왔다. 특히 娛樂
을 企劃하고 그 製作에 參與하는 분
들은 娛樂의 社會的, 道德的, 經濟的
限度를 固守해서 健全한 娛樂을 指向
하는 努力을 기울여 말아야 하겠다.
(筆者: 서울中央放送局長)

智 照 夫 人

—元 述의 어머니—

李 明 溫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무인(武人)이라 하면 위선 누구의 머리나 상기되는 것은 화랑(花郎)이라는 직책한 모습이다.

주백의(白衣) 민족이 대량의 병력과 수십만 대군을 모아 원정(遠征)과 토벌(討伐)과 대난(大亂)의 싸움을 한 것은 삼한(三韓)에서 신라 통일(新羅統一)에의 이르기까지가 전사(戰死)에 뚜렷한 기록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무사의 혼과 화랑도 화랑정신의 전통을 빛을 주에 기리기로 계속하여 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나라 후예들의 명장(銘將)이 될수 있는 충열의 영장이며 위인(偉人)의 영부(英夫)의 전기(傳記)도 그 시절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을 온갖 문헌(文獻)과 사기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당시의 명장으로 삼군을 통일한 김유신(金庾信) 장군과 더부러 그의 내조에 빛나는 지조부인(智照夫人)의 사표(節表)가 될수 있는 대표적 인물인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조부인은 신라 태종(太宗)왕의 셋째 딸이요 김유신 장군의 아내이다. 지조공주는 신라체의 꽃다운 여성으로 당대의 영웅인 유신노장 김유신의 아내가 된 것이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의 가약이란 들기만 하여도 불경한 일이지만 그의 면에는 다소의 정략(政略)도 있었을 것이요 유신이 장군으로 나라의 생명을 받쳐 충열을 다하였던 나머지 혼기를 잃은 탓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후 다섯 형제를 낳았고 그들의 둘째 아들이 역사상에 유명한 원술(元述)이다. 그때 신라는 통일천하를 이루기 위하여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에 선전포고(宣戰布告)를 하고 침략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다. 흉만이 북진에 다른 백제와 고구려는 당(唐)나라의 원병을 청하여 신라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신라는 여지없이 백제의 고배를 마시어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때의 비장(裨將)이 원술이다. 원술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을 달려 적진으로 달려가려 하였으나 그의 부하들은 형제의 불리함을 역설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라고 원술을 붙들고도 리없이 출진을 중지하고 후퇴하여 돌아와 아버지 유신 장군 앞의 머리를 조아려 사유(謝罪)를 아뢰었다. 그러나 유신은 내아들의 생활을 기뻐하기는 커녕 서릿발같은 노기를 머무르고 왕앞에 나와 「원술이 왕명을 이기고 가혹을 더럽혔사오니 이놈을 죽이시옵소서」 하고 스스로 장검을 빼어 원술을 죽이려는 것을 왕은 중지시킨 것이었다. 그리로 부터 원술은 수도를 떠나 산중으로 들어가 무예와 학술에 고달픔을 받치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었다. 그의 나이 겨우 십여세 소년 시절이다. 말하자면 그는 가장 천진하고 감수성이 빠른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가 타고 나온 뱀속에도 화랑의 혼이 뿌리깊이 스며 있었었다. 원술은 아버지의 죽임도 보지 못하였다. 서기(西紀)六七三년에 유신은 세상을 떠나고 미망인 지조부인이 애복속에서 세월을 보낼 때 원술은 부모의 의그리움을 참을 길 없었음료의 대괴를 뼈아프게 느낀 나머지 흉이 머리를 피오리고 항을 향하여 도라왔던 것이다. 천문의 피는 서로가 그 마음을 이끄렀을 것이요 홀더간 오랜 세월은 종의라도 사할 수 있었으면만 지조부인은 꿈결에도 잊을 수 없는 귀여운 내아들의 귀환을 병정하게도 맞이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자식 노릇을 못한 불효한 자식한 것이니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엄격한 구지(拘止)로 원술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애정은 의리(義理)는 것이 아니라 뼈아픈 것이요, 값싼 용서는 인간을 그로치게 만든다는 이문(異聞) 지상의 모성은 누누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의인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다. 나라를 위하고 남편과 자식을 애끼고 사랑하던 마음의 생명을 패해한친 때 그 정신의 쓰라림과 피로음과 고독의 인공을 알만한 보부이라고 생각하

는 신념은 실로 값비싼 주옥이나 다름이 없다.

원술은 눈물을 먹었고 다시 태백산(太白山)으로 들어가 수년이란 세월을 보내다가 당(唐)나라가 또다시 이십만의 대병을 인솔하고 신라에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야 선봉의 시기가 도달한 것을 깨달고 의용병을 이끄러 선두에서 대병을 막아내고 드디어 대공을 세우게 된 것이다.

마침내 나라를 위해 빛나는 공훈을 세우게된 원술은 당대의 장관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의 충(忠)은 화랑을 대표하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그는 부모에게 특정한 목인 것을 인식하고 끝내 피술을 받으며 피하지 않았다.

장영(長兄) 삼광(三光)의 제상의 직위와 오르고 장은 윤중(允中)이 장관이 되고 원술도 당나라 명장의 지위를 차지하여야 할 것을 그는 어머니의 피눈물나는 무지막의 영원의 피눈물에 사무쳐 최인의 불운을 달게 받고 만 것이었다.

조부인은 이렇게도 위대한 모성으로 나라를 위해 남편과 자식을 받친 원도 없었으니 그의 생애는 말할 수 없이 쓸쓸하였을 것이요. 여성으로서 원하는 가정애의 단란이나 인생의 행복은 꿈도 꾸어 보지 못하였을 것이나.

여성은 대개가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와 내조국 나와 남편 나와 자식 나와 내집 — 이렇게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하며 없이는 아니된다. 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사는 위안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무엇무엇.....을 위하여 피생을 할

다던가 복수를 받치는 경우가 실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소극적인 가정의 「속근」과 무지한 운명론에 의해 인 회생이요 온전한 신념과 병정현이 성아래 스스로가 파지하려는 사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빛을 남긴 武人

出將 入相

姜

太

師

자조부인은 그 생애가 기록한 사상이었고 애국의 혼이었다. 그가 유신장군 사후에 사벌을 하고 중이 되어 여생을 보냈다는 것도 역시 위대한 정신의 지조(志操)가 아닐 수 없다.

鄭 漢 淑

장간찬(姜邯贊)은 서기 948년 지금의 시흥(始興) 땅에서 출생했다. 고려 때는 그 중기까지 문무(文武) 두갈래가 명확하지 않았던 판제로 조정에 는 문신(文臣)으로서 무신(武臣)을 겸한 사람이 많았던 파 장간찬은 그중 가장 뛰어난 사관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유달리 인물이 못생긴데다가 또한 작았던 판제로 소라하고 후하기가 이를테 없었다. 우선 외모가 이리하니 어려서부터 이웃사람들이 은근히 손가락질 하게 되었고 또한 친구들간엔 놀림감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기도 했다.

세상은 언제나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공평치 못하고 또 불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공평한 법이었다. 장간찬의 경우도 그러했다. 외모는 이렇듯 보잘 것 없이 초라했지만 그 기개는 근게일락(群鷄) 一鶴格으로

자기를 놀려대는 친구들에 비하여 출중하게 몸무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비록 그 용모는 비웃어 넘긴다 해도 그의 재주는 누구나 선망의 정도가 지나쳐 시기할 정도이기도 했다. 타고난 자질에 면학(勉學)을 즐기는 성품은 그로하여금 후일의 탁월한 지략(智略)을 겸전(兼全)케 하였던 것이다.

그는 평소의 노력의 보람이 있어 처음 제육대 성종(第六代 成宗) 때에 갑과제일(甲科第一)에 뽑혀 문관(文官)으로 출사(出仕) 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장차 공을 세워 나라의 주석(柱石)이 되는 첫 걸음이었던 것이다.

고려조는 부방 오랑캐의 침략이 극심한 시대였기나와 제팔대 현종(顯宗) 6년에 골안(鞏安)의 40만 대군을 몰고 압록강중안(鴨綠江東岸) 지역을 침략해 왔던 것이다. 골안족은 만주 몽고일대에 살면 미

개족(未開族)의 무리로서 신라말기에 그 추장 아불아보기란 사람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국세가 자못 강대하여 쉽게 사리 말해를 없이려고 요나라를 세우고 있었다.

골안은 말해를 넘어뜨리고 의기가 자못 높은 터에 새로 이룩된 고려를 넘볼 생각이 일찌부터 있었던 것이다. 태조 25년, 골안 태종은 고려와의 교린계를 맺으려고 골안의 사자(使者) 30여명과 낙타 50필을 보내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고려 태조는 「골안은 버릇없는 나라로서 말해를 망하게 한 나라다」

라고 하여 사자 30여명을 잡아서 귀양을 보내고 낙타는 매어 놓은 채 망치해서 굶어 죽게 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관례로 태조 때부터 골안과의 관계는 평탄치 못했던 것이다.



말안은 의교정착의 실패하자 무력으로 고피를 받부시키려는 데서 일제성종 12년의도 태군을 물고침입해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일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의 침략이었다.

이때 고피에서 장조(廉兆)라는 사람이 삼십만 태군을 통솔하여 지금의 평북선천(平北宣川) 땅에서 막고싸워다 피하게 되었다. 일관 마하리던일이 좋아 저자 말안군의 행세는 마쳐투울 끊어놓기 문질과 같아서 수경(松京)을 향하여 일제히 진격해 왔다.

말안군은 수경의 자민장교 있던 조정(朝廷)이다. 조정을 보면 의교신하중의 퇴행하던 일제하자는 구실로 향부하기를 부하하였지만 장감찬은 홀로 이의 강경의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임금 앞의 자기 생각을 증언해 보았다.

「적의 진격으로 수경이 동진동화의 위기의 참살과 들었다 하우들이 저우리가 살기를 피하여 향부의 최우를 친후에 남길 수 있으니까, 잡시 적의 의문(疑)을 피하였다가 서서히 부하도 모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이때 수경의 장감찬만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었다. 한편 최후를 주장하던 장감찬도 다시 그것을 말하지 못하였다.

장감찬은 우선 왕을 살부하의 남행(南幸)할 것을 권했다. 말안은 그의 주장을 응게고 그 12월의순도(松都)를 떠나 나누(羅州) 땅으로 옮겼던 것이다.

행(幸行)을 따라 되던하게 되자, 무방비상태의 수경은 말안군의 침입으로 삼시간에 빼어나 다름없이 되고 말았다.

수경으로 침입한 적은은 방화와 약탈과 포학을 자행하였지만 장감찬의 수하인 양기(楊規)의 저항에 이겨나지 못하여 얼마 있지 않아 퇴각이 불려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난리가 자연 평정되자 남행하였던 왕은, 장감찬의 계안으로 나라의 최후를 면할 수 있었다 하되 그의 공을 위로하는 한편 그에게 서경유주 내사시랑(西京留守內侍侍郎)의 서북방면(西北方面)의 요직을 주어 말안의 대피하도록 했다.

최음의 문관으로 출사하였던 장감찬이 이렇게 해서 무신으로서의 길을 내디디게 되었다.

말안은 이따가 저나 아욕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압록강 동안(東唐)인 우리명(興化), 宣川, 龍川, 鐵山, 郭山, 龜城)을 요구해 왔다. 물론 우리가 그의 호락호락하게 응할 까닭은 없었다. 이것을 트집으로 말안은 다시 10만 태군으로 재침입을 도모하여 왔던 것이다.

이때 최음은 장감찬을 상원수(上元帥)로 삼고 이를 막게 했다. 왕명을 받은 장감찬은 군사를 모아 안주(安州)를 중심하여 주주(州)하고 기병(騎兵)만 이천을 불어 산골짜기에 때부(埋伏)하고 노는 한편 진저를 도외가구를 빼어서 상동방의 흐르누른 자를 막아 놓고 저를 기다리게 하였다.

총의살아 어떤 영애, 이제는 그 추후고 초라한 의모를 웃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담담하고 감지함에 탄복할 뿐이었다.

이때 고피를 침입하기에 익숙해진 말안군은 이러한 장감찬의 계략을 모르는 바라 밤의 어두움을 타서 진격해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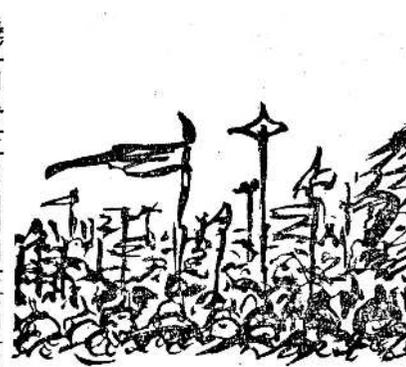
적병이 이르자 고자(鵲色)의 소리가 군호를 울려왔다. 이쪽에서는 기다리고만 있던 터라 막아 놓았던 큰 강의 일시에 터져 흐르게 되었다.

놀란 것은 적병이었다. 불의의 물방세를 받고 그들은 도부지 갈 마를 몰라 허둥지둥하여 행마의 손실은 삼시잔에 막대한 것이 있었다.

이때 물방세를 벗으나 도망하던 적병들이 숨물릴 사이도 없이 다시 군령을 내려 끌어구니에 매복시켰던 군사들 불려나니, 적은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안주지방 싸움에서 패퇴한 적은 장감찬의 계략을 이겨내지 못한것을 깨닫게 되자 회군(回軍)을 명사하여 병마(兵馬)의 길을 물렸던 것이다. 일단 회군하는 것이 보이고서 해안쪽으로 친수했던 말안군은 장감찬의 대군과 적진을 피하여 직접 수경을 향하여 침입하고 갔다.

이때 장감찬은 다시 병마판관(兵馬判官)을 시켜 배도(倍道)에 지키게 하느 한편 자신은 개천(价川) 영변(寧邊)으로



수경을 제칠할 수 없음을 깨달은 말안군은 장감찬의 계략대로 칠수치 않을 수 없게 되니, 회군할 때, 장감찬은 영변(寧邊)의 지향의 이름저파하는 한편 도망치는 대군을 귀주(龜州)까지 추격하여 목을 지키고 있었

다.

말안병의 대부분이 귀주(龜州)를 통과할 때 장감찬은 비바람을 무릅쓰고 군사를 돌려해서 크게 저을 무찌르고 다시 추격할 소용이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귀주일대의 물과 산은 적의 시계와 명기 군마의 잔해로 뒤덮여, 이름이 무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말안장을 넘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침입해 들어왔던 말안군은 이 귀주 싸움에서 수천 명을 헤아릴 정도의 생

환자를 보았을 뿐이니 심만대군이 모조리 장감찬의 것만 아래 무릎을 꿇고 갈부렸던 것이다.

해를 두고 고려의 육진을 소란케하던 갈안군의 침입은 결국 수많은 병장(兵仗)과 마마(馬駝)를 노획할 수 있는 대승을 고려에게 가져오게 했을 뿐이다.

다음해二月 장감찬이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개신(凱旋)할 때 현종은 친히 영파역(迎波驛)까지 나가 그를 영접했다.

장감찬은 장감찬을 맞은 행진엔 비단으로 단장되었고 배필이진 연석인 홍겨운 사죽(絳竹)의 소리가 꼬치질 않았다.

이때 장감찬은 삼군을 군형으로 지휘하는 한편 여전(御前)으로 나아가 군배(軍禮)로서 왕을 대하였다.

이때 왕은 이 개신장군의 머리에 금화팔지(金花八枝)를 꽂아주며 그의 노고를 위로했다.

「공이 시석(矢石)속에 무릎을 던지고 적을 물리쳐 나라의 치욕을 씻게 하였으니 그대의 이름은 후세에 길이 빛나리라!」

이때 장감찬은 개신장군 다음 오기 찬 빛도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아뢰었다.

은, 군졸의 한 사람의 이르기 까지도 오늘날 그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현종의 그대 대한 위로는 그것으로 꼬치질 않았다. 왕은 잔가득 술을 부어 왼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그에게 권하였다.

장감찬도 왕의 이러한 감적된 위로엔 끝내 고개를 숙여 감투(感淚)를 감추지 못하였다.

영파역에서 배필이진 잔치에선 위로는 국왕(國王)으로 부터 군졸에 이르기까지 술과 고기로 배를 리며 이르렀다. 은 음들의 해저는 울도 모르고 지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무렵 왕은 오늘날의 개신을 영현히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영파라고 불리우던 역명(驛名)을 홍의(興義)라고 이름을 고치게 했다. 그리고 그대의 충사하는 미관(微官)인 여민(驛吏)까지에도 특전(特典)을 내리게 하여 대우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이렇듯 나라와 조정을 지키기 위하여 여전진(戰艦)을 물러다니며 수십만의 갈안군을 막아내고 추격하던 장감찬도 인생의 하늘을 막을 길이 없었다.

어느날 일사한 그는 표(表)를 올려 칭을 드렸다.

몸과 마음이 이미 늙었으니 벼슬차리를 후진에게 물려주고 하야할 것을 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왕은 이를 은위하지 않고,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지방을 내리게 하는 한편 삼일일조(三日一朝)를 명하기 에 이르렀다. 삼일일조란 사후에 한번씩 조정에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일도 왕의 일이나 장감찬을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다.

藥이 되는 말

★ 大院君과 心服

大院君이平生에 가장 총애하고 신임했던 한 心服의 일단 大院君이 失脚하자 자취를 파갈추어 버리고 말았다. 대원군은 분하고 배설하기 짝이 없었어 「이놈 어니 보자!」고 빌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원군이 다시 得勢를 하게 되자 그 심복이 홀연히 대원군을 찾아왔다. 대원군은 속으로 저놈을 무슨 죄로 물러지게 해서 주먹 버티기로 작정하였다.

「이놈! 때이제서 또 나를 찾아오는 거냐?」
「그런 점이 모시려고 왔습니다.」
「모시다니! 이놈너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배에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오니까?」

하고 그사람은 잠잠 해서는 시늬를 했다.

「그대 이놈 너 그동안에 나를 한번이나 찾아 온 일이 있느냐?」
「아! 그말씀이 오니까? 그때는 대감께서 市場을 보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찾아 피움치 않았던 것이요 지금은 대감께서 또 시장 보시게 하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찾아 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다 장군이옵시다. 장군은 어느 때나 항상 장을 보는 데만 찾아 다니는 것이옵시다. 만일 저 지금이라도 대감께서 시장을 전어치 버리신다면 저는 또 보자기를 싸들고 시장 보는 것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옵시다.」

이것은 바로 대원군에게 朝野의 人心을 暗示한 指針이 되었다. 대원군은 크게 감탄하고 그를 다시 더 가까운 심복으로 삼았다고 한다.

었다. 항상 산업의 마음을 쓰는 한편 또 나라에서 밭은 파 이는 토지를 다 시 나라에 바쳐 이를 군호(軍戶)에 배급하여 승경의 땅이든 물은 군방의 땅이든 군위(軍威)를 빛나게 하였다.

조정을 물러난 후엔 신남(城南) 조그만 별당으로 돌아가 야학(野鶴)을 벗하는 한편 저술에도 뜻을 두었다. 낙도요기집(樂道郊居集)과 구신집(求善集)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지만 오늘날의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애석한 일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가르켜 강배사(姜太師)라 부른은 그가 나아가서는 용맹한 장군이요 물러와서는 술기로 운 재상 즉 출장임상(出將入相)으로서 오직 봉공정신(奉公精神)으로 명성을 보였던 까닭이다.

(筆者) 高麗大學 助教授

미사일의 歷史 ⑤

— ICBM의 威力 —

ICBM이 液體로켓에서 固體로켓 中心으로 移行하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되어 있다.

ICBM이라는 武器의 가장 큰 特徵은 八,〇〇〇키로미터를 비행하는 데 불과 二〇~三〇분 밖에 안 걸리는 것인데 만약 發射準備에 오랜 시간을 잡아 먹는다 고 하면 前述한 바와 같은 高速이라는 長點도 그다지 뜻이 없 어진다.

現在 그린랜드와 아라스카에 建設되고 또한 스코틀랜드에도 豫定되고 있는 BMEWS(彈道미사일早期警報網)이라는 警報組織이 敵國의 發射한 ICBM 飛來를 캐취 한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我方의 目標地點 上空까지는 約十五分の 여유밖에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ICBM의 精密度는 一發로서 相對國의 ICBM 地下發射基地를 완전히 파괴시킬 만큼 向上 되었기 때문에 BMEWS가 探知하고서 十五分以內에 我方基地에서 ICBM이 發射되지 않는다면 發射도 해보지 못하고 ICBM基地가 무참

하게 파괴되어 버릴지 모를 일이다.

液體로켓의 ICBM일 경우에는 十五分以內에 발사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液體酸素를 그때서부터 집어 넣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가지고는 困難하기 때문에 三基一組의 ICBM 가운데 一基만은 언제나 發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三基를輪番制로 정비해 가는 것이 계획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固體로켓 ICBM의 요구가 이런데서 출발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液體로켓의 長點은 첫째로 燃焼의 制御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燃焼를 長時間 할 수 있다는 것이며 再始動도 可能하다. 그러나 致命的 缺陷은 整備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며 構造나 取扱에 있어서 複雜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固體 로켓은 그와 反對다. 取扱은 간단하고 整備하는 데도 그렇게 손이 가지 않으나 燃焼 制御를 할 수 없기 때문에 正確한 發射가 困難하다. 固體로켓은 그날의 溫度나

濕度로 燃焼速度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서서히 이같은 缺點이 克服되어 正確한 初速을 얻는 방법도 考안되었고 長時間 燃焼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技術은 循環한다

初期의 로켓은 거의 모두가 固體로켓이었다. 卽中國의 火箭부터 그러 하였다. 그러던 것이 고다이드 라던가 최근에는 폰·부라운이 液體로켓의 實用의 길을 開拓하였다. 특히 V2號는 長距離(當時의) 彈道미사일을 液體로켓으로 실현한 點으로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그때까지는 疑問視되어 왔던 液體로켓의 實用性을 이것으로 實證한 것이다.

그 당시부터 第二次 世界大戰後 十五年頃까지 상당히 長期間에 걸쳐 液體로켓 萬能時代가 찾아 왔다. 長距離미사일에는 液體로켓만이 쓰여진다 고 오래 동안 생각되어 왔던 것이던데 이것이 다시 逆轉하여 固體로켓를 다시 보게 될 시대가 찾아 왔다.

이리하여 續續 固體로켓의 戰略彈道미사일이 생겨나게 되자 아무래도 固體로켓이 兵器로서는 本格的인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 持論은果然의 中한 것으로서 固體로켓가 덩치도 작고 값도 싸게며 여러 예를 들면 ICBM 미니트맨은 아 트라스에 比해서 十分의 가격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液體로켓은 固體로켓로 바꾸면 交替되게 되었다. 예컨대 近距離 彈道誘導彈 코브린은 固

體로켓트인 제트기로 交替되었다. 中距離彈道彈 레드-스톤은 거의 射程의 固體로켓트인 퍼-싱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ICBM에서는 液體로켓트인 쏘아나 유비타는 液體 生産이 中止되었으나 固體로켓트인 폴라리스만을 生産하고 있다. ICBM에 있어서도 아틀라스나 타이탄 보다는 미니트맨 쪽에 기대가 커서 케네디大統領의 今年 國防豫算特別敎書에서도 타이탄二個大隊을 줄이고 그 대신 미니트맨의 數를 약간 增加시키고 또한 폴라리스 潛水艦을 二十三隻으로 增加시킬 것 을 要求하고 있다. 一隻의 潛水艦에 는 十六發의 폴라리스가 불기 때문에 폴라리스만도 四六四發이나 갖추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아틀라스와 타이탄은 合計 二五〇發程度, 미니트맨은 合計 七〇〇發가량 生産計劃이 있어서 今後 固體로켓트의 比率는 壓倒的으로 增大할 것이다.

現在에 있어서는 固體로켓트는 液體로켓트만큼 燃燒時間을 길게 끌 수 없기 때문에 ICBM이나 ICBM 이나 固體로켓트쪽이 多段式으로 되어 있다. 유비타나 쏘아는 一段에 비해서 폴라리스는 二段이며 아틀라스가 一段, 타이탄이 二段로켓트이며 비해서 미니트맨은 三段로켓트이다.

元來 兵器로서 ICBM을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가 正確한 照準으로 發射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大量 無差別하게 敵國 上空에서 爆發하는 彈의 効果가 클지 모른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正確性을 確保한 후에는 固體로켓트쪽이 편리하다는 것은 당연한

한 理論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로켓트가 全部 固體로켓트로 移行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液體로켓트에는 液體로켓트로써의 좋은 點이 있다. 例컨대 金星로켓트와 같이 正確性의 最大限으로 요구될 경우에는 液體로켓트가 훨씬 有利하다.

그리고 液體로켓트에 있어서는 貯藏可能(Storable)한 燃料을 開發하고 있다. 현재로 보아서 比推力에 있어서는 液體로켓트쪽이 발전할 것이 다고 期待되는 것도 液體로켓트의 有利한 點이다. 로켓트 안에 貯藏可能한 燃料이란 取扱도 간단해지고 整備이 도 번거롭지 않을 것이니 液體로켓트의 缺點이 相當히 緩和된 것이다.

技術은 循環하면서 發展하는 것이다. 固體로켓트 爲主로 移行되는 現在의 方向을 認定하더라도 이러한 傾向이 將來에 있어서도 變함 없는 方向이라고 速斷할 수는 없다고 보겠다.

原水爆의 威力

前述한 바와 같은 數字로 長距離戰略彈道미사일의 數를 合計한다면 美國은 一九六五年頃에 約一,四〇〇發이 갖추어질 것이니 이런點에서 볼 때 美國이 소련보다 優勢함을 立證할 수 있다.

한때의 輿論이었던 「미사일, 쟁」 論爭은 一九五七年 十月 四日 소련이 처음으로 人工衛星을 發射한 이래 美國議會를 떠돌아서 하게 만듦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美國의 擔當자들이 미

俗談春秋

孤客子



世上에는 너무나 없는 거짓말은 없다고 해서

13. 아나뎌 글뚝에 煙氣 날까

하는 俗談이 있더라는 共產主義가 생겨나고부터는 이 俗談도 어찌면 生命을 잃은 것 같다. 六·二五動亂은 北傀가 計劃의이고 또 露骨의으로 韓國을 夜襲하다시피 侵攻했음에도 大韓民國이 먼저三八線을 밀고 北上했다고 떠들어댔다. 共產世界에서는 이쯤되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은 茶飯事이지만 嚴然한 史實도 모두 제멋대로 뜯어고 치기 일수이다. 共產主義者들에게는 아니 편 굴뚝에 煙氣가 나는 것이 當然한 노릇인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歷史를 創造하는 것이 아니고 僞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伯

林을 위시해서 요즘 世界的 到處에서 는 共產主義者들이 세운 굴뚝에서 夫 아나나 燃料없는 煙氣로서 世相이 자못 騷亂스럽다. 方今 우리가 展開하고 있는 反共運動이란 다름아닌 이때 지않고 煙氣를 뿜는 굴뚝을 粉碎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運動은 꾸준하고 끈덕져야겠다. 그들의 赤化工作은 어지간히 끈덕져서 그들은 平和共存이라는 새로운 굴뚝을 세워서 나팔을 불어대지만 實은 平和를 認定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究極의 野望인 世界赤化가 이루어질 때까지 戰爭 狀態라고 自身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立證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反共 運動도 그들이 이 地球上에서 자취를 감출 때까지 꾸준하게, 그들以上으로 끈덕져야겠다. 어느 편이 더 꾸준하고 끈덕져야 하는 싸움이다. 우리 俗談에

14. 열번 짚어 안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는 말을 따라 우리는 그들이 넘어갈 때까지 反共運動을 멈춰서는 아니 되겠다. 學問의 사람들이 어떤 目的을

어 있는 放射性 物質 때문에 壽命이 줄어드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큰 것으로 豫想되나 어떻게 致命的으로 큰 被害가 全世界에는 四,〇〇〇〇메가톤으로 美國은 二,六三發인 一,四〇〇메가톤이라는 水爆攻擊으로 齋來될 수 있다.

그런데 前述한 長距離 戰略彈道의 射程의 數는 一,四〇〇發이니 이것은 二六三發의 五倍 以上이다. 그렇다던 地球의 規模에서 생각 하는 限이 十二分의 量이 準備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有限抑制戰略理論이라는 것이 있어서 戰爭의 抑制力으로서 어느정도 數量的 長距離 戰略미사일을 준비하면 될 것인가는 理論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주로 敵國의 ICBM같은 發射基地를 全部 파괴하자면 어느정도 數量的 戰略미사일이 필요한가를 考慮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데人類가 모두 滅亡한 다음에 ICBM의 地上發射基地만이 남는다는 狀態는 그야말로 無意味한 것이기 때문에 人類의 生存과 滅亡을 基礎로 해서 判斷하는 것이 實際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미사일은 數量上으로도 充分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련이 미사일을 얼마나 保有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數量的 差異는 문제가 되지 않는 段階에 이르렀다.

노벨賞을 탄 美國의 化學者 라이나스·포어링은 지난 四月 十五日 스탠포드大學 公開討論會 席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美國은 現在 十二萬五千發의 原水

爆을 保有하고 있다. 이 중에는 TNT의 通常 火藥約 六萬萬에 相當하는 적은 것에서부터 二〇메가톤(二,〇〇〇만톤)까지 그 이상 巨大한 것까지 여러가지가 있다. 이것은 소련 전체를 焦土化する 데 필요한 量의 十六倍에 該當한다. 소련의 保有量은 이것의 約 半 정도라고 보는데 미국을 파괴하는 데는 充分한 量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은 恐怖의 均衡을 終熄시키고 全世界를 絶滅에서 救하는 唯一의 道는 軍備全廢 以外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포어링博士는 公開資料에 基礎를 둔 推定이라고 하면서 이같은 數字를 列擧하였다.

原爆은 一九四五年에 美國이 最初로 實現하였다. 소련은 그로부터 四年 늦게 實現하였다. 水爆에 있어서 소련이 앞섰다고 하나 오늘날 포어링博士의 推定과 같이 아마도 미국의 原水爆 保有量이 소련의 二倍以上임을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二倍以上이라는 것이 意味가 없는 數字이다. 왜냐하면 소련을 十六回나 焦土化할 수 있는 量을 미국이 保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即 다시 말해서 原水爆도 이 以上은 몇개를 더 만들어도 無意味한 것이라는 限度가 있다. 地球의 크기는 一定하기 때문에 地球의 全表面을 人類가 살 수 없을 정도로 汚染시키는 데는 어느 數量的 原水爆으로도 足한 것이다. 그 限度를 相當히 超過한 量을 오늘날 美國은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

原水爆을 運搬하는 手段으로서의 미사일에도 必要量에 一定한 限界가 있다. 앞에서 여러가지로 例示한 數字

權力과 勢道の 攝理를 狐假虎勢하는 爲人들에게는 알 길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18. 半風水 집안 말짱다

俗談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모르면 아주 모르는 원이 훨씬 낫다. 옮겨 모르면 着일수록 自身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을 가르쳐 半風水라는 뜻인데 정말 半風水族은 處置에 困難한 爲人들이다. 왜냐하면 自己自身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風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 사회에는 이 같은 半風水爲인들이 世上을 右之左之했기 때문에 집안 亡기가 姑捨하고 五十年이 어은 나라를 亡절반 했던 것이다. 그러나 名風水란 그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名山勝地는 가는 곳 마다 있지마는 이를 發見하는 名風水가 드문 것이오 대개는 半風水들이 여기저기 名山의 名門家들이 基地를 이리저리 移葬하여 亡人을 辱보이고 家財마저 蕩盡하는 것이다. 그러나 「識者愛惠」은 半風水의 四寸格인 것 같다. 실익은 知識이 憂惠이오 智識은 藥이 된다.

五,一六革命 直前의 우리 社會가 南北 協商이니에 中이나 하야 매우 어지러웠던 것은 이미 대한을 바린 知識이 없었고 半風水들이 날뛰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半風水일수록 모두가 제 잘난 양 날린다. 이 社會에서는 統一된 意見이란 있을 수 없다. 衆口難防이다. 混亂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에서 半風水는 民主主義의 敵이다. 모두가 自己意見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모두가 제 잘난 것으로

단 살고자 하는 社會에는 民主主義가 害를 素地가 없다. 제마다 가장 뛰어난 領導者를 自處하고 배(船)들이 끌어갈 沙工으로 생각한다.

19. 沙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 간다

는 우리의 俗談은 民主主義의 좋은 警告인 것 같다. 民主主義는 많은 船客들이 自己들을 실어다 줄 가장 뛰어난 沙工을 多數의 意見으로서 選出하는 것이 라면 沙工이 몇사람이 있어서 그 沙工끼리 제멋대로 놀아서 배를 산으로 끌어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소聯이 유엔이라는 馬車에 三頭馬를 달아서 길아닌 가시밭으로 몰아 넣자는 수작과 다를 바 없다.

올바른 民主主義는 올바른 沙工의 發見을 可能케 하는 것이오 發見된 沙工은 船客이 願하는 方向으로 櫓를 쳐어 주는 것이다. 생각하면 自由黨의 噴沙工들은 우리의 險惡한 波濤속으로 이끌어 갔고 民主黨의 噴沙工들은 危險한 濶布속으로 이끌어 갔다 할 수 있으니 모두가 半風水格인 噴沙工이었다고나 할까.

民主主義에서 저만 잘난 체 하는 것은 禁物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協同精神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民主主義라는 家屋는 協同精神이라는 주춧돌 위에서만 기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20. 白紙帳도 맞들어야 한다

는 協同精神 없이는 세울 수 없는 집이다. 民主主義라는 살기 좋은 建물이

에서 볼 때 一九六五年까지는 그 限界의 數字는 거의 達成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ICBM 對抗武器

前述한 바와 같은 點에서 美蘇의 宇宙開發競爭이라는 것이 미사일競爭에 뒤이은 今曰의 문제로 되어 온 것인데 宇宙開發競爭에 關해서는 次號에서 宇宙로 하고 ICBM 對抗武器에 關해서 조금 言及하고자 한다.

ICBM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整備된다면 ICBM에 對抗할 兵器에 對한 要求가 戰略家들 사이에 자연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歷史를 볼 때 對抗兵器 혹은 對抗手段이 생겨나지 않았고 對抗兵器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러한 對抗兵器의 첫번째 것으로 登場한 것이 A·ICBM의 나이키·즈-1이었다. 미국 육군이 담당해서 開發을 促進시키고 있는 나이키·즈-1은 一九五七년에 소련의 ICBM을 完成하였을 때쯤부터 시작되어 처음에는 陸軍과 空軍이 競爭의 으로 A·ICBM을 計劃하고 있었으나 陸軍만이 미사일 本體를 試作하는 것으로서 計劃이 一元化되었다.

여기서 같은 나이키라고 하나라도 나이키·એ제스나 나이키·리쿠리스와는 아주 틀린다. 나이키·즈-1은 一九五九年十二月十六日 화이트·센스 試驗場에서 最初의 試射에 成功하였다. 그 후 또다시 四發을 試射한後 가장 實用型이 一九六〇年 四月 二十

八日에 發射되었다. 陸軍擔當者의 說明에 依하면 나이키·즈-1의 發射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고 한다.

「接近해 오는 ICBM이 레이더에 探知된지 二·三秒 以內에 나이키·즈-1은 中隊는 自動的 配置에서 미사일이 發射된다. 發射地點의 레이더는 相對方의 ICBM이 視界內에 들어오면 그것을 追跡하기 시작한다. 中隊의 計算機는 레이더 組織을 通해서 그 行路를 完全히 追跡하고 自動的으로 나이키·즈-1을 그 것이 날아오는 地點으로 誘導한다. 그리고 最後의 瞬間 발사대가 당겨져 侵入해 오는 彈頭가 破壞된다. 이 侵入하는 미사일을 捕捉해서 破壞하기까지 二〇分안 에 行해진다. 이 組織의 가장 커다란 特徵은 그 信賴性에 있다. 나이키·즈-1은 完全 自動으로 作動한다.

그래서 機械의 缺陷은 除去되고 人間의 反應時間의 遲延이라던가 疲勞 같은 弱點도 除去되는 것이다.」

그러나 擔當者들의 이와 같은 自信 있는 發言에도 不拘하고 나이키·즈-1의 實用性은 아직도 疑問視되고 있다. 音速의 數倍나 혹은 十倍의 빠른 速度로 降下하는 高速의 ICBM을 나이키·즈-1스가 果然 잘 捕捉해서 破壞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며 ICBM과 나이키·즈-1스가 空中에서 正面衝突할 만큼 正確하게 誘導하지 못하고는 于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ICBM 近處에서 나이키·즈-1스를 폭발시켜 相對方의 ICBM 彈頭를 無力化하는 方法 以外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可能性에 關해서 一九五八

다. 民主主義란 「다른意見」이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오 唯我獨尊은 共產主義의 주춧돌이오 기둥이다. 맑스나 레닌은 共產主義世界에 存在하는 唯我獨尊의 敎主이지만 民主主義世界에는 그러한 敎主의 絕對權者란 없 는 것이다.

21. 獨佛將軍의 없다

이 協同精神을 아이로닉하게 表現한 우리 俗談으로

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俗談은 「草紙帳도 마주 들어야 한다」는 俗談의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상에 온갖 자힘으로 해내었다고 생각되는 일도 다시 생각해보면 결코 혼자서의 힘이나고 몇 사람의 協同이나 表面에 나타나지 않는 몇 사람의 協力者를 發見할 수 있다. 정말 아무리 뛰어난 勇氣와 뛰어난 智略을 가진 將軍이라 할 자라도 單身, 혼자서는 戰爭을 치룰 수는 없는 것이다. 普佛戰爭의 저 뛰어난 軍略家 木呂將軍의 戰略의 中心이 언제나 各軍團, 各部隊의 協同作戰을 엮었게 차내는데 있었다는 史實은 當時의 宰相이었던 비스발크의 回顧記 속에 特히 指摘되어 있다. 古代戰이나 現代戰에나 이 原理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닐까.

民主政治도 하나의 協同政治라 할 수 있다. 國民에 依해서 國民을 위한 國民의 政治라는 民主政治의 原理에는 國民과 政府가 一心同體가 된다 는 協同精神의 基本의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國民의 協同없이 民主的 政府는 存立할 수 없다. 民意의 所在을 無視하는 政府는 民主國家에

서는 瓦解되고 만다. 이것은 우리의 四·一九나 五·一六이 立證하고 있다. 그와 같은 惡政이나 無能政治가 될 수 없다는 것은

22. 꼬리가 길면 밟힌다

는 우리 俗談이 가르치고 있다. 自由黨의 獨裁五리도 너무 길어서 끝내는 四·一九에서 밟혔고 民主黨의 無能政治도 길어서 五·一六에 밟혔다. 이것은 個人生活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쁜 꼬리는 길기가 쉽고 길다 보니 밟히기가 쉽다. 나쁜 버릇은 길기 전에 병을 잘라내는 勇氣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民族性 가운데도 길다란 꼬리들이 많다. 政治에 있어서 宗派意識, 派爭分裂주의의 꼬리는 그동안 壬辰倭亂으로 倭寇들에게 밟히고 마침내는 倭寇들에게 나라를 먹히기까지도 했었는데 四·一九 후 民主黨이 政權을 잡자 그들의 꼬리가 다시 꼬리를 흔들어서 하마트면 나라를 또 다시 共產主義者들에게 먹힐 뻔했다. 우리가 방금 소리높이 웨치는 國民革命 新生活運動이란 다음아닌 이따위 나쁜 꼬리를 잘라 떼개치자는 것이다. 李朝의 黨派싸움은 정말 自身을 亡렸을 뿐만 아니라 子孫을까지도 亡렸던 것이다. 우리 俗談에

23. 못되면 祖上 탓 잘되면 내 탓

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러한 탓 잡는 나쁜 버릇의 꼬리도 이 此際에 병을 切斷手術을 할 일이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 韓國사람들은 내남 할 것 없

年七月三十一日과 八月十一日에 太平洋上에 있는 존스톤島에서 高度六〇키로미터와 七〇키로미터에서 遊擊水爆彈頭의 効果에 關해서 二發의 實驗이 있었으며 이어서 八月下旬부터 九月上旬에 걸쳐 南大西洋上空 四八〇키로미터에서 아스가實験이라 불리우는 三次의 실험이 있었다.

遊擊水爆彈頭에서 생기는 中性子가 相對方의 水爆彈頭 안에서 어느 정도의 核反應을 일으키게 해서 그것에 의한 溫度上昇으로 起爆의 메카니즘을 破壞해 버리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경우에 가령 토키로톤의 原爆彈頭를 나이키-지스에 달았다고 하면 五〇〇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더라도 상대방의 ICBM 내부를 二〇〇度~二〇〇〇度까지 溫度를 上昇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起爆의 機構를 破壞시킬 可能性은 充分히 存在하는 것이 된다.

아무래도 ICBM에 對抗하는 方式 하나와 方法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相對方의 ICBM彈頭의 起爆機 構를 破壞해서 無力化하는 데 있는 것

★藥이 되는 말

★머리털과 人口

蒙古는 우리 高麗의 國力을 안려고 애썼다. 이 때 우리 李祿用 使臣이 蒙古에 갔을 때다
「高麗의 戶數와 人口가 얼마나 되오?」
하고 蒙古의 使臣이 물었다.
「당신의 使臣이라면서 어찌 자기나라의 인구를 묻는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李祿用 使臣은 기가 막

잡다. 여기서 果然 나이키-지스가 그것에 適當한 兵器인지 아닌지는 疑問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디펜더-1計劃이라는 名稱 밑에 ICBM防禦의 各種 可能性을 查는 廣範한 研究를 시작하고 있다. 디펜더-1計劃은 베이다, 沮止, 讖別같은 七個部門으로 나누어져 있어 殺人光線式 考案이라던가 彈頭가 通過할 수 없을만한 巨大한 磁氣의 遮蔽막던가, 進入하는 ICBM의 進路를 바꾸는 反重力式 같은 奇과도 같은 研究計劃에까지 들어가 있다. 케네디大統領은 國防豫算 特別敎書에서 이 디펜더-1計劃 促進도 要請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防禦兵器는 攻擊用 ICBM보다도 尤大한 豫算이 所要됨을 看過해서는 안되겠다. 나이키-지스計劃에도 各地에 配備하기爲해서 는 앞으로 數年間에 六〇億弗이나 費用이 든다고 한다. 디펜더-1計劃에 있어서도 實驗室的 基礎研究 段階에서 二億弗 이상 이미 支出되고 있다. 이것이 實用化되었다 하더라도 費用에 있어서 國民의 負擔이 클 것은 사실이다. < 계속 >

한다는 뜻이 옳고 는 蒙古 使臣의 머리를 가르키면서
「허어! 허어! 당신의 머리털이 몇 달이나 되었소?」
하고 逆襲을 했다.
「당신 그것을 어떻게 다 세나요?」
蒙古 使臣은 약간 무안스러운 듯이 웃었다.
「당신 머리털수도 잘 모르시는 분이 하물며 남의 나라의 人口數를 어떻게 몰소?」

이 말되면 그 功을 獨차지 할려는 反面에 못되면 그 責任을 남에게 뒤집어 써 버리는 나쁜 習性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일찍 보면 現實에 나타난 잘못된 原因을 祖上에 탓장기를 좋아하지 마는 알고 보면 祖上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할아버지가 곧 우리의 祖上이오 우리自身도 이미 우리子孫의 祖上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自身의 自我批判을 모르고 祖上을 탓한다면 그야말로

24, 누어서 침범기

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無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기 좋게 꼬집은 듯 있는 까닭이다. 자신이 할 일을 다 못 한 사람이 祖上에게 탓장기를 잘하고 無知하고 어리석은 자가 집안 사람의 息을 第三者에 이리저리 퍼려나 퍼뜨린다. 政府를 잘 모르고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돌아 앉아서 政府를 욕질하거나 民族의 나쁜 점을 꼬집기 전에 政府의 잘못을 忠告하고 民族의 나쁜 習性을 是正하는 데 自發的으로 行動한다. 방금 展開되고 있는 再建運動도 결국 이러한 「民主的人格」을 養成하는 運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25, 하기 좋은 남의 말 하기 싫음의 원바라지

라는 俗談은 民主社會에서는 禁物이다. 남의 일에 關與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일에 忠實할 것이오 자신의 일에는 끝까지 자신이 責任지는 것이 民主主義 社會生活이다.

머를 때는 남보다 앞장 서고 되고 난 뒤의 바라지는 '내 물라' 하고 풍문이를 때는 사람은 적어도 民主主義 社會에 生活할 資格은 없다. 俗談이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 民族을 單位로 그 民族의 오랜 生活속에서 울어낸 表現이요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우리의 俗談을 十分吟味할 價値가 있다고 본다. 이 俗談만 하더라도 실상 우리는 利害關係없이 空然히 남의 말, 그것도 남 흉들기를 좋아하며

26, 제 잘못은懸板에 었는다

는 식으로 자기 批判이나 자기反省에 는 極히 愚鈍한 면이 없지 않다. 나의 잘못만을 재빨리 懸板에 었을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懸板에 었기 위하여 서들우기 전에 남의 잘못을 슬져 懸板에 었어 주는 雅量과 度量이 그렇다. 이같은 雅量없이 民主主義 社會는 成長하지 않는다. 大器는 一見 愚者와 같하다. 孟子的 말씀은 圓滿한 人格은 결코 남의 弱點을 꼬집어 내지 않는다는 것이며 알고도 아는 체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실로 두려워 할 人物인 것이다. 울게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似而非族은 이와 같은 大器를 알아보는 具眼之才가 아니므로 「약바는 교양이 밝은 어둠다」라는 속담이 생겨난다. 우리는 제 잘못을 發見했을 때 그것을 懸板에 었으려 들지 말고 다시 되새겨 보자. 反省하는 속에서 人間은 의는다.

軍人이 義務까지 生活型

金宗文

머릿말

요즘에 와서 生活改革에 관한 여러가지 施策이 行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과거의 우리 생활은 원가 비정상적이며 비합법적인 요소와 형식을 지수해 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 생활에 있어서나 집단적 생활에 있어서 과연 정상적이었으며 합법적이었을까. 또한 우리 생활은 진실적이었으며, 희망의 座標를 향하는 생활이었을까.

요즘에 와서 우리 생활의 요소와 형식이 재검토되어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의 생활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좋은 계기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생활방법이 다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에서 얘기하려는 다음 인공까지의 생활형은 본질적으로 보아서 그런 생활방법과 공통되리라 생각된다.

인공까지의 생활형이라는 것은
 一, 思考하는 生活型 二, 行動하는 生活型 三, 健康한 生活型 四, 儉素한 生活型 五, 時間을 使用하는 生活型 六, 協同하는 生活型 七, 創意하는 生活型

生活型이다.

이와 같은 生活型은 거의 상식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상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오히려 진전된 상식을 그대로 그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느껴 왔다. 이에 인공까지의 生活型을 틀어잡으므로 저자의 참고에 보탬이 되면 다행이다.

一, 思考하는 生活型

사람의 생활 구조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思考와 行動 두가지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思考에만 치우치는

남자의 行動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버리며 그 반대로 그 사람이 行動에만 치우치는 남자의 思考를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 버릴까.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思考와 行動의 균형이 잡히고 아니 잡히고가 그 생활의 진전과 불진전중의 하나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思考에 있어서 먼저 생각되는 것은 讀書과 思索이다. 讀書에 있어서는 그

분야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하나를 專門의 書籍이요, 또 하나는 敎養의 書籍이다. 專門의 書籍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공에 필요한 書籍으로서 균일하게 있어서는 「대뉴얼」이 되어야 세분하면 법과법 專門書籍을 가르킨다. 敎養의 書籍이라는 것은 專門의 書籍 이외에 취미 수양 예술 문화에 관한 書籍 또는 雜誌로서 자기 개인의 인격도야 또는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 書籍을 가르킨다.

그러나 저속하고 통속적인 부류에 속하는 書籍 雜誌는 엄격한 의미의 敎養의 書籍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讀書에는 반드시 思索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讀書을 하는 경우에 흔히 그 書籍에 의존하는 思考方式 즉 그 書籍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思考케 하는 讀書法은 환영할 수 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讀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하며 이를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 讀書의 의의가 있으며 思索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計劃 역시 思考에 속할 것이다. 하

두의 計劃은 마침내 세운다. 한해의 計劃은 실년에 세운다는 말과 같이 이 런 思考는 그 行動에 앞서야 한다. 讀書도 思索도 計劃도 말로는 하기 쉽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다. 주문신의 지력 파노믹을 기우리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思考가 제겨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다 思考하는 생활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二, 行動하는 生活型

思考 다음에는 行動이 있다. 이 말은 思考 없는 行動은 있을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 구조물도 마찬가지이다. 사실해결 것이다. 사람이게는 두뇌가 있고 팔다리가 있다. 두뇌는 思考하는 기관이오 팔다리는 行動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두뇌와 팔다리는 제각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됨이 이루어진다.

思考에 의해서 行動된다고 할 때 行動은 思考로 환원되면서 새로운 次元을 마련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行動을 통해서 얻는 경험은 다시금 思考에 의해서 批判되며 새로운 行動으로 돌아간다.

行動은 균일하게 있어서는 實踐을 의미한다. 군대는 國家權威에 직결하는 집단으로서 국토와 민족을 수호해야 하는 데의 명분 아래서 이룰 위한 實踐이 있을 뿐이다. 이 實踐의는 방식이 요청된다. 즉 實踐을 통해서 얻

은 경험은 새로운 實踐에 필요한 方式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참모임부면 에 있어서나 전문면에 있어서 그랬고 또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말할 것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근대는 實踐에 있어서 예민하기 한 이 없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나 전문에 있어서 한 사람의 實踐의 부족은 알 수 해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영향은 비단 근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근대는 보다 그 感度가 예민하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흥망을 전 전부에서 한 사람의 實踐의 부족이 가져오는 결과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근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할가를 알 수 있다. 특히 근인의 實踐에 있어서서는 크고 작은 것의 구별이 없다. 오히려 작은 實踐이 중요하다. 근대 교육은 形式教育이라는 말이 있는 바와같이 그는 形式에서 內容으로 들어가는 教育過程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인의 實踐은 思考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思考와 行動 즉 思考와 實踐 사이에서 流動하는 空間의 結晶이라고 할 가.

三、健康한 生活型

서양에는 「전전한 정신은 전전한 신체에 깰든다」는 격언이 있다. 이 격언은 이미 상식화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은 때로는 상식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격언은 세월이 흐르면 호를수록 새삼스러워 지기도 한다. 그러 나 여기의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文學者 또는 藝術家중에는 「메가당스」의 思考方式을 갖고 이를 行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이다. 요지음 세상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메가당스」역시 가짜가 많다고 본다. 필자는 한 국내에서 많은 「메가당스」와 사귀어 왔지만 거의 대부분 이 가짜였다는 단정을 내리고 싶을 지경이다. 진짜 「메가당스」는 참으로 귀여운 존재이다. 그는 남은 秩序로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에서 숨일 곳을 찾아 헤매이기 때문에 그 思考나 行動은 정상적이 아니며 건강치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幻想만이 그의 세계요 생활이다. 이는 특수한 예이며 새로운 秩序와 思考와 行動을 모색하는 모습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전한 정신은 전전한 신체에 깰든다」는 격언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지당한 말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건강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신체적인 健康法 보다는 精神的 健康法에 관해서이다. 요지음 Recreation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로는 무슨 말로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다. 原語의 發言 그대로 「리크리에이션」이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이 말은 신체적인 健康法 보다는 정신적인 健康法에 수할 것 같다. 餘暇를 이용해서 좋은 그림을 보기도 하며 아름다운 음악 들기도 하며 기타 視聽覺을 통한 藝術作品的 鑑賞 또는 娛樂를 취하는 「리크리에이션」이 얼마나 정신의 健康에 「프리스」가 되며 나아가서는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하신

十年間의 忍耐도 소聯이 核實驗을再開한 以上 美國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當然한 理論일지도 모른다. 萬一 現今 소聯이 核爆彈을 터뜨린다면 美國도 마구 터뜨린다면 地球上의 大氣圈은 放射能에 接觸히 둘러싸여 그 時期는 알 수 없으나 마침내 는 어떤 意味에서 전쟁以上으로 무서운 일이다. 머우기 核保有國은 차츰 차츰 늘어날 것이요 全核保有國이 무런 制止없이 核實驗을 開始한다면 全人類는 다른 天體로 移徙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것이 아닌가. 따라서 地球를 放射能으로 뒤덮는 核實驗도 自然 限度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放射能의 汚染이 없으면 어떤 實驗方法이 講究되지 않을까. 政治的科學의 所以 여러가지 意味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마는 美國이 소聯의 核實驗再開에 뒤따라 開始하게 된 地下實驗이란 첫째로 放射能의 汚染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地下實驗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그 規模는 어떠한 것인가?



美國의 地下核實驗이 意味하는 것

— 局地戰爭論, 探知可能範圍 및 中性子爆彈과 新型核武器說에 대해서 —

熟練 放射線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깊은 地中에서 爆發시키면 가장 큰 被害를 가져오는 爆彈을 만들 수 있고 熱線, 감마線 中性子 등도 地表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地下 어느 程度의 깊이에서 實驗되는가? 이것은 軍事秘密로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 美國原子力委員會의 發表에 의하면 一메카톤의 原爆이 地下十五미터에서 爆發하면 깊이가 六十미터 直徑約 四百미터의 구멍이 생긴다. 專門家들의 計算을 따르면 一메카톤 原爆으로 하여금 全然 被害없는 地下實驗을 할려면 적어도 地下 六百미터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美國은 核實驗會談이 始作되자 곧 地下爆發에 關한 研究가 거듭되어 公式의 式으로 알려지거에는 五七年, 네바다에서 一聯의 小型核爆彈의 地下實驗이 있었고 五八年 九月에서 十月에 걸쳐서도 地下實驗이 있었다. 이事實은 五九年 三月 美原子力委員會의 公式發表에서 미로소 알게 되었는데 同委員會는 그때까지 十九回の 地下爆發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中 TNT 火藥으로 換算해서 五十七톤과 二百톤級의 實驗되었다고 했다.

살할 수 있는 문제가기도 하다.

四. 儉素한 生活型

근인은 원래 儉素해야 할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주로 미국에 의해서 영향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富强한 나라의 근대인으로 그 생활은 화려하고도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 국민은 아직도 경제적 자립을 차지하지 못한 까닭에 미국 또는 미국의 물질적 원조를 받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민의 정신이 소나「포노」에 이르러까지 본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필자는 유감되게도 그런 경향을 띤 근인, 특히 고급 장교들에게서 보게 해 왔다.

요즘은 耐乏生活이란 말이 많이 퍼지고 있다. 기리는新生活服입세이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야 우리 생활이 정상화하는 것 같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한국 국민이 분에게서나 친남비와 사치를 일삼아왔다는 것을 일종의惡夢이라 여기면 그만큼이다. 이런 경향을 띤 사람은 근인 국민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의 몰지각한 족속이었을 것이다. 이 소수의 족속의 경향을 그 수를 따져서 그저看過하면 그만이지만 이들이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風潮를 생각할 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근대는 일반 국민의 耐乏生活를 儉素한 生活의 基準이라야 하며 동시에 그 정신의 源泉이라야 할 것이다.

五. 時間을 使用하는 生活型

시간은 金錢과 Time is money 라

는 말이 있음은 워낙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시간과는 관련없는 생활을 해왔다고 말한들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Korean time 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원인은 추분하다고 볼 수 있다.

自然인이란 시간관념을 안 가져도 살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문명의 발달에 따라 직제이나 임부가 누구로 분가된 현대에 있어서는 시간 관념을 못가지거나 안가지는 사람은 단 사람에게서 상대될 수 없으며 사회에서 살아 나갈 자격을 못가진 사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근대에 있어서는一秒를 다루게 된다. 전투시에一秒의 差로 인해 터가지의 사실을 독자중에는 직접 체

★ 施設과 規模는?

美國은 核爆彈의 地下實驗을 위하여 네바다一帶에 巨大한 터널을 개미집처럼 만들어 두고 있다. 實施 케네디 大統領의 命令에 依해서 實施된 地下實驗도 여기서 實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某外紙의 報道에 依하면 小型十二發의 實驗되었다고 한다. 勿論 地下實驗이 比較的 小型이며 그 規模는 알 길이 없으나 아마도 大型爆彈은 不可能한 것이 아닐까고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그 根據로서는 前記 美原子力委員會의 發表가 爆發力 五키로톤에서 二二三키로톤을 實驗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美國이 小型爆彈을 地下實驗하는 데는 理由가 없지 않다고 보는 說로서 다음과 같은 觀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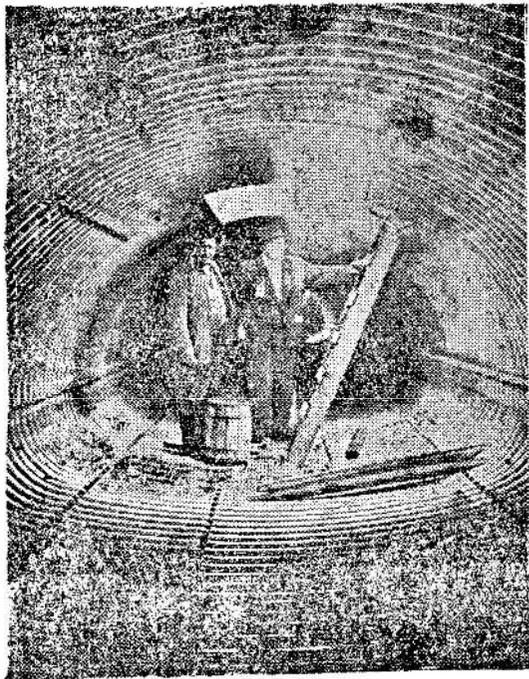
★ 局地戰爭에의 對備策

原子爆彈의 威力이 強大해서 美 國軍部와 原子力委員會에서는 局地戰爭에 이 擔頭했던 것이다. 즉 全人類을 滅亡시킬 大型原子爆彈은 實際에 있어서 사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戰爭은 局地戰爭을 不可避하게 할 것이나 原爆도 局地戰爭에 알맞는 小型의 實用的이라는 理論이 그것이다. 아마도 이 새로운 戰爭論에 立脚해서 小型爆彈의 研究가 推進된 것이고 地下實驗은 小型이 또한 알맞는 것이라는 觀測이 그것이다. 事實 全面戰爭이 全人類의 滅亡을 意味하는 것이라면 大型原子爆彈은 政治的 意味가 甚해서 모 르나 實用的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데 美國이 小型原爆實驗에 注力하고 있는 理由의 모 하나로서는 이른바 室內實驗이라는 中性子爆彈說과도 關係가 없지 않다.

★ 中性子爆彈이란 무엇인가?

이미 오래전부터 美國에서는 中性子爆彈의 開發說이 있었다. 이 爆彈은 地上戰鬪의 接護用으로서 建築物等地上物을 破壞하는 것이 아니고 또 原水爆처럼 爆風이나 熱線은 없으면서 純全히 放射線으로서 兵員을 殺傷하는 하나의 放射兵器다. 爆風이나 熱線이 없다는 것으로 一名「부드러운 水爆」이라는 別名을 가지고 있다.

이 中性子爆彈의 性能은 多量の 核融合反應을 일으켜 中性子를 造出한다. 부피는 알 수 없으나 아마 相當히 두꺼운 동크리트를 둘러싸도 生命을 救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中性子彈은 標準型으로 半徑一、六키로 내에 있는 兵員은 全滅한다고 한다.



↑ 美國 네바다에 있는 地下核實驗場으로 通하는 터널

할한 이도 있으며 또는 戰史를 통해서
아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근대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시간과 사
간의 組立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될 없을 것이다.

시간을 흔히 막연한 것 속에 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일반적
생활의 인적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物質이다.

怠業에는 材料로서의 物質이 필요한
것처럼 材料로서의 시간도 역시 필요
하다. 材料로서 무엇인가를 制作한
고 할 때 材料로서의 시간으로서 무
엇인가를 制作한다는 관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돈을 쓰는 것처럼 시간을 써야 한다.
즉 시간에 의해서 사람이 사용되는 것
이 아니라 시간은 사람에게 의해서 사
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計劃이 필요하다. 즉 「스케줄」이라
고나 할가.

시간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
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닐 수 없
으며 이는 사회에서 살아 나갈 養
을 못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 해
서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六、協同하는 生活觀

우리 민족은 非協同의 이라는 경향
은 自他가 共認하고 있는 바이다. 또는
개인적으로도 우수하지만 집단적으로
는 열등하다는 말도 흔히 들어 왔다.
이런 경향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생활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생활이요 또 하나는 사회적 생
활이다. 우리는 自然人이 아닌 바에
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모두가 사회의 成員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개인이면서도 개인
이 아닌 사회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
은 그렇지 않지만 지난 날에는 현실을
도피하는 詩人들 또는 藝術家들이
있었다. 그런 경향은 詩人들 또는 藝
家들이 처해 있을 현실사회에 대해서
품은 불만과 아울러 개인을 존중하는
주 개인의 創作을 절제시키는 데서 오
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런 행동은
그 때에는 도피였지만 현대에 이르
러서는 그런 경향은 도피로서 생각되
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개인의
創作이라 하더라도 作品으로서 세상에

내놓는 바에 대해서는 사회와 有形的의
인 無形的의 조건간에 관련을 맺기 때문
이다. 현대의 詩人 또는 藝術家치고
현실 사회에서 도피하려는 사람은 없
으며 그런 생각조차 안 갖는다고 생각
된다. 그만큼 人間은 自然의 형태로 부
터 할피되면서 文明人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 있어서는 일반 현실사회 보
다 더 協同의 요청된다. 왜냐하면
Team work의 잘 되고야 아니 되고가 그
군대의 실패의 부를 결정하는 Key 인
문란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쟁의 Key 인
적의 勝敗를 판가름할 수 있는 Key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協同은 「메카니즘」으로서 마
치 人體의 組織과 같다. 人體는 수 없
는 부분과 부분이 모여 組織化함으로
서 그 機能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되나 잘 알고 있다.

中性子彈은 起爆에 보통의 火藥을 利
用할 수도 있고 一說에는 「죽임의 제」
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虛說이고
오히려 中性子彈은 空中의 窒素에 作用
하여 人類의 遺傳에 重大한 影響을 미
치는 放射性的 炭素14를 만들어내는
大量殺傷 兵器로 알려져 있다. 實現은
아직 약간의 時日을 要하는 것으로 觀
測되고 있다. 그런데 이 中性子彈이
地下實驗과 結付되어 論議된 理由가
中性子彈은 小型이며 小型이기 때문에
室內, 즉 地下 試驗장은 곳에서 實驗
이 가능하다는데 基因이 있다.

★ 地下實驗은 探知가 困難

제네바 核實驗中止會議에서 한 때 論
議의 對象이 된 「어느 정도의 爆發力
까지가 探知可能範圍나?」였다. 美 소
를 비롯한 八個國의 專門家會議은 五
八年 八月에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었
던 것이다. 「特殊한 境遇를 除外하고
는 灰(灰)의 探査, 微氣壓振動, 地震
波, 電磁波 등의 記錄에 依해서 最小
限 爆發力 一五키로톤은 以下の 것은
探知할 수 없다」고 判定하였다. 이 問
題가 論議된 理由는 萬若 核實驗中止
協定이 締結되었을 경우 違反事實을
어느 程度까지 探知할 수 있는가? 라는
問題 때문이었다. 그런데 地下爆發
는 探知하기가 困難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하거나 天然地震과 混同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天然地震은 規
模가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면 地球上
에서 어느 어디서든지 銳敏한 地震計가
잡을 수 있으며 震源까지의 距離 및
方向도 察시할 수 있는 것이다. 核
實驗은 그 規模가 天然地震에 비해 작
고 爆發도 地表에 가까우면 알은 곳에

서 일어나기 때문에 地震波도 比較的
퍼져서 알고 거기다가 震動의 波型도
天然地震과 恰似하기 때문에 區別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五九年 三月 美英兩國은 地
下와 大氣圈外의 實驗은 禁止의 對象
에서 除外한다. 이는 大部分中止案을
내었던 것이다. 地下實驗과 大氣圈外
의 爆發은 放射性的의 被害가 없다는 것
과 地下實驗은 探知가 困難하니 除外
해도 無妨하다는 意見이었다. 이 部分
中止案은 그해 十一月에 地下實驗에
關한 專門家會議에서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한 까닭에 아무런 結論을 내리
지 못했었다.

★ 新型原爆도 研究中인가?

제네바 核實驗中止會議이 進行中이
던 사이에 미국에서는 實驗을 아주
中止하는 것은 생각할 問題라고 말하
는 專門家들이 있었다. 그 理由는 核
實驗中止會議中 소聯이 果然 實驗을
中止하고 있지 않지 않을 일이며
그보다도 從來의 原水爆을 新型原爆
으로 改良研究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萬一 그렇게 된다면
核實驗中止協定이 成立된다고 해도
何等의 意義가 없기 때문이다. 美
國의 中性子彈의 着想하게된 動機도
이런點이 있을지도 모른다.

美國의 中性子彈研究는 水爆의 아
버지라는 異名을 가진 테라博士가 있
는 캘리포니아 大學의 리버모어 放射線
研究所에서 推進되고 있다는 說이 있
는데 過般美國이 소련의 核實驗再開
에 뒤따르는 核爆發實驗再開聲明가
우레에 「室內의 實驗도 實施한다」는
말이 있다. 室內實驗이 果然 무엇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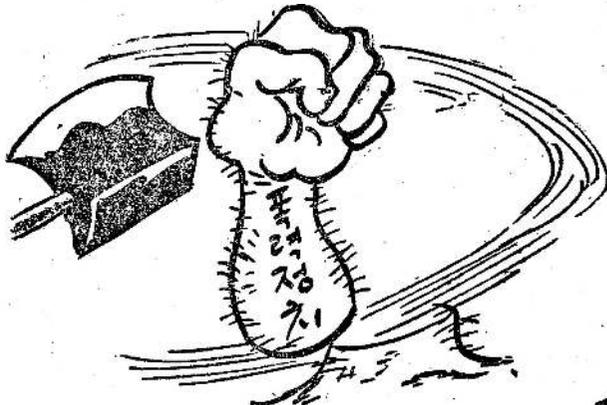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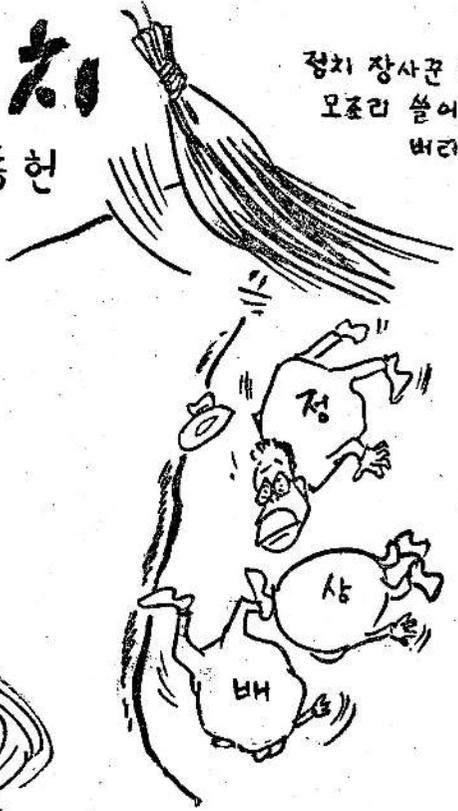
정 치

신 동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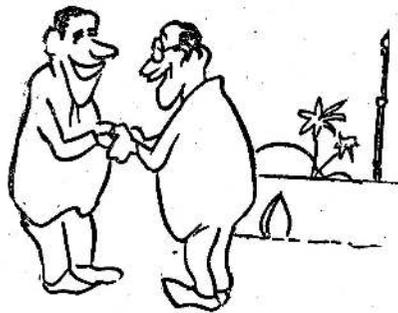
정 치 장 사 권 들
모 조 리 쓸 어
버 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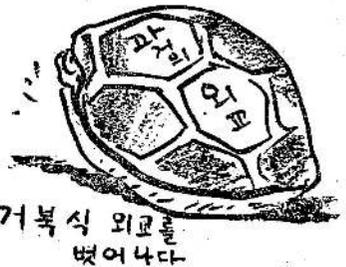
빨간 색
갯 빛 색 을 밟 아
없 어 다



주 먹 덩 치 를 뿌 리 채
저 잘 르 다



특 권 자 를 밀 어 버 리 고
가 난 한 사 람 을
위 하 는 정 치



거 복 식 외 교 를
벗 어 나 다

경제

김일소



암 수술을 해버
리터 시원 하다



이제 좀 살것 같아요



밀수
배방 크를 때워야지



"과장" 보담
기재를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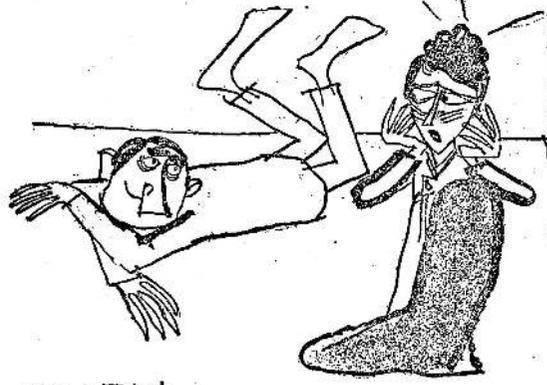


이 바위부럼 들어내자

국토개발

漫露로 본 革命半年

社 会



* 下宿(?) 變
- 이 근처에 下宿에 많더니
술서방 녀석 거짓말 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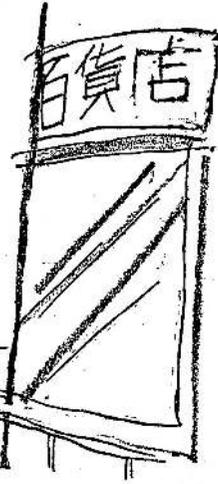
* 데모病 *

- 化粧用品사내라고 데모 안허우? -



* 罰百戒 *

- 백이 저꼴이나 보따리 싸세 -



* 外 來 品 販 賣 止 止 *
- 이제 百貨店 在 아야야
와도 겁나고 개어빠 다...!

百 貨 店

文化 (金庚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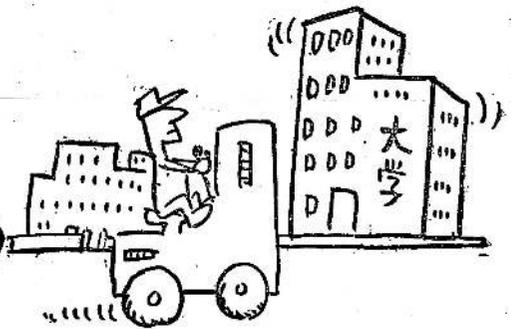
無実績出版社の整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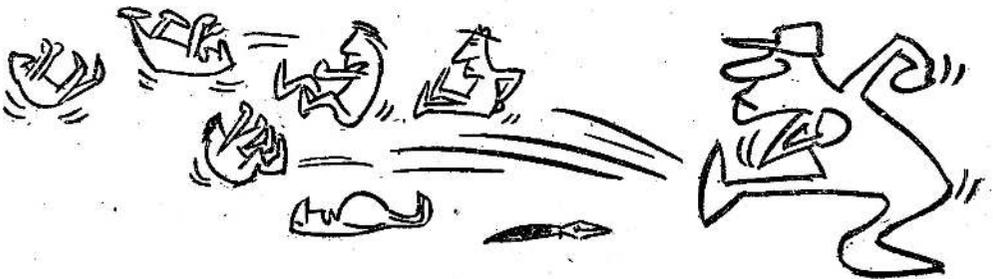
反共文化の強化



旧悪文化の鉄錘



大学の整備



做以非記者の追放



世界新聞이야기 ②

金基漸

伊太利篇

伊太利는 半島本土와 「시실리」 「사르디니아」 「엘바」 등 七백이 되는 섬을 가진 유럽 南部의 共和國으로 三十一萬一八九平方杆의 面積과 四千五百萬의 人口를 가지고 있으며

가까히는 第二次世界大戰時 日獨伊同盟國으로서 反聯合國陣營에서서 「팻소」 政治體制을 이루었던 나라이다. 「유렵」 自體가 그러하거나 伊太利에 있어서의 實情을 보진대 「메스」 「키유」 「니케이슈」 이 그리 發達하지 못하고 있

다. 더욱이 第二次世界大戰後에는 이렇다할 獨立紙로서의 新聞을 찾아 보기 어렵다.

終戰直後 講和條約締結以前까지는 「팻소」 以前의 新聞이 各各復活하여

號를 「新○○新聞」이라고 하여 이 前의 新聞과 그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부차 表現하려고 애 쓴 事實을 볼 수 있다.

「팻소」 時代의 一部新聞도 그러한 것이 있다.

이 後者인 境遇는 法律的으로 그 復活의 許容되지 않았음으로 이지와는 달리 「新」字를 冠題하여 新聞名으로 단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如何는問에 「新」字는 字義 그대로 「新」을 말한 것이 아니라 獨立의 性格을 喪失한點에 있어서는 다를바 없다고 하겠으며 어느것을 보더라도 伊太利 新聞을 본다면 政黨이나 어느 派閥의 機關紙이며 或은 特定한 產業의 支援를 받고 있다는 點을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性格의 伊太利 新聞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獨立紙로서의 形式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미라노」에서 發刊되는 「코루리에레」 「에라」 「세라」 「레피에」 이 것 亦是 綜合化學의 「몬테카디니」의 代辦紙로서 三十萬部前後의 發行部數를 가지고 있는 新聞으로서 地方的으로는 一大有力紙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全國的인 新聞이라는 것이 없으며 代表的인 新聞이라고 든다면 恒常의 나라이서는 이러한 地方의 有力紙를 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로」 「마」의 有力한 新聞은 「렛사」 「로」 「레」 「세」 三十萬部の 發行部數를 가지고 있으며 基督敎民主黨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其黨의 가장 強力한 代辦紙로서는 「레포」 「레가」 있으며 이것은 不過 十萬部前後의 發行部數를 갖고 있다.

이러한 政黨 또는 特定한 機關과의 關聯을 맺고 있는 몇몇 新聞이 있으나 政黨의 機關紙로서 뚜렷이 公然하게 表明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共產黨機關紙인 「우나」 「레와」 「社會黨」의 「아반」 「레」 「社會民主黨」의 「유」 「스티리아」 「레」 그리고 「파」 「스트」의 「MSI」 「伊太利」의 社會運動」의 「세」 「코」 「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政黨의 機關紙라고 하여도 社會 經濟 文化 娛樂 運動面等 全般에 걸친 紙面全體를 보진대 他紙와 舉가 그 政黨 特有的인 編輯內容으로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政黨機關紙라고 해서 다른 新聞과 틀리는 면은 없다. 政治面만이 相異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販路의 現象을 본다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지만 街頭販賣에

있어서는 그날 그날의 差異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多少의 增減이 있는 것도 別般 다를 것이 없다고 보겠다. 그리고 日曜日의 休刊에 뒤이어 月曜日 比較的 많이 販賣되는 것도 잘 알 수 있다.

앞에 伊太利의 新聞은 大部分이 政黨의 機關紙로서, 獨立紙로서의 性格을 갖은 新聞은 別로 없다고 말하였거니와 紙面作成에서 본다면 獨立性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第一面에 저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말하자면 政治面에서 自黨 또는 自紙의 利로운 內容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模樣이다.

이와 反面에 社會面이나 他面을 본다면 大同小異한 點을 엿볼 수 있다. 文化欄같은 것도 「우나」 「레가」 「에」 「레포」 「레」 「레」 「레」를 掲載한다면 「렛사」 「로」 「레」는 古典作家를 選擇한다든가 하는 程度로서 別로 저마다 差質의 인 取扱을 하는 것은 없는 상이다.

그리고 이하에 「스포츠」 나 映畫娛樂欄에 있어서도 別로 相異한 特定的인 內容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나」 「레」 같은 新聞이 讀者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興味있는 記事가 많고 滋味있는 編輯方法으로 같은 競技라도 大衆의 人氣를 獨占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方向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다싶이 伊太利의 蹴球라든가 有名하고도 世界的으로 알려져 있는 「나나」의 「스포츠」 일진 데 各 팀의 對戰成績이 라든가 選手의 狀態에 對한 詳細한 內容과 調査等 讀者에게 充分한 常識을 提供해 준다

이러한 性格의 伊太利 新聞가운데서

런가 또는 有名한 「로」마와 「나」포 리」와의 蹴球試合같은 競技에 있어서의 對戰記事의 寫眞을 一面 「투」記事로 取扱한 다면 가 하는 것은 他紙에서는 없다 싶이 大書特筆하는 事例가 있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 어떤 면 政黨機關紙라고 生覺키 어려울 程度인 것이 있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要컨대 政黨機關紙라고 하여도 編輯面에서 볼 때 政治에 關한 問題에만 局限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에 社説은 戰前과 같이 特別한 論說陣容이 있는 것이 아니고 大部分이 定期契約의 寄稿者에게 맡겨지고 있다.

때로는 政黨 首腦者들이 寄稿하는 수도 있지만 保守政黨인 境遇는 거의 없다 싶이 하다.

이러한 寄稿의 筆者는 반드시 署名을 하여 글을 쓰게 된다.

이곳에 特記할 만한 것이 있다. 이것은 바로 앞에 列記한 新聞外에 伊太利에 있어서 無視 못한 新聞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즉 「파티칸」의 機關紙인 「우셀파트」에 「로」마는 新聞인 것이다. 이 新聞은 本來 宗教新聞이니 만큼 그다지 政治記事는 없다.

그러나 그 編輯內容이나 取扱方法에 있어서 「로」마 「法王廳」의 意向이 다루어져 있어 어느 程度 그 意向을 推定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이 新聞의 論說에 法王廳의 意向이 반영되어 있어 이 나라의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伊太利가 「카토리」敎의 나라임으로 「파티칸」의 機關紙가 그 일마나 國民의 精神生活에 이바지 하고 있는 가를 充分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케비다」氏가 美國의 大統領으로 就任한 後로는 「케」氏가 「카토리」敎徒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同紙가 對美 論調에 있어 極히 잘 꾸며지고 있다는 點은 또한 註目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伊太利의 新聞이 어떻게 한 大 全國紙로서가 못되고 그리 많지 않은 發行部數를 갖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海外에 特派員을 보내고 있는 新聞은 거의 없다 싶이 하며 「코르리에」에 「데」에라 「세라」紙가 「인」드로 몬다 빌리」에 多少의 補助金을 내주어 亞細亞와 中南美에 보내고 있으나 이것조차 「로」마」의 「메사케」로」紙나 其他紙와 共同으로 原稿를 使用하는 程度인 것이다.

그리고 伊太利에서 많은 發行部數를 가지고 있다는 「우」나」紙라 할지라도 特派員을 蘇聯에 보내고 있으나 記事는 現地 新聞社의 記者의 손에 의해서여지는 것이 殆半이며 또한 大公使館의 雇員이나 「후」리란사」에 依頼하고 있는 現地特派員이라고 하여 取扱되고 있을 뿐 도리어 特派員은 黨關係의 일거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伊太利의 新聞內容을 본다면 論評이라든가 記事取扱方法에 있어서 東洋의 新聞에 비해 特出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유럽」에 있어서의 伊太利의 地理的 條件이라든가 伊太利國民이 國際政局의 一角에서 있다는 自覺 또는 感覺에서 오는 世界的 視野로서의 問題에 對한 觀點에서 다루어져 있다는 點이다.

다음에는 伊太利의 新聞勞動組合과 新聞記者의 地位에 關하여 考察코져

減 共

李 在 華



한다. 이 나라에 있어서도 勞動組合은 戰場別 產業別로 印刷工과 記者는 各 其의 다른 組合에 加入되고 있다. 印刷工이 賃金引上的 罷業을 하려는 實際問題로서 新聞發刊이 不可能하게 됨으로 新聞記者들은 同情罷業을 해 버리는 形態를 取한다.

이런 境遇 이들은 前日의 新聞에다 社說의 寸毫까지 하여 「우리들도 連帶하여 罷業에 突入한다」는 形式으로 聲明書를 낸다.

勞動組合이 比較的 強力한 이 나라에 있어서도 新聞罷業이 여러번 失敗한 적이 있다고는 드물고 年間 一 二回程度는 罷業이 있어 新聞이 發刊되지 못하는 境遇가 있으며 殆半의 場合는 新聞은 우리 韓國新聞과는 달리 日曜日에는 發行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系統의 新聞社에서 다른 種類의 發刊物을 내고 있어 新聞이 罷業으로 一日을 안나온다고 해서 그날의 「뉴스」를 볼라가지고 困難을 겪는다는 點은 別로 없으며, 이와 對照의 인 것으로 共產黨機關紙인 「우나나」는 年中 無休刊으로 發行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 新聞社와 通信社와 의 機能은 明確히 區別되어 있으며 모두가 「ANSA」通信에서 뉴스受信을 할 수 있고 있다.

그러면 新聞記者의 地位는 어떠한가? 이點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는 생뉘어지지만 一律의 이 아니고 個人的인 問題가 되는 것이라고 보겠다.

即히 되는 것일 때 있는 實錄은 記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下流의 記者도 있을 것이며, 이 나라의 記者에 對한 社會의 待遇는 그리 나쁜 便이 아

니다. 例를 들어 이 나라 記者에게는 各種 博物館이나 伊太利에서는 흔히 있는 各種의 展覽會의 無料出入證을 要求하는 대로 發給하고 있다. 또한 鐵道便利利用은 私用일지라도 七割의 割引과 航空便은 國內線三割의 割引待遇로서 여러가지의 社會特典을 받고 있다.

그리고 自動車 購入은 醫師와 같이 優先權이 賦與되어 있고 割引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韓國의 新聞記者도 이러한 特典과 優先 待遇를 받는 데는 좋은 地位에서 있다. 한편 特定한 官廳에 對하여 新聞側이 弱함으로 그러한 官廳이 배우는 招待에 있어서는 新聞記者가 그末席에 자리잡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伊太利 新聞記者들은 이러한 點에 對하여는 그다지 神經을 날카롭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색다른 바 있다고 보겠다.

도리치 이러한 點보다는 言論의 自由라는 問題에 關하여는 이 나라 記者의 態度는 만만치 않으며 頑強하다. 그리고 「뉴스」에 關한 秘匿問題에 對하여는 그야말로 強하고 만만치 않는 點이 있다는 事實을 일다 든 지 들 수 있다.

그 일례를 든다면 오래된 일이지만 南部 伊太利에서 「뉴스」라는 義賊이 있어 가지고 當地 警察을 몰거나 囚徒를 탈거할 하 여 괴물인 일이 있는데 義賊이란, 秘匿結社인 「마쉬」에 隸屬하고 있으면 模樣이 「마쉬」의 會見한 記者가 있었다.

警察에서는 그와 「인터뷰」한 바 있는 記者를 尋問하였던 것이나 絕對로 警察에게 그들에 對한 이야기의 明確한 回答을 주지 않아, 結局은 裁判廳 動까지 갔으나 끝까지 이 記者는 會見한 「뉴스」-「소」에 對하여는 말할 수 없다고 頑強한 態度로 나왔던 것이다.

몇해 지나 「유리아」노가 發見되어 射殺된 後에야 비로소 그 內容을 明確히 밝혔다는 것이다.

이러한 伊太利의 新聞記者의 「뉴」

말이 되는 藥

☆ 맛있는 宣傳法 英國의 모오쌍이라 불리는 윌리엄·샘미세트·모음(作家, 劇作家, 醫師, 一八七四)은 젊었을 때 小說이 도무지 팔리지 않아 실망이 있었다. 出版業者는 廣告料만큼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선전에 그以上 돈을 드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著者인 모음은 自己流의 方法으로 出版社를 도울려고 하였다. 그는 런던의 여러 日刊新聞에 結婚 廣告를 내었다.

「當方은 스프링스와 音樂을 좋아하고 敎養 있고 溫和한 性質의 젊은百萬長者인데 모든 點에서 W.S. 모음의 最近 作品속에 나오는 女主人公과 똑같은 젊은 아들과 處女와의 結婚을 希望할」 이런 廣告를 내지 六日後에 런던市中 어느 書店에도 그의 名은 한 번도 없게 되었다. ☆ 카네기의 運命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재운을 친구를 사귈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感化시킬 수 있을까?

「나」는 틀림 없이 제대로 하였을 것이다. 먼저 去來處 사람에게 마음대로 부러 인사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微笑을 지어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지어 하고 보았을 것이다. 그 사람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注意를 集中시켰을 것이다. 그 사람의 意圖를 察知하고 그의 意見을 稱용하고 또 敬자하는 原則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한시간 가까이 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해에 대한 것은 참으로 一生의 친구를 만든 것일 수가 있었을 것이다. 弟子는 여기서 말을 끄고 손을 크게 들어 밟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람은 딱하게도 一生의 敵을 만든 것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言論의 自由에 對한 眞은 關心과 社會의 條件이 마련되고 있는 伊太利의 新聞은 어딘가 이 나라 國民一般의 國際의 位置에서 있다. 自覺心과 感覺에 起因하고 있는 상이다. (筆者: 空軍中領 空本公報課長)

후버 댐

世界最大の 댐 이야기

~~~~~ 하 리 바 톤 ~~~~~

寫眞은 후버 댐 全景

## 한번

「世界에서 가장 큰 天然湖는 어딜까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眞水로는 슈미피어리호(Superior 美國五大湖의 하나)로 美國과 캐나다 國境에 걸쳐 있다.鹽水로는 카스피海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人工湖로는 어느 것이 가장 크나고 할때 그것은 기리가 二四二키로미터이고, 幅이 六十四 키로미터인 미드湖를 말할 것이다. 이 湖水는 볼다 댐(後日 후버 댐으로 改稱)의 背後에 있으며 코로라도 江물을 막아서만든 廣大한 貯水池이며 一大人造湖다.

후버 댐은 世界에서 제일 큰 댐으로서 一八六九年 포일少領이 처음 探險을 끝낸 地點에서 四十五키로 가량내려간 곳에 그랜드 캐논을 건너 질러서 建造되었다.

포일少領의 가족 가운데 포일少領만이 코로라도江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一八六一年 포일少領妹 家에 아더·포일·데이비스라는 사내아가 태어났다. 포일少領이 그랜드 캐논을 探險하였을 때 아더는 아직 八歲의 少年이었는데 外叔의 이용감한 모험담을 듣고 外叔의 꿈에 그리던 코로라도江을 막아서 그물을 사막 지대로 흘러 보내므로서 그곳을 훌륭한 貯水池를 만들기 위한 기술자가 되고 자 결심하였다.

그는 성장하여 미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工業學校에 入學하였다. 언젠가 그의 머리를 댐을 고고하였던 것은 길이가 一키로만이나 되는 峽谷을 一、五〇〇키로의 기리에 걸쳐 흐르고 있는 코로라도江에 댐을 만들어 下流의 濕地帶에서 강물을 막아 사막지대를 變換해서 꽃밭이나 田畠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인가는 것이었다.

一九一四年에 아더는 오랜 歲月의 希望이 달성되어 美合衆國 開拓奉仕團(U.S.R.S.)의 지도자가 되어 코로라도江 建設에 從事하게 되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미국의 中央部 록키山脈에 淵源을 두고 캐리포니아灣으로 흘러는 延長二、八〇〇키로의 코로라도江의 上流인 아리조나, 네바다兩州 州境에 있는 부락크 캐논으로서 이곳을 코로라도江邊에서 불과 百五미터 떨어진 兩側에 六〇〇미터 높이의 岩壁이 치솟아 있는 곳이다.

이 장소를 測量하는데만도 十三年間이나 걸려 一九三〇년에야 겨우 工事에着手하였던 것이다. 아더의 少年時代의 꿈은 조금씩 실현되어 갔다.

그는 매일 三、五〇〇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폭풍이나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부락크 캐논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다음해 工事中途에 그는 우연히 病席에 놓이게 되어 드디어 七十歲를 一期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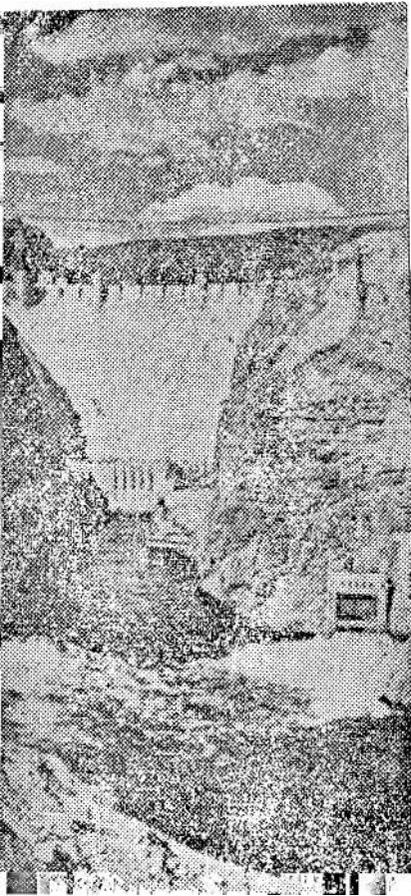
峽谷의 밑바닥을 橫斷하는 댐을 建設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격히 흘러내리는 강물을 막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부락크 캐논의 上流에 흩이나 바위로 一時의인 뚝을 만들고 다시 강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峽谷 岩壁에 直徑十五미터나 되는 터널을 네 개나 만들었다. 「補助水路」라고 불리운 이들 터널은 강물을 전부 큰 댐을 만들 장소를 피해서 훨씬 강 하류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元來의 강줄기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거기에는 第二의 댐이 構築되었는데 이것은 강물이 上流로 넘쳐 흘러 基礎工事を 하고 있는 곳이 浸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계 歷史上 이제까지 이 만큼 重量 있는 土臺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는 없다. 그것은 七百萬톤이

나 되는 콘크리트로서 에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이었다. 이 重荷를 받치고 그 背後에 있는 몇 백만톤이라고 하는 물을 받치기 위해서 댐은 基盤에서는 二二〇미터의 두께를 필요로 하였으니 이것은 都市의 一區劃의 기리와 거의 같은 것이다.

이 巨大한 基盤 即地 上에서 六七〇미터 아래 쪽에서 댐이 構築되어 간 것이다. 그리고 점점 높아져 갈수록 峽谷의 岩壁과 岩壁사이가 좁아져 그것만큼 댐은 높아져 갔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江 밑 바닥에서 二二〇미터 되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 作業을 쉬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기서는 댐의 부피가 十三미터半 정도인데 기리는 三九미터나 되었다.

이 때문에 二年間이라는 세월을 밤이고 낮이고 一秒間의 休息도 없이 總量 七〇〇萬톤의 콘크리트가 注入되었다. 한밤중에라도 낮에와 같이 작업은 계속되어 日沒後는 強力한 電燈이 대낮과 같이 댐과 峽谷을 비추었다. 여러분은 높이 二百二十미터의 댐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제까지 世界最



高의 뱀이라고 하면 불관속에 있는 것으로서 그 뱀은 구라파의 驚異로 손꼽혔었는데 그레드 그 높이는 一三五미터에 불과한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完了되었을때 補助水路가 閉鎖되고 강물은 본시대로 흘러 내리고 巨大한 白色의 怪物(뱀)으로 突進해 갔다. 그러나 이 怪物은 峽谷의 岩壁과 같이 勇猛도 안하고 물은 뱀을 따라서 上昇하고 다시 峽谷쪽으로 물이 充溢해서 뱀 쪽의 水深은 二〇〇미터나 되어 百八十四키로나 上流로 되니 大湖水를 이루었다. 이것이 미드湖인 것이다.

(譯者註) 이湖水 이름은 當時 미국 開拓局의 理事로서 이 工事의 技師長을 歷任한 엘우드·미드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湖水에 잔뜩 잡아 붙어진 물은 그一部分이 巨大한 鋼鐵管을 통해서 落下하여 發電所로 옮겨져서 거기서 大量의 發電이 되어 로스앤젤스, 하리우드 같은 南西部의 모든 都市로 送電된다. 더우기 全部의 물은 發電所보다 상당히 上部에 있는 排水口에서 二·五미터 부피의 噴出水로 되어 七十미터 높이에서 落下하는 것이다.

만약 미드湖의 물이 전부 下流의 溪谷으로 흘러 내린다고 치고(물론 그런 경우는 결코 생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가득 채울려고 한다면 코르다도 강물을 二年間이나 될 새 없이 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 그水量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타고 그랜드·캐논에서 강 줄기를 따라 후버·댐까지 내려가는 것은 頂上의 名勝이다.(그러나 보

트를 타고 내려간 少量의 水에 是 용이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砂灘을 橫斷해서 나아가면 그랜드·캐논에서 부딪친 것과 같이 물연또 하나의 偉대한 광경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들이 가는 길은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荒地에 있는 바위 기둥으로 있는데는 二·三〇미터나 아래 排水口에서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나 發電所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아직 建設中인 후버·댐을 구경할 수가 있었다. 峽谷 가장자리에 마련된 展望臺에서 한방울의 물도 없는 강 밑바닥 부분과 두개의 뱀을 내려다본 것이다. 뱀은 강을 등쳐서 하나는 上流로 하나는 下流에 있었다. 뱀은 半쯤 工事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번에 十六분이나 들어가는데 커다란 容積器가 차례 차례로 살아 올라가는 白鹽 위에 콩크리트를 쏟아 붓고 있었다. 峽谷 兩側에서 굵은 케이블이 저어저어 거기에서는 三十名가량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나무 箱子가 매달려 있어서 前後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이 木箱子에 여러번 타고 三三〇미터나 아래에 있는 乾燥된 물자리를 내려다 보았던 것이다. 거기에는 三,五〇〇명의 일꾼들이 트럭이나 機關車, 起重機 그리고 電氣索으로 쾨펜트의 산을 높이는 작업 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上流와 下流의 뱀으로 버티고 있는 강물이 頭上 十五미터 지점에 있으며 양쪽

에 만들어진 바위 뱀을 지나서 세계 최고로고 있는 사실에도 전혀 無關心한 것처럼 보였다. 工事는 밤이나 낮이나, 日曜日이나 祭日이나 쉬지 않고 계속 되었다. 뱀이 완전히 한 대로 이어지지 위해서는 二年 동안 한一秒의 休息도 없이 콩크리트를 흘러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夜間에는 이렇게 過激하게 일하고 있는 광경이 幾百萬 燭光이라고 하는 電光으로 비추어졌다. 그렇시 여러분 이 빛의 인도를 받아 한발중의 이 길은 끝까지 나를 당도해서 골짜기를 내려다 보았다고 상상해 보라! 거기에는 불빛이 뱀을 조상조상 소리가 울리고 흡사히 개미떼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들을 위에搭과 같이 덮어쳐 온 未完成 뱀이 어둠의 장막 가운데 나타나 보였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하고도 感動의 일한 幅의 그림과도 같이 도저히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자동차는 후버·댐 위를 橫斷하고 있다. 뱀 위는 主要道路로 되어 다리로써 사용되고 있다. 거기서는 上流를 바라다 볼 수도 있고 湖水를 가까이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뱀백미터 아래에 있는 發電所도 볼 수 있다. 뱀의 中心部를 에베레타가 오르내려 그것을 타고 發電所로 내려갈 수도 있다. 거기에는 이제까지 만들어진 것 가운데 가장 큰 터빈이나 發電機가 架設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밑전실 아래 나무 위에는 코르다도 江물이 전부 온전한 鋼鐵 튜브에 壓縮되어 쇠볼로이 이진 怪物과 같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뱀이나 되는 물이

뱀이나 되는 機械에 유여져서 일하는 作業 結果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강을 奴隸처럼 부려서는 되 려므로 그전에는 荒原한대로 내려와 두었던 幾萬 幾十萬에 이커라는 넓은 土地에 給水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河口에 가까운 농장이나 골짜기에 다시 洪水를 내게 하지도 않고 南部 캘리포니아에 多量의 熱과 光을 供給하기 에 이른 것이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密柑은 후버·댐에 依해서 開拓된 土地에서 生産된 것이므로 모르고도 한 畝缺도 후버·댐에서 보내진 電氣로 비추어진 셋트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모른다. 이 技術의 승리로 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후버·댐을 最初로 버리의 構想한 사람이 아더·포일·데이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감사와 賞識이 偉대한 技術者에게 附與되지 않았음은 이던저 서운한 感이 든다. 그러나 그가 求한 唯一의 報酬는 그의 企劃에 依해서 그전에는 荒原였던 砂地에 불과한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果實이 열리고 살피아의 森林地帶에 훌륭한 都市가 생기고 地上에서 가장 손꼽힐 수 있을 만큼 破壤의 인江의 所有者들과 쟁자 되었던 코르다도 江이 완전히 건들어서 미국 最大의 富의 源泉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 하겠다. (譯者註) 위싱턴州의 콜럼비아 江의 設置된 그랜드·쿠레이·댐은 높이가 一六五미터로서 후버·댐의 二二〇미터에 는 미치지 못하나 기리는 一,二九〇미터가 되어 후버·댐의 三倍以上이 나 되어 사람이 이룩한 돌리(工事)로서는 世界第一이라고 한다.)

◇머리말 ㉠우리 제례는 예로부터 예의를 숭상하여 왔다. 혼인하고 장례 치르고 제사 모시는 데 모두 일정한 방법도 있고 절차가 있어서 이것이 잘 지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례는 차츰 차츰 그 절차가 법도리위치고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고쳐야 할 점이 많아졌음을 세상 사람이 다같이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식법절도 시대의 변이에 따라 약간씩 변모되지 않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날 국민이 모두 절실히 느끼는 점은 종래의 우리 각종 예식이 훨씬 더 간결하여야겠다는데 있는 줄로 안다. 우리들의 살림살이의 양식이 30년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3백년전의 예식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이리운 것이다. 그리고 또 종래의 번잡하고 의식에만 치중하는 예식에 따르는 막대한 노력과 재화의 낭비를 절충하는 데에 이 표준의례를 갖는 목적이 있다.

◇혼인 ㉠약혼 ㉡1. 혼인은 사후의 구속에 구애 없이 한다. 2. 약혼은 당사자간의 합의 표시만으로써 성립된다. 3. 신랑신부의 호적등본 및, 건강진단서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4. 약혼식이나 약혼 잔치는 폐지한다. ㉢혼인 ㉣1. 약혼의 합의로서 결정한다. ㉤남매 ㉥남매는 일체 폐지한다. ㉦혼례식장 ㉧혼례식장은 양가간에 합의된 장소에서 한다. ㉨청첩장 ㉩1. 극히 가까운 친척 및 친지에 한한다. 2. 특히 공직에 관련된 청첩장은 일체 금한다. ㉪혼례부장 ㉫1. 신랑은 정상부를 임는다. 2. 신부는 정상부 또는 간소한 예장을 한다. ㉬혼례식 종료 후 행사 ㉭1. 가족 이외의 친척 및 지인을 상대로 하는 잔치는 일체 폐지한다. 2. 당일도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례 ㉠임종 ㉡병세가 위독에 빠질 때는 근친자는 환자실의 내의를 정수히 하고 있다. ㉢구급 ㉣구급하면 망인의 시신과 수족을 정제수사하고 애도근신한다. 망인의 직계비속은 상주가 된다. ㉤상주 ㉥1. 상주는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때는 장손이 승중을 하여 주상이 된다. ㉦장손이 미성년이면 차자가 상례를 주재한다. 2. 무후한 친족은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재한다. ㉧부고 ㉨1. 호상자의 명의로서 구히 가까운 친족 및 친지에게만 한다. 2. 관청 및 일반 직장명의로 관련된 부모는 일체 금한다. ㉩입관 ㉪음습 ㉫1. 음명부 ㉬

## 포 준 의 례

4시 간이 경과하면 깨끗한 정상부를 입고 입관후 장일까지 정결하고 소독된 곳에 안치한다. ㉭영과 ㉮1. 입관 후에는 망인의 시신을 정결한 위치에 모신다. 2. 명정은 폐지한다. ㉯상복 ㉺1. 남자는 망인의 직계비속만 정결한 정상부에 다모 두건을 쓴다. 2. 장일 까지만 한다. 3. 여자는 망인의 직계비속만 정결한 정상부에 다모대를 허리에 두른다. 단 장일 까지만 한다. 3. 부인은 망인의 직계비속을 제외한 유년친은 남녀 다 같이 후포 완장을 왼팔에 두른다. 단 장일 까지만 한다. ㉻장일 ㉼상일장을 원칙으로 한다. ㉽영결식 ㉾발인제 ㊀간소한 영결식 또는 발인제를 지낼 수 있다. ㊁장지 ㊂1. 공동묘지 또는 가족묘지에 한다. 2. 성분 또는 화장후에는 분향함통 배제한다. 3. 묘지 선정은 풍수설에 구애 없이 한다. ㊃상기중 폐지사항 ㊄1. 상기는 장일 까지로 한다. 2. 우제 및 졸복은 폐지한다. 3. 상식 및 삭망은 폐지한다. 4. 소상, 대상, 답사는 폐지한다. ㊅조위 및 호포 ㊆1. 조계는 망인의 영좌에 분향단 배하고 상주의 조위한다. 2. 상주 및 조계는 호포를 안한다. ㊇제례 ㊈제례의 구분 ㊉제사는 기사 묘사, 절사, 원단, 추석, 또는 중구로 한다. ㊊제사 봉사 범위 및 일시 ㊋1. 제사는 조부모, 부모의, 이대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제주가 승안한 조상은 제주의 당대만 봉사할 수 있다. 2. 무후한 친족은 최근친자가 제주 당대에 지낼 수 있다. 3. 기제사의 일시는 기일 일몰후에 지낸다. 4. 원단은 기제사의 봉사 범위 대상위로 한다. 5. 묘사의 봉사 범위는 2대까지로 한다. 6. 추석 또는 중주는 기제사의 봉사 범위를 대상위로 한다. ㊌제사의 절차 ㊍1. 모든 제사는 망인 생전에 좋아한 구히 간소한 음식물을 진설할 수 있다. 단, 공화로서 제물을 대할 수 있다. 2. 모든 제폐 절차는 단행 단배하고 복념후에 다시 단배한다. 3. 제사에는 추도문 또는 추문을 읽을 수 있다. 3 제부는 명상부으로 한다. ㊎신주의 폐지 ㊏사건으로 대하고 모든 신주(불친위 포함)는 폐지한다. ㊏기묘 ㊐성연 ㊑혼, 상, 채, 회갑연 모든 각종의식에 있어서 가족 범위를 넘는 성연은 폐지한다. ㊒후의 및 부의 ㊓친척이나 구히 가까운 친지의 간단한 표시만으로도 한다.

# 三個月 英國 空軍 的 不屈 的 鬥爭

—— 第二次大戰時 防空戰線에서의 英國 空軍의 不屈의 鬥爭 ——

## 成功을 거둔 獻納運動

英國의 本土防衛戰은 七月十日에 開始되었다고 하였는데 獨逸에서는 八月八日을 對英航空作戰 開始日로 豫定하고 있었다. 獨逸은 七月中 最初의 三週間을 作戰發動의 準備期間 乃至 不屈의 英國民들로부터 하여금 戰爭을 苟만두고 講和하는 方向으로 나가도록 하는 週間으로 設定하였던 모양이다.

七月十日 아침은 幸運의 뉴스가 傳해졌다. 各新聞은 一面에 特號活字로 다칼作戰의 大戰果를 報道하여 런던市民들을 기쁘게 하였다. 獨逸에 降伏한 佛蘭西戰艦 리슈리號를 英海軍의 부리스트少領이 다칼港에서 擊沈

한 유명한 뉴스였다. 이와같은 喜報와 함께 家庭主婦들에게 呼訴하는

「主婦 여러분 航空機生産省에 알루미늄製品을 獻納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냄비나 솥을 가지

어려분이 알미늄製의 냄비 솥 주전자 眞空掃除器 그밖에 무엇이든 알미늄製品을 가지고 계시면 지체 말고 婦人義勇軍 地方支部에 獻納해 줄 것을 바랍니다.」

英國戰爭에서 家庭主婦들의 協助에 依한 냄비나 솥, 주전자 같은 것들이 航空機生産에 크게 이바지 하였음은 大善特筆할 만한 사실이였다. 一般大衆은 廢品回收에서부터 현재

使用中인 알미늄製品의 自進獻納에 積極協力하였다.

비바부트크卿은 航空機生産에 起用한 刺鎗首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卿에게는 가장 곤란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卓越한 資質을 充分히 發揮하므로써 國家에 奉仕하였다. 나는 第一次大戰當時의 경험을 기초로해서 空軍省에서 航空機設計와 生産을 메어내서 別個로 이것을 專擔하는 省을 設置할 것을 構想해 왔다. 비바부트크卿은 처음에 航空機生産相으로 入閣할 것을 꺼려하였다. 그의 任務에는 여러가지 抵抗이 따랐다. 그러나 그는 英國의 存亡이 航空機生産如何에 달려 있다고 確信하여 卿의 精力의 인 환공과 그의手腕에 期待하였던 것이다」라고.

그는 데일리·익스프레스 新聞社長으로 있던 立志傳中의 人物로서 聲望 위에서다 다이프를 眞만큼 精力의 으로 일을 하였다. 이리하여 數週日도 못가지 航空機 生産에 換總士 養成이 따르지 못할 형편으로까지 만들었다.

## 戰鬪機 優先主義

비행기의 設計 및 生産을 航空機生産省에게 맡긴 英空軍省의 不滿은 컸다. 그러나 그와같은 不滿은 空軍最高首腦 가운데서 公的인 면에서 反映시키지 않은 人物이 있었다는 것은 英國으로서 多幸한 일이었다. 그 사람은 다들아니고 윌푸렛드·후리벤大將으로서 그는 戰前의 풍부한 경험을 土產로 하여 폭격기, 전투기, 연습기의 연구 개발 및 生産方式을 이룩해 놓았다.

이와같은 基本的인 路線의 設定이 없었다면 아무리 航空機生産省을 新設하였다 하더라도 英國을 救한 戰機生産은 時間 競争面에서 敗北했을 것이다.

空軍省의 首腦는 別個로 하더라도 第一線 指揮官들은 드디어 이 革命에 贊意를 表하였다.

비바부트크卿은 戰鬪機의 修理 및 生産優先主義를 取하였는데 第一線 指揮官들은 戰鬪機를 必要로 하였으며 그와같은 要求는 能히 充足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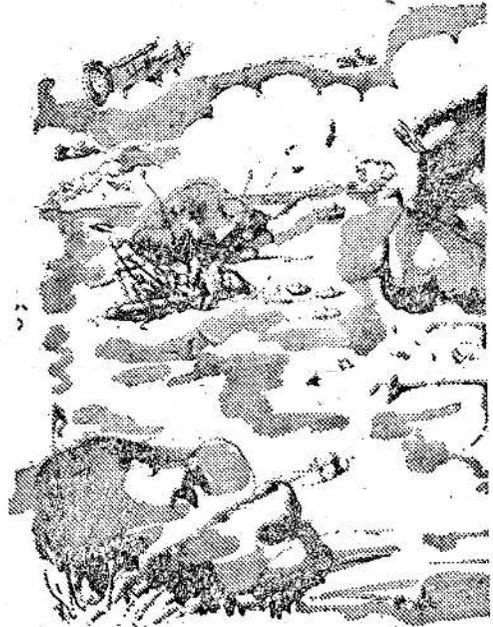
戰鬪機 優先方針은 必然의 結果로 다 른 機種 生産을 壓迫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戰鬪機에 依한 이 싸움에 勝利하지 못한다면 목적기를 사용할 만 한 戰鬪는 있을수도 없다는 사실을連日의 激甚한 航空戰을 통해서 痛感하였던 것이다.

비바부트크卿의 활약을 계임스二世 때 海相을 歷任한 사뮤엘·퍼프스의 活躍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다. 퍼프스는 가난한 양복집 아들로 태어나 二百年前 英國海軍 再建에 성공하여 英國의 危機를 救하였던 것이다. 그리 하여 비바부트크를 二十世紀의 퍼프스라고 推仰하는 것이다.

**戰鬪中の 休息**

戰鬪機隊司令官인 다투딩大將은 실로 몸이 좋아 붙는것 같은 錯雜한 心境으로 날을 보냈다. 佛蘭西가 降伏한 以上 獨逸空軍의 攻擊이 英國本土를 目標로 한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었다.

英國戰鬪機隊는 당켈크 撤收作戰과 불란서 援助로 해서 戰力이 줄어들 數的으로는 독일 공력에 比해서 劣勢를



免치 못했다.

오늘 攻擊해 올지 來日 侵攻해 올지 英國民들은 독일空軍의 來襲을 不安에 찬 가운데 待期하고 있었다.

이때 독일軍 自身이 休養과 部隊再編成 그리고 여기에 따른 展開을 爲한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것은 英國으로서도 天祐助가 아닐 수 없었다.

더우이 다투딩大將에게는 커다란 救接이 되었다. 당켈크에서 七月十日에 이르는 동안의 比較的 緩慢한 戰局의 轉移, 그리고 七月十日의 攻擊開始부터 本格的 來襲이 시작된 八月十三일까지의 小康狀態等이 어느 意味에서 이 期間의 空中戰이 英戰鬪機隊로서는 絶好的 實務教育이었던 것이다.

戰鬪機로서의 空中戰에서는 敵機를 自國領土에 끌어 들여 싸우는 것과 敵地에 出擊해서 싸우는 것과는 質的으로 틀리는 것이다. 그 당시의 空中戰은 단거리라도 自國領土 上空에서는 마음껏 활약하다가 敵領土 上空에서는 彈丸의 補給 燃料補給같은 것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操縱士를 交替시키고 새로 航空機를 投入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設使 被彈하였다 하더라도 操縱士만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落下傘을 타고 歸還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本格的 空中戰을 隨伴하지 않은 小規模의 前哨戰에서 英國 空軍은 이와 같이 本國領土 上空에서의 戰鬪 利益을 體得하였다. 그럼으로서 數의 劣

勢도 그다지 문제꺼리가 안 되었으며 오히려 自己들의 力量에 對한 自信을 더욱 굳게 하였다.

最前線에서 머릿진 곳에서는 空襲 警報의 사이렌도 듣지 못하고 敵機來襲의 不安과는 별도로 現實의 結果로는 戰爭을 緊迫하게 느끼지 않는 하루하루가 繼續되었다.

이와같은 小康狀態는 ฮิต틀러가 英國과의 講和를 隱密히 遂行하고 있었던데 原因이 있었다. 勿論 講和라고고는 하더라도 ฮิต틀러가 構想한 何等한 條件을 恣意로 提示해서 即 英國本土 攻擊이라는 出血을 하지 않고서 次第히 戰爭을 終結시키려는 策정이 있었던 것이다.

**ฮิต틀러의 至上命令**

七月十九日 ฮิต틀러는 軍首腦의 세로운 人事를 發表하였다. 即 피링은 共和國元帥로 쾨셀링크와 스페레는 陸軍元帥로 各共 昇進하였다.

이 三名은 戰場에서 눈부신 戰功을 樹立하는 것으로서 ฮิต틀러가 이 昇進을 통해서 그들에게 表示한 期待에 報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制空權의 完全確保」 이것은 獨逸軍 首腦에게 賦與한 모든 期待를 要約한 말이었다.

그러나 피링元帥는 「우리 優秀한 독일공군은 九月로 豫定된 英國本土 上陸까지의 이 目的을 達成할 것이다」라고 자기만이 아닌 단단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육군은 이 해군의 第一線 指揮官들까지 피링의 策심 좋은 信念에는 公公然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독일 해군은 空軍보다는 現實的이

며誇張의인 것도 아니며 당컨크以來의作戰遲延의航空戰에서 早急히 승리를獲得할機會을 저게하고 있음을 認識하고 보다 長期에 걸친作戰準備을 全力을 기울여 진행시키고 있었다.

海軍의 레나提督은「英國本土 上陸作戰은一九四一年五月까지 延期해야 될 것이다」고 히틀러에게 進言하였다. 레나提督은 특히 九月十五日에 英國本土 上陸作戰을 政行하기 爲해서는 八月中에 制空權을 確保해 두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強調하였다. 그리고 七月末日에 히틀러는一九四一年에 있어서 새로운 可能性을 考慮한 끝에 後日 독일 敗戰의 原因이 된 重大한 決定을 내렸던 것이다.

「九月十五日를 英國本土 上陸作戰의 發動日로서 定하고 모든 준비를 진행하라」 이와같은 히틀러의 至上命令 이 드디어 發せ졌다. 이와같이 해서 독일공군은 海洋의 覇者인 英國에 對해서 空戰史上 가장 大膽하고도 當당한 任務가 賦與되었던 것이다.

독일공군은 비행기도 파이롯트도 모두 渡洋作戰用으로는 設計도 訓練도 되어 있지 않은채로 英國戰爭에 突入하게 된 것이다. 이 뉴스를 들었을 때 獨逸軍의 高位層 將星들 사이에는 커다란 不安이 湧起처럼 번져갔다. 그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것은 사람 은 엘하르트·미루히 陸軍元帥였던 것이다.

그는 戰爭이 시작되기 一年前에 英國空軍을 觀察하고 그 優秀性을 손수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에게 독일공군은 英國에 對한 戰爭에 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고하고 있었다. 미루히 독일공군이 英國에 對한 공격 준비가 完了되는 것은 빨라도一九四二年頃이 될 것이다는 것이 미루히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렇면 미루히元帥도 歐羅巴大陸에서의 電擊戰이 눈부신 成功을 거두자 히틀러에게 지체 말고 英國攻擊으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기 에 이르렀다.

다음 불탄 總練士團

미루히元帥는 독일공군의 준비부족을 잘 알면서도 強硬히 주장하였다. 즉 英國의 態勢를 整備하기 전에 독일공군은 공격을 斷行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왕에 미루히가 「플렌드를 공격한다면 英國은 參戰할 것이다」라고 警告하였을 때도 커를 기울이지 않았던 히틀러는 이번에도 미루히의 忠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第一次大戰의 武功을 세웠다는 미루히元帥 다음에 섰고 있었던 불안은 영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젊은 파이롯트들에게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 만만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또한 실제 그 당시는 아직도 독일공군의 黃金時代이기도 하였다. 독일공군의 파이롯트들은 不屈의 戰士들이었다. 그들은 英國空軍의 豫備戰術機隊보다 훨씬 規律있는 軍人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저희들끼리 鋼鐵같이 세고 굳세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融通性 없는 軍人氣質에 徹해 있었기 때문에 思考方式에 있어서 柔軟성이 없는 英國의 備豫隊 士官들의 머리를 깎

게 하고 軍人精神과는 兩立할 것 같지 않은 自由主義 信奉者들과 맞부딪쳤을 때는 不利한 立場에서 있었다. 이 사실은 戰爭에서 生存한 독일인도 아직껏 충분히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英國戰爭이 開始되었을 때는 독일공군의 士氣는 絶頂에 達하고 있었다.

獨逸空軍의 形成期

독일공군이 數년에 걸쳐 秘密裡에 訓練을 받고 이와같은 사실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게 적당히 어물어물 넘기느라고 애를 쓴 독일의 勞苦는 結實되었다고 할만 하였다.

英國에서 數百萬의 失業者를 屢해 문제協定에의 破滅의 길을 더듬고 있을 때 독일은 將來의 世界征服을 꿈꾸어 着着空軍育成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불탄서, 화반, 루셈블그, 白耳義, 놀웨이, 丁抹에서 方向을 轉換하여 英國에 던져진 독일공군은 작은母體에서 二十年이라는 歲月에 걸쳐 育成된 것이었다. 지난날의 이와같은 實例는 오늘날에도 一部 사람들에게 독일의 再軍備에 不安을 느끼게 하는 原因이 되고 있었다. 一九一九年에 調印된 벨사이유條約에 依해서 第一次大戰時의 독일 공군부대는 解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벨사이유條約은 독일 民間航空의 將來까지는 規制하지 않았다. 그 당시 독일 항공의 장래에 對한 聯合國의 唯一의 拒否權은 航空用엔진, 航空機의 輸入 및 製作을 不過六個月間 拘束하는 條項뿐이었다.

이와같은 條項에 依해 強制된 六個月間의 沈黙은 독일의 航空機工業에서 航空機製作을 開始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障害도 되지 않았다.

그들 民間航空의 名稱은 도루니에, 호크·올부, 하이켈, 옹가르스, 멧사 슈미트 등 흡사히一九四〇년에 英國과 因緣이 깊게된 독일 軍用機 名簿를 보는 것 처럼 느껴져 있었다. 특히 멧사 슈미트는 유명한 벨사이유條約에 後 同社는 스포츠용 特種機 製作에 專心하였다. 이것은一九二五年에 出現한 저 유명한 멧사 슈미트-109型 전투기의 母體가 되었다. 독일공군은 장래의 비약을 은밀히 기약하던 第一步를 내디디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휘둘러 들어간 英國은 벨사이유條約 締結直後에 시작된 이와같은 事態發展에 전혀 注意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한 例로서 一見해서 別로 의심할 餘地가 없었던 독일 國民航空俱樂部의 結成이 그것이다. 이 구락부는條約에 署名한 잉크로 말리지 않은 불과 六個月後에 레사大尉에 依해서 創設된 것이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二十年後 레사大尉는 大將이 되고 쾨트川, 사제크스州를 휩쓴 켈펠링크 麾下의 第二航空機隊를 指揮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政權을 잡기까지의 十三年 동안 航空機工業의 專門家들은 航空機 生産을 계속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指導하는 나치스黨은 이 武器로서 歐羅巴를 自己들 意志에 屈服시키려 하였다.

徐徐히 살아 올러온 獨逸航空機專門家들의 勞苦는 이내 獨逸空軍力을 急進의으로 발전시켰다. 이와같은

戰力으로 第一次大戰의 승리를 힘의立場에서 내리다 보려고 한 나치의政權의 思考方式은 確實히 先見之明이 있었다고 하겠다.

英國戰爭이 개시되기 六年前 專門家들은 잇들러와 피링에게 「營業中の事業」으로서의 空軍을 提供한 것이었다.

그 당시 아직도 民間航空會社 社長이었던 미루히元帥가 航空省 次官에 就任함으로써 民間航空의 統合은 더욱 促進되었다.

이같은 統合에서 이루어진 위협력 기력이 없는 막대한 자식이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英國이 對獨宣戰을 布告하기 五年前 民間航空機에는 後日 英國戰爭 開戰初期에 사용되었던 型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最初의 것으로는 옹카-스 52型 爆擊機였다. 스페인 戰爭에서 活躍한 바 있는 이 옹카-스 52型 폭격기는 萬能輸送機로서 登揚하였다.

옹카-스 52型機는 제1時代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骨董品에 屬하는 비행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와같은 케케묵은 비행기일 망정 이제까지 없었던 高度한 機

動性を 發揮했던 것이다.

### 航空指揮官들의 苦惱

一九三五年 即 英國의 다투닝元帥가 戰團機隊司令部로서 알라딘 새로운 防衛組織을 만들 것을 命받기 一年前에 獨逸空軍은 公公然히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다.

獨逸空軍司令部에는 헤루만, 피링이 就任하였다.

스포르츠機를 生産하고 있던 뱃사 슈미트會社는 뱃사 슈미트 109型戰團機를 獨逸空軍에 提供하였다. 바야흐로 公公然하게 그 모습을 나타

내면 독일공군은 世界에 그 검은 그림자를 提示하여 讚嘆되고 드디어 히틀러가 바란 바와 같이 畏怖의 對象이 되었다.

그리고 독일공군의 能力은 스페인 內亂의 피터린내 나는 싸움터에서 처음으로 登揚하는 開牛師와도 같이 實地試驗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英國戰爭이 開始되기 四年前에 獨逸의 스페인 內亂에 介入한 것은 우리가 지금 論述하고 있는 이야기기에 크게 影響을 준 것이다.

스즈카가 急降下 爆擊機가 空地協同作戰을 實行에 옮긴 것은 이 스페인 內亂에서였다.

이것은 그뒤 一九四〇年五月 卅三江에 沿한 佛軍陣地를 攻擊하여 폰·쿠라이스트로 하여금 全地上軍을 渡河作戰에 성공시킨 急降下 爆擊機에 의한 空軍攻擊의 豫行 練習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었다.

卅三江 渡河作戰이 있은지 二個月 後 獨逸軍은 이와같은 싸움을 英國과도 最後까지 貫徹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독일은 英佛海峽을 다만 卅三江을 넘긴 것에 不過하다고 생각하는 過誤를 犯한 것이다.

英國으로서서는 다행히도 獨逸의 急降下 爆擊機나 高速中型 爆擊機의 成功이 氣象에 따라는 훌륭한 秘密武器와 함께 戰團機로서 沈死의 凶防空을 좁은 國土위에 둘러 칠 수 있는 성나라 英國에는 通用되지 않았다.

英國의 이變化 많은 天候에 對해서 獨逸空軍은 거의 經驗한 바가 없으며 訓練도 또한 받은 바가 없었다.

그 德分에 英國空軍은 七月 한달을

## 오늘의 우리 政府

이런에 어떻게 改編되었나

### 柳 根 國

#### 一、序 論

우리나라 政府機構의 組織은 本是 오래 前에 組織된 機構를 必要할 때마다 彌縫策으로 姑息의인 機構

改編을 하였기 때문에 非科學的이며 不合理한 點이 許多하여 行政能率의 鈍化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行政國家乃至 職能國家의 具顯에 있어 많은 支障이 있었다. 卽 執行機能과 企劃機能이 分離되어 있지 않

고 있어 行政機構 全般에 걸쳐 綜合的인 企劃과 그 結果의 檢討 및 調整機能等이 缺如되고 있었으며 編制가 一般의 職能에 따라 合理的으로 組織되지 않았었다. 또 同質的인 事務機能이 各機關에 分散管理되고 있었으며 機關의 設置目的이 達成되어 더 이상 存續할 必要性이 없는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特別地方 行政機關과 普通地方 行政機關인 道와 事務가 重複되거나 그로부터 分離한 特別한 必要性이 없는 境遇가 있으며 過度한 中

央集權現象等이 概括的인 不合理點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不合理한 政府機構를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組織으로 改編하여 行政의 民主化와 能率의 向上을 期하도록 할 수 없느냐도 革命政府의 가장 急先務라 아니할 수 없었다.

#### 二、機構改編의 指導理念

政府에 있어서는 今般 政府機構를 全面的으로 檢討分析하여 再調整하였는바 이 改編에 있어서는 本原則과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舊機構의 不合理性을 矯正하되 最大限 舊機構를 活用하였으며 可能限 課單位로 調整하는 데 力썼다.

二、企劃과 執行의 機能을 明確히 分離하여 政策과 企劃을 調整評價할 機關을 設置하도록 하였다.

三、統制機能을 爲主로 하는 行政業務는 可及的 獨自性을 살릴 수 있도록 制度化 하였다.

四、部署의 組織은 機能 및 管理過程과 業務量을 充分히 勘案하여 合理的으로 改編하되 繼續存置의 必要性이 적은 것은 廢合하도록 하였다.

五、行政의 分散管理로서 生하는 重複等에 起因되는 非能率性을 止揚하고 同質的인 事務는 統合하는 反面에 지나치게 集中된 部門은 이를 分散 調整하였다.

六、企業官署는 企業의 管理面을 置重하여 體制를 갖추도록 改編하였다.

七、國土建設事業을 強力히 推進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그에 對한 擔當部署를 強化하였다.

八、道와 서울特別市의 行政機能과 重複되는 特別地方官署의 機構는 이를 統合하고 從來 中央官署에 集中되어 있던 權限을 大體地方에 移讓하므로써 道知事責任下에 地方에 強力한 綜合行政을 遂行할 수 있도록 體制를 마련하였다.

三、機構改編의 內容

今般 改編된 政府機構의 部署를 中心으로 簡單히 그 內容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一、企劃調整官

舊行政機構上에는 巨大한 國家行政을 遂行함에 있어 綜合的인 計劃의 樹立과 그 調整 및 그 執行에 있어 結果를 檢討하는 機能에 對한 配慮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是正하여 各部와 道 및 서울特別市에 企劃調整官을 두도록 하였다.

二、法制處의 新設

從前의 內閣事務處에 法制局을 두어 法令案, 條約案等을 草案審議하는 事務를 擔當케 하고 있었으나 法制事務의 獨自性과 重要性에 비추어 獨立된 機構를 마련함이 必要하였으므로 法制處를 新設하였다.

三、經濟企劃院에 評價分析室 新設

企劃된 政策의 執行을 評價分析하는 機能은 企劃擔當部署에서 獨立하여야 될 것이므로 이를 是正하기 爲하여 各局에서 獨立한 評價分析室을 新設하였다.

四、調達廳의 新設

政府에서는 莫大한 物資 및 用役購得에 經費가 所要되는 바 이를 各機關에서 散漫의이고 非能率的인 方法으로 取扱하고 있어 이를 是正하기 爲하여 內閣首班所屬下에 調達廳을 新設하였다.

五、中央公務員 敎育院 新設

間斷없이 發展向上하는 管理技術에 公務員을 對應시키려면 이들이에게 不斷한 訓練을 課하여 質의 向上을 圖謀하여야 된으므로 中央公務員 敎育院을 新設하였다.

六、外務部의 情報局 新設

現在 外務部에 情報文化課가 있으나 外交에 關한 國內外的인 輿論 및 一般國際情勢의 調査研究이 必要한 資料의 蒐集과 分析等 機能의 重要性에 비추어 局으로 擴張強化하였다.

七、法務部에 出入國管理課 新設

外務部에서 管掌하고 있는 出入國管理事務는 그 性質上 法的인 規制가 爲主임으로 法務部로 移管하였음.

八、專賣廳에 企業會計課 新設

專賣廳은 事業官廳으로서 企業의 管理方式에 依한 運營의 合理化를 期할뿐만 아니라 將次 公社制度로 發展케 할 것을豫想하여 企業會計課의 研究指導를 主管한 企業會計課을 新設하였다.

九、商工部에 標準局의 新設

國內生産品의 質의 向上을 期하기 爲하여 外國으로서의 標準局을 新設하였다.

一〇、海務廳의 解體

海務廳은 本是 異質的인 事務 卽 水產海運, 港灣施設, 海洋警備等을 綜合管掌하고 있는 데다가 商工部의 外廳으로 存在하기 때문에 商工部에 重視하게 되어 結局 自然沈滯을 가져오고 있어 水産行政의 正常的인 遂行을 爲하여 海務廳을 解體하고 水産은 農林部로, 海運은 交通部로, 港灣施設은 國土建設廳으로, 海洋警備業務는 內務部에 各기 移管하도록 하였다.

一一、國土建設廳의 強化擴張

國土建設事業의 重要性과 合理化를 爲하여 內務部의 所管에 屬하고 있던 土木局과 海務廳의 港灣施設局을 綜合하여 國土建設廳을 強化擴張하였다.

一二、交通部에 觀光公路局 新設

觀光과 公路事業의 重要性에 비추어 觀光公路局을 新設하였다. 一三、遞信部에 電波管理局 新設

안 戰鬪機에 依한 防空이라는 海軍國으로서는 새로운 戰鬪訓練에 沒頭한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英國으로서는 그 以上の 幸運이 없었던 것이다.

事態로 말하면 이제까지 經驗하지 못했던 일이며 따라서 劇場舞臺에서 의 練習과 같이 基本에는 실패 있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하나는 防空戰鬪機隊 指揮官을 金방 디엔만에 파르렸다.

아득한 上空은 戰鬪機 掩護아래 득 일 폭격기 大編隊가 英海峽을 건너 을 때 일같은 大編隊의 目的은 船舶을 攻擊함과 더불어 船舶을 掩護하고 있는 英國戰鬪機를 擊墜하려는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英國側의 디엔

다는 敵의 攻擊에 對하여 英國本土의 다른 防衛를 疎忽히 하는 限이 있더라도 全力을 集中해서 對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航空評議會에 依해서 戰鬪機部隊에 賦課된 任務가 護送船團의 安全한 通行 保障이나 護衛가 아니고 航空機工場의 優先防衛에 있을을 생각하여 戰鬪機나 操縱士를 海峽上空 戰場에 내보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七月十日에 이르러는 며칠 동안에 다 우령元帥가 指揮하는 防空戰鬪機隊는 戰鬪機 十五臺, 파르이트 九名을 잃었다.

다우령元帥는 그의 指揮下에 있는 戰鬪機가 英本土內에 들어온 敵機를 攻擊한다고 하는 本來의 任務가 시작되기 前에는 조금씩이라도 消耗되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특히공군의 大編隊 來襲을 앞두고 너무나도 劣勢인 그것도 三臺程度밖

電務局에서 電波管理業務를 掌하고 있었으나 電波管理業務는 國際機構와도 密接한 關係가 아니라 電波國末業務는 國家的으로 重要하므로 遞信部 外局으로 電波管理局를 新設하였다.

一四、廳에 次長制

各廳의 事務量으로 보아 次長을 두도록 하였다.

十五、道の 機構改編

中央行政機關의 機構改編과 數個의 特別地方行政機關의 道에 統合하는 등으로 道の 機構을 다음과 같이 改編하였다.

1. 建設局 新設

建設事業의 重要性에 비추어 一線機關인 道機構을 強化하여야 될 것이므로 建設局을 新設하였다.

2. 保健社會局의 新設

國民保健向上과 防疫、衛生、失業對策等의 重要性에鑑하여 保

3. 健社會局을 新設하였다.

從前의 自治機關이었던 道、市、郡에 統合하여 教育區를 道、市、郡에 統合하여 教育理念과 教育行政 能率을 共히 具顯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教育局을 新設하였다.

4. 出納監査室 新設

經理執行事務의 合理化를 圖謀하기 위하여 道知事 直屬下에 出納監査室을 新設하였다.

5. 道農事院

農事院 直轄下에 있었던 道農事院을 道에 統合하여 農事院業務의 特殊性에 비추어 道の 外廳으로 하도록 하였다.

6. 公報室 新設

公報行政의 重要性에鑑하여 內務局에 所屬하였던 公報課를 道知事 直屬下에 公報室을 두고 이

7. 水産課 新設

海務廳에 水産行政業務가 道에 統合되므로 水産課를 新設하였다.

四、結 論

大略 叙上과 같은 政府機構改編으로 一段落을 보았는데 都合 經濟企劃院、原子力院、農事院의 三院 十部 二部二處 四廳이 된 셈이다. 이것으로 우리 政府機構는 大體的으로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組織의 基礎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으나 機構의 組織은 間斷없이 發展되어 가는 時代에 適應하도록 恒常 檢討 調整 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政府 機構도 將次 더욱 改善되어 가장 合理的이고 能率의인 體制를 갖추어 不遠 國家目的의 達成에 萬全을 期하게 될 것을 바라지 않는 바이다. (筆者·內閣事務廳 行政管理局長)

에는 出隊命令이 내리지 않은 것은 第十一航空隊 士氣에 그대로 좋지 못한 결과를 주고 있었다.

海上에서 獨逸空軍에 勇감히 挑戰하고 英國本土 上空에서 本來의 力量을 충분히 발휘하기 전에 커다란 損害를 입는다는 것은 決코 다루일 元帥가 意圖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當時의 狀況에서 볼 때 友軍機 一臺에 對하여 독일의 멧사슈미트 戰機 101型 九臺가 뒤를 쫓는 形便에서는 英國空軍 操縱士들은 이와 같은 司令部의 見解에 不滿이 많았다.

佛蘭西에서 全滅 一步直前의 戰鬪

機部隊을 救한 다루일 元帥는 비바루트크 生産相의 協力아래 防空戰鬪機隊의 再建을 서둘러 航空機와 操縱士의 補充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루일 元帥는 航空機와 操縱士의 補充、各部隊의 再建 및 海峽 上空에서의 싸움으로 損失을 입지 않도록 더욱 努力해야 될 것이라고 決心하였다.

公理의 誤算

戰鬪가 이미 開始된 이 段階에서 兵力을 아끼는 方針을 내 진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無理는 아니다.

△61年度 노벨文學 受賞者▽  
이보·안드리치와  
작품 「드리나江의 다리」

★人間 안드리치

이보·안드리치(當六十九歲)가 最初로 作品을 쓰기 시작한 것은 監獄속에서였다. 그는 처음에 詩를 썼는데 一九一九년에 「다리 위에서」라는 散文詩를 發表했다. 이년 노벨文學 賞을 받은 作品도 「드리나江의 다리」였는데 이보·안드리치는 「다리」와는 因緣이 깊은 모양이다. 그로 하여금 일약 世界的으로 이름을 알리게 한 作品이 다름아닌 「드리나江의 다리」라는 敘事詩의 迫力이 넘치는 三部作인 데 이 三部作 小説이 發表된 것은 二次大戰후였다. 第一部가 「젊은 女人」 第二部가 「트라보니크 年代記」 第三部가 「드리나江의 다리」이다. 이中 「트라보니크」는 바로 이보·안드리치의 故郷이다.

六〇年度の 노벨文學 受賞者도 外交官이었던 佛蘭西의 詩人 알베스·레제였는데 이보·안드리치도 유고의 外交官이었다. 外交官치고 어떠한 著述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 없지마는 文學家가 많은 것도 하나의 傾向이랄 수 있다. 그가 投獄된 原因은 第一次大戰의 導火線이 된 보스니아의 大學生 가브리로·프린시프와 親했다는 것인데 一八九二年 세루비아와 보스니아 國境地帶에서 出生한 안드리치는 前記한 보스니아의 大學生이 一九一四年 사리에

英國이 攻擊으로 나을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다.

만약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英國空軍이 그 全力을 投入해서 勝敗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英國國民의 將來運命을 전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의 레이더(電波探知機)는 그야말로 初步의 發展段階에 있었다. 戰鬪機가 敵의 接近에서 얼마만큼 先手를 쓸 수 있는 지 또는 어느 정도의 餘裕를 가질 수 있는 지 그것을 指示하거나 알아낼 수 있을 만한 確實性은 도저히 없었다. 어쨌든 그 당시 레이더는 低空을 비행하는 비행기에는 아무 役割도 못했으며 高空을 날아는 비행기라 한 자라도 正確한 算出은 不可能한 것이었다.

레이더는 그 후의 눈부신 技術的 進歩로 오늘날에는 國民學校 兒童들까지도 航空機의 航路管制나 警報 또는 人工衛星 등을 觀測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그 당시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러나 하리케인이나 스프리트·파이아, 네파이인트, 부렌하임 같은 英國 戰鬪機를 타고 싸운 파이로트들은 우주 끝까지 縱橫無盡으로 달리고 있는今日の 後繼者들의 立場에서 볼 때 그야말로 팔자음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의 하리케인도 스프리트·파이아도 훌륭한 비행기였다. 그런데 이 같은 비행기들이 英國戰爭이 開始되었을 때 가지만 해도 아지기도 발전단계에 있었다. 이 비행기들이 對獨戰에서 보여준 效果的인 활약은 말할 것도 없이 製作當初부터 기을어진 많은 사람들의 精誠의

結晶인 것이다.

나치 독일의 전투기와 英國의 戰鬪機의 相異點을 윈스턴·처칠卿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투기의 性能으로서서는彼此 相異點이 거의 없었다. 독일機는 速度와 上昇性能이 優越했고 英國機는 行動性能과 武裝에 있어서 優秀했다.』

그러나 이 거의 문제가 안되는 相異點이 空中에서는 生死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作戰準備와 待機

八月로 접어들었다. 英本土攻擊準備命令이 내린 독일공군은 그날이 오기만 待機하고 있었다.

『天候가 順調로우면 四日後에는 攻擊을 開始하라!』 퍼링元帥는 八月六日에 이렇게 命令하였다.

八月十四일까지 모든 英國空軍 戰鬪機를 英國南部에서 驅逐하라는 嚴命이 케셀링크와 스파베에게 내려졌다.

그리고 그 다음은 폭격기 부대의 차례로 그들은 一連의 空襲으로 레이더基地, 飛行場, 港灣, 航空廠을 地上에서 抹殺시키라는 것이었다.

호린 날개가 채워져서 독일공군의 全面的 攻擊은 妨害를 받았는데 그 때도 八月八日은 午前九時부터 午後五時까지 連發의 熾烈한 空襲이 있었으며 最初의 날이었다.

八月 한달 동안 英國空軍의 操縱士들은 하루에 四·五回의 敵機 激擊을 爲해서 離陸하였다. 독일공군이 豪言한 大學空襲日까지는 앞으로 五日밖에 안남았으며 敵의 攻擊은 날로 激

烈해 갔다. 英國戰鬪機隊司令部는 暑熱 사이도 주저 않는 緊迫한 戰局에 戰鬪機隊가 어느 정도 전되어 낼 것인가 하는 疑問을 갖기 시작하였다.

다우링元帥는 四十八個中隊를 全國에 割當配置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독일군의 上陸 豫想地區 防空을 맡고 있던 第十一航空隊에도 불과 스프리트·파이아 六中隊, 하리케인 十三中隊 밖에 없었다.

대낮에는 約四百臺의 독일 폭격기와 전투기가 도마해峽 上空에서 輸送船團을 攻擊하였다. 그뿐 아니라 날이 밝기 전에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敵은 快速魚雷艇으로 輸送船團에 攻擊을 加해왔으나 被害는 輕微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공군의 목적은 船船을 沈沒시키는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 海上에서의 空中戰에 英國戰鬪機들을 誘引해서 壓倒的인 數의 優勢로 이를 무찌르려는 데 있었다.

그날 하루 동안에 英國空軍은 敵機 二十九臺를 擊墜했으며 我方은 十九臺를 잃어버렸다. 독일공군은 그들이 올린 戰果에 比해서 너무나 高價한 代價를 支拂하였다. 그러나 英國空軍에 있어 十九臺의 損失은 어지간히 중대한 문제였다.

그 당시 再生修理機와 新造機를 합쳐서 英國航空工業이 提供할 수 있는 臺數는 하루에 十八臺였기 때문이다.

돈과, 自由를 爲한 英國의 善意만으로 英國을 防衛할 수 있었다면 아무런 不安도 없었을 것이다.

英國에서 戰鬪機 生産을 爲한 募金은 龍大하게 蓄積되었으며 돈 있는 사

보에서 프란츠·페르디난드大王 暗殺事件에 加擔하여 一九一四年 投獄된 후 第一次大戰이 끝날 때까지 監獄살이를 했던 것이다.

그는 成年期의 大部分을 유교의 公務員으로 보냈다. 그의 外交官으로서의 經歷도 多彩로 하여 一九四一年 獄를 더가 나치軍으로 하여금 유교를 優犯케한 卽前까지 나치獨逸駐在을 公使로서 있었으며 로마, 제네바, 마드리드, 柏林 等지에서 外交官生活를 하였다.

유교에서 이미 이름이 난 畫家 미리카가 夫人이 그의 夫人이다. 미리카가



이브·안드릿지

人은 유교에서 第一人者로 일컫진 舞臺裝置家인 同時에 衣裳디자이너이기도 하다. 그래서 안드릿지의 居室에는 夫人의 그림으로 壁이 장식되어 있다 고 한다.

안드릿지는 조용하고 謙虛한 性格의 所有者라고 하며 現在 故鄉인 로스니아 出身의 下院議員으로서 誠實하게 유교會에 登壇하고 있으며 趣味로는 散策과 이웃사람들의 이야기 들리고 그것을 作品속에 濃烈 登場시킨다고 한다.

★ 作品 드러나江의 다리

大多數의 文藝批評家들은 안드릿지

랄들은 앞을 다투어 獻金하였다. 그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힘자라는  
데까지 協力하였다.

카나다 胎生으로 王室御用 雜貨商을  
하고 있던 가필드·웨스턴 같은 사람  
은 八月八日에 잃어버린 스피드·화  
이아機를 爲해서 十萬파운드를 快擲  
하였다.

이런 형편이니 돈은 충분하였다.  
一九四〇年頃の 戰鬪機一臺의 價格  
은 오늘날 값으로 볼 때는 굉장한  
價格이었으니 一臺當 七千五百파운드  
였다.

수많은 獻金과 獻納品, 그 가운데  
는 자마리카島에서 보내온 배양도들  
이 있었는데 비바부르크供給相은 한  
사람도 빠트리지 않고 直接 感謝狀을  
보냈다. 그뿐 아니라 신문에는 公開  
感謝文이 掲載되었다.

그러나 참으로 貴重하였던 것은 世  
界到處에서 보내는 金品 그自體가 아  
니고 그것들을 보낸 사람들의 勇氣였  
다.

八月六日 英國空軍의 士氣는 衝天  
하고 있었다. 독일군의 압도적인 數  
의 優勢에도 不拘하고 용맹스럽게 싸  
워 독일공군의 損害는 상당한 것이었  
다.

英國空軍省은 意氣揚揚하게 十二臺  
의 하리케인機가 敵의 옹카스 87型五  
十臺와 옹카스 88型五十臺와 맞싸웠  
다고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일공군은 오늘 英本土 近方 空  
中戰의 시작된 이래 最大의 손해를  
입었으며 우리 英國空軍은 三十六  
臺의 전투기와 二十四臺의 敵 폭격  
기를 擊墜하였다.』

그러나 이 數字는 正確한 것이 아

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世論을 欺瞞  
하려는 意思는 없었던 것이다. 그때  
만 해도 戰果確認은 파이르트들의 歸  
還報告로 算出되었던 것이다.

한편 數字를 알게 된 것은 戰後 독  
일공군의 記錄文書가 發見되어서 비  
로소 判明되었다.

앞에 말한 戰鬪에서 독일공군은 스  
피드·화이아 三十六臺를 포함하는 四  
十六臺의 영구기를 겨주한 것으로 되  
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도 승리를  
祝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이다.

『독일의 내승리!』 이러한 방송을  
독일국민은 들었으며 英國國民들은 이  
戰鬪의 空中戰으로 決定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 本格的 威脅

이와 같은 神秘的인 豫言은 드디어  
的中하였다. 그러나 이 眞實을 받아  
드림에 있어서 이제서 독일이 制空權  
을 確保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잊  
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은 英國戰鬪機部隊가 存在하는  
限 上陸作戰을 敢行한다면 반드시 英  
國海軍으로 부터 強大한 反擊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음 二日間은 비교적 平靜하였다.

英國空軍은 八月八일에 善戰한 部隊  
에 보내는 祝賀편지로 해서 기쁨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第十一航空隊基  
地에서는 자기를 中隊 안에서 계속 熟  
練 파이프트들이 흠어들어 가는 것에  
점차로 憂慮의 빛이 돌아왔다.

八月十二日, 天候의 好轉과 더불어  
다우딩元帥의 準備期間 第二幕은 끝  
났다. 다우딩元帥의 防衛陣에 對하여

第一擊이 加해졌으나 元帥는 이 攻擊  
에 끈기 있게 전디어 戰力 保全에 힘  
써 왔던 것이다.

독일공군은 메이다 警報網과 켄트  
州 海岸의 만스톤, 호킨지, 림폰 등  
地에 있는 基地에 殺到하여 왔다.

북치포드에서 移動해 온 第六十  
五中隊는 독일공군이 拂은 百七十  
五發의 爆彈이 落下하기 시작했을 때  
는 아직도 地上에 머물러 있었다. 그  
러나 스피드·화이아戰鬪機는 비오듯  
하는 폭격 밑에서 編隊離陸을 試圖하  
였다.

이와 같은 例는 最前線 基地 攻擊  
에 對한 독일의 弱點을 드러내는 適  
例였던 것이다.

八月十二日 포츠마스軍港과 메이다  
基地가 敵 攻擊의 主目標로 되었다.

市民들이 聖書를 읽으며 祈禱하고 있  
을 때 이며 海軍兵營이나 艦艇에서  
『벤슨提督의 피』라는 葡萄酒를 水兵들  
이 마시고 있을 때 英國戰爭에서 가  
장 可恐한 敵인인 독일공군의 來襲警報  
가 울려 퍼진 것이었다.

## 빛지고 읊지 말고

## 한 문 두 문 저 축 하자

(저축표어)

의 作品 가운데에서 「드리나江의 다  
리」를 가장 優秀한 作品으로 評價해  
왔다. 六一年度 노벨文學賞의 對象으  
로 안드리치가 物望에 오른 것도 이  
作品을 通해서였다. 「드리나江의 다  
리」는 파노라마적 小說이며 유고슬라  
비아가 터어키에 占領당한 以後 一次  
大戰後까지의 유고슬라비아의 歷史가  
取披되고 있다.

이 「드리나江의 다리」는 東西가 서  
로 만나고 地리비어 이 다리의 歷史  
가 곧 유고슬라비아의 방대한 敘事詩  
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안드리치가  
그와 二十五年間的 親分이 있는 U P  
I의 벤그라드 特派員인 스토얀·보  
라로비크에게 「나의 作品은 우리나라  
와나 自身에 關한 것뿐이다」라고 말  
한 것도 「드리나江의 다리」의 作品世  
界를 暗示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小說은 모두가 故鄉을 背  
景으로 삼고 있다. 登場人物도 多樣  
하여 僧侶, 商人, 職工, 冒險家, 家  
庭夫人, 카톨릭信者, 모스렐, 猶太  
人, 절제, 카바레女給까지도 眞實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의 作品의 하나의 特徵은  
로서 多數의 登場人物들이 모두가  
不幸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自然결이  
人生에 대한 強力한 憤恨을 지니고 있  
으면서 그의 狹小한 環境으로 인해서  
不幸한 人間像이 된다. 그래서 그가  
取披하는 人間은 苦悶하는 群像이다.  
그의 初期作品인 詩는 모두가 至極  
히 哲學的 探究性을 보이고 있다. 一  
九一九년에 發表한 Ex posto 에 뒤이  
어 發表한 「不安」은 自然과 永遠과 生  
命의 窮極의 探究를 하려는 하나의 哲  
學的 探索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美人  
의 體力 向上을 祈하는 現政府 施策의  
國民全體에 要請되고 있는 이 때 우  
리는 한 사람 한 사람 個人이 自己의  
健康管理를 爲해 細心한 注意와 努力  
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大韓體育會專務理事)

이를 管理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이와 長壽와는 密接한 關  
係가 있다고는 있다. 나는 어릴 때  
부터 이에 대한 關心이 많아서인지 아  
침 저녁 반드시 湯은 習慣이 있다.  
그래서인지 現在도 나이에 비해 健  
康한 이의 所有者로 自稱한다.

우리가 先進外國人에 비해 肉食이  
不足한은 既知의 事實이고 專門醫者  
中 肉食을 獎勵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  
야기를 들은 것은 弱한 이의 親戚  
들이 장미같은 肉食을 할 때 健康한  
이가 그 일이나 身體全體에 미치는 影  
響을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안다. 卽  
健齒는 健胃에도 直結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단한 아침 저녁의 이따기  
를 實行 못하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이들은 自己의 生命을 自己의 怠慢으  
로 害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는 沐浴하는 習慣이 健  
康管理를 爲해 또한 重要한 點이라고  
본다. 沐浴은 身體의 清潔도 必要하  
거니와 몸의 疲勞를 回復하는데 必要  
하기 때문이다. 過激한 運動後나 힘  
든 일을 한 다음 沐浴하기 맛사지 맨  
손제조 승리기 運動같은 것이 疲勞  
回復의 効果의이다. 또는 여름철부터  
차차 冷水마찰을 할 수 있는 習慣을  
기르며 겨울철은 세수만이라도 冷水  
로 한다는 것은 健康管理에 좋은 藥  
이다. 沐浴은 每日하지 못하면 春은  
겨울철이라도 손발만은 每日 씻는 버  
릇 또한 爽快한 氣分을 돌 주어 잠을  
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平  
素에 이러한 사소한 일에 不斷의 注

意와 繼續이 있을 때 十年이고 二十  
年後에는 그 效果가 뚜렷해질 것이  
다. 길을 걸어가갈 때 가슴을 넓히고 堂  
堂한 모습으로 걷는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것과 같다.  
의자에 앉아 글을 쓸 때 우리는 學校  
時節부터 姿勢에 대한 注意를 받아 왔  
다. 이러한 點들이 自己의 健康을 管  
理하고 또는 書적을 알면서도 實錢하  
기가 어렵다. 끝으로 우리들이 健康  
管理란 나이에 따라 調整해야 할 것  
같다.

내 經驗에도 二十年代 三十年代 四  
十年代 四十五代를 넘어가니 벌써 二  
十代나 三十代 氣分으로 酒量이나 일  
에 대한 情熱이 있어서 마음대로 되  
져가 않는다. 우리가 때때로 酒量을  
誇示하는 親舊를 보는데 酒量을 자랑  
삼아 情熱의 소모가甚한 사람은 나  
이가 가니 亦是 影響을 받게 마련이  
다.

各種競技의 運動選手들이 힘의 分  
配, 調整없이 最終盤戰까지 잘 싸워  
最後의 勝利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  
이 우리들의 健康 調整에도 반드시  
젊은이나 壯年이나 健康을 자기 자신  
이 잘 調節管理함이 절대 必要하다  
고 생각한다.  
나의 境遇에도 가장 神經을 쓰는 것  
이 이 調節이다. 調節없는 기체는 故  
障이 빨리 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  
도 機械처럼 調節이 잘 되고 있는 身  
體란 健康管理에 成功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上記한 調節이란 비단 飲食物은 아  
니고 勞動과 '에너지'의 調節도 包含  
한은 勿論이다.  
智德體를 兼備할 수 있는 사람이 많

자 않다. 體育會를 알아보는 한 사람  
의 愚見으로는 智德에 앞서 우리의 健  
全한 身勢를 管理할 수 있고 다음으  
로 智德을 培養하여 完全한 人間創造  
를 期해야 할 것 같다.

體力이 곧 國防力에 直結되고 國民

### 〈藥이 되는 말〉

#### ☆ 粟과 社還米

가난한 농군이 社還米나라에서 貧  
民에게 불대 곡식을 팔아 추었다가 가  
운에 팔아 드리는 곡식'을 먹고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고운 원념  
이 불려서 물었다.  
『가난해서 먹기는 먹어 놓고 갖을  
질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자네 집에 곡식이 없으면 다른가라  
도 있었지.』  
『있는 것 같은 담 한마디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담을 삼아 오면 내가 먹  
고 자네 곡식을 물어줄까?』  
『가난한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  
리고 관가를 물러나와 이를만 원념의  
말대로 담을 삼아 가지고 왔다. 그러  
나 원념은 웃으면서  
『어제 내가 한 말은 농담이니 그대  
로 가지고 가게. 원이 어찌 배성의  
담을 얻어 되겠는가?』  
가난한 농군은 그 말을 듣고 막판 듯  
이 그러나 그대로 담을 들고 나왔다.  
이 모양을 본 官屬들이 물러와서 그  
담 그 담을 뺏아 버려버렸다.  
그러자 잠시후 그 농군은 다시 원념  
에게 물러가 갔다. 원념은 말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 자네에게 담을  
잡아 오라고 일러 놓고 내가 자네

의 體力 向上을 祈하는 現政府 施策의  
國民全體에 要請되고 있는 이 때 우  
리는 한 사람 한 사람 個人이 自己의  
健康管理를 爲해 細心한 注意와 努力  
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大韓體育會專務理事)

를 추인 양이 되었네. 그 담을 다  
시 가져 오게.』

이 말에 가난한 농군은 당황했  
다. 그러나 생각다 못해 망글 담을  
빼앗긴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면 잘 되었네.』  
원념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생  
각대로 되었다는 듯이 당장 아전들  
을 불러 드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농군의 社還米를 代納시키고 다 음부  
되는 배성의 물건을 빼앗아 먹지  
못하게 하였다.

#### ☆ 官物과 私物

李舜臣將軍이 統浦(全南)라는 地  
方의 萬戶職(要地를 守備하는 武官  
職)으로 있을 때다. 全羅左水使로  
부다 統浦兵營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 보내달라는 전갈이 왔다. 全羅  
左水使가 달겨문고 들만들겠다는 것  
이었다.

『이 나무는 官物이므로 어떤 個人  
이 쓸 수 없는 것이오, 또 이 나무  
를 베는 사람의 뜻은 어떤 것이었  
으며 이 나무를 베려는 사람은 또  
어떤 것인지요?』  
李舜臣將軍은 上官의 부탁이었으  
나 조금도 거리질 없이 이렇게 말하  
고 使者를 빈손으로 돌려 세웠다.



이 시간에도 적은 공산간첩과 아  
지도 사회의 어느 구석진 곳에 숨  
어있는 용공분자들을 시켜 계속 우  
리의 내공전열을 혼란케 할 위험성  
이 부단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간첩척박분  
쇄하자」는 구호 밑에 우리는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국내의 숨어있는 저  
색분자를 적발 단속하여야 할 것이  
니다. 즉 우리는 평소의 철저한 훈  
련과 고도의 전술을 연마하여 일단  
유사시에 만유강 없도록 강력한 정  
신무장으로 임전 태세의 완력을 갖  
추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  
써 이때까지 되돌아오는 비애의 역

## <二등> 軍服의 名譽를 지키자

下士 이 석 호

<제 一 훈 령 비 평 단 >

장쾌를 掃蕩하고 거리를 淸掃한  
다고 革命이 完遂되는 것이 아니요  
反共이다 滅共이다 唯친다고 共產  
黨이 모조리 죽어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의 社會가 革命  
되기 위해서는 共產主義와 對決해  
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實力을培  
養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革命  
을 各目的의 革命으로 成功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는 앞으로 웃음 꽃피는 명량한 세  
대가 불원한 전개될 것이요, 오늘까  
지 분열 상태의 쓰라림은 내일부  
터 통일상태의 환호성이 터져나올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민족 대열의 앞장에  
서 당초 목적인 자선의 혁명과업을 승  
선수범하여 우리들 자신이 비상한 경  
심과 각오를 갖고 확고한 지포와 승  
리의 신념아래 위로는 참모총장님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한사람의 이등병  
에 이르기까지 일치 단결하여 침투감  
은 반공 태세를 강화하고 구약과 부  
패를 일소하며 민족적 수월인 국도통  
일을 위하여 너도나도 충진군 합시다.

革命 五個月 동안 過去の 放縱과 無  
秩序 腐敗와 不正의 暗은 政體에서 一  
切의 舊惡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民  
族의 活路를 開拓해 나갈 第一段階의  
革命課業은 國民全體의 熱熱한 支持  
를 받으면서 成功的으로 遂行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어렵고 보다 重大한 問  
題는 이러한 外殼의인 革命이 아니고  
數百年 동안 쌓이고 쌓였는 社會惡과  
類廢한 國民道義와 原始的인 貧困이  
영크리져 있는 이 어떠한 條件 밑에서  
自由와 福祉와 文化의 方向으로 祖國  
을 再建하기 爲하여 極度의 忍耐과 非  
常한 覺悟와 最大의 犧牲을 다하는  
精神革命인 것입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國家의 干城이요  
革命의 主人인 우리 將兵 全體가 于先  
五·一六以前의 舊惡習에서 벗어나  
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不正을 보기도 못  
본체 하고 非行을 들기도 못 들은 체 하  
던 어제의 軍隊가 아닙니다. 모든 軍  
紀의 規定은 階級의 上下를 莫論하고  
平等하게 適用되어야 하며 將軍이나  
二等兵이나 操縱士나 步哨兵이나 國  
家와 民族을 爲해서 바친 使命의 價  
値는 萬分之一的 差도 없는 것입니다. 자  
己가 맡은 일은 公明正大하게 完遂해  
야 하며 階級에 對한 優越感보다는 그  
것에 對한 權威와 信賴가 있어야 하고  
上官은 部下를 사랑하고 部下는 上官  
을 尊敬하는 人和團結의 精神革命으로  
로 祖國再建의 大지와 革命完遂에 國  
民의 前衛隊로서 愛國愛族心을 發揮  
하자는 것입니다.

自古로 한 나라가 잘 될려면 거기  
에는 반드시 훌륭한 愛國者들의 熱熱  
한 建設的 活動이 展開되는 법이요 反  
對로 나라가 亡할려면 破廉恥한 反逆  
者들의 執拗한 行持와 私利私慾이 得  
勢한다는 것은 洋의 東西와 史의 古  
今을 通하여 疎然한 事實인 것입니다.  
解放十六年 동안 汎濫하던 民主反逆  
者들은 恰似 愛國者의 假面을 쓰고 無  
數한 愛國者들의 尊榮에서 蔑視를 要求  
해 왔고 所謂 僞政者들은 私利私慾과  
政權爭奪에만 汲汲한데 大韓民國에는  
남로 容共勢力이 擴張되고 國民은 饑  
餓과 絕望에서 피투성이의 救援을 찾  
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育成하고 開花  
시켜야 할 民主主義 基本理念에 비추  
어 볼 때 軍事革命이란 不幸한 일이  
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民族을 爲해서  
子孫萬代의 繁榮을 爲해서 危急한 現  
實에서 祖國을 救援하는 것이 이 軍

服의 名譽와 使命이 아니고 무엇이겠  
읍니까?  
여러분! 病은 뿌리에서 病은 가  
지가 될 수 밖에 없고 이 病은 가지  
에는 亦是 病은 일이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病  
을 찾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  
를 바라거나 生氣양양한 病을 바라다  
는 것은 마치 大韓民國을 病들게 하  
고 시들게 한 根本毒藥을 除去하지 않  
고 革命이 完遂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  
찬 가지인 것입니다. 大韓民國을 病  
들게 하고 시들게 한 것은 우리와 하  
늘을 같이하고 살 수 없는 共產黨이  
요 間諜인 것입니다. 그것 뿐입니다.  
法을 짓밟고도 怯懦을 모르고 國家財  
產을 橫領하고도 良心에 苛責을 받지  
못하고 共產黨의 統矚 아래서 生命  
을 두고도 걱정할 줄 모르던 冷却된  
個人主義, 나한 사람 나만이 잘 되어  
보겠다고 權力에 아부하고 金力과 野  
合하던 蔑劣한 利己主義思想 이것이  
이러한 痛을 根本的으로 手術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精神革命이 있지 않  
는 열번 百번 制度를 뜯어고쳐도 오  
늘의 革命은 完遂할 수 없을 것입니  
다.

여러분! 우리는 한개의 IOBM  
이나 IRBM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勿論 人工衛星도 없습니다. 그러나 國  
際共產黨을 이끌 수 있고 三千里江山  
을 좋은 나라로 再建할 수 있는 것이  
입니다. 그것은 大砲도 軍艦도 飛行機  
도 아닌 眞正한 民主信念이며 民族正  
氣에 立脚한 革命精神을 貫徹하는데

있습니다.

革命은 口號가 아니라 實踐인 것입니다. 말로만 革命이네 新生活運動이네 할 때가 아니라 防禦없는 이 일에도 革命이 있어야 하고 美製나 日製品만 쓰고 싶어서 料亭과 당구장에만 가고 싶어하는 이 肉體의 革命이 있어야 하고 正義의 專制 하더 私利私慾에 더럽힌 이 良心의 革命이 있는 날에 正義에 統一이 오고 光明이 오고 革命은 完遂되는 것입니다.

### <三등> 낙원은 눈앞에 놓여 있다

兵長 홍 춘 표 <기호교육단>

『일제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동북의 하나인 KOREA!』

그 동북을 다시 한번 차지하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또한 인도의 유명한 「타골」의 시 한 구절이 革命事業 完遂에 一路 遮進하는 希望에 찬미라 將兵들의 切實한 모습에 對하여 이 절은 나의 뇌리속에 새삼스럽게도 記憶이 남는다.

장병여러분!

이 詩 한 구절 가운데 五千年의 유구한 史를 속에서 偉大한 빛을 남긴 先祖들의 거룩한 業績과 장차 아름답게 建設될 韓國江山의 樂園이 이

특별 것을 한꺼번에 다루어 언해 준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九義學 學生들의 슬가쁜 마지막 외침!』

그들의 송고한 피를 짓밟아 버린 張政權의 흑독한 잔인성과 무능함을 승 두리재 뽑아 버린 歷史的 五·一六軍 事革命!

福祉社會 建設을 위하여 不徹晝夜 피는 날아는 勞苦를 아끼지 않는 革命政府의 超人間的인 聖스러운 理念 등이 모두가 예언된 이 詩句의 이루어짐이 어찌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原來는 그렇지 않았으나 우리 민족은 悲慘한 困境속에서 太陽을 잊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父母를 잃은 孤兒와 같았고 親을 잃고 彷徨하는 어린 사슴과도 같았습니다.

몸시도 고갈되어서 休息을 그리워 하고 원히 누울 安息處를 찾는 피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休息을 얻지 못하고 荒原處를 찾지 못한 채 이들의 廢墟된 荒野에서 彷徨하며 兇惡한 이리매들에게 능탈되어, 이리 벗어나 저리 벗어나 生命마저 위태로운 傷處로서의 百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悲慘하고 불쌍한 百姓을 그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子孫萬代 永遠히 가지 못할 비참하고 나약한 조상이지만 가슴아픈 수치를 면케 되었으니 잠자면 이 뼈속에 게 유된 것이 민족에게 열명으로 서, 찾은 처참은 태양은 찬란하게 비쳐 왔으며 자유와 평화를 구가할 신천지를 창조한

가 담입니다.

혁명의 태양이 동터 오른 지 불과 오 개월이만 짧은 기일이 저우 끝이 처져 지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새로운 역사를 움트게 한 자랑스럽고 용맹스러운 일을 한 것입니다.

블모의 거친 맨마르크의 「하이드」 「왕야들」 같은 책우리를 선물로 주셨다. 「단」 모토는 왜 우리가 시급적으로 「단」 쿠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따낼 수 없는 오늘날의 實情을 진실한 사실들의 비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中略)

우리의 구토는 맨마르크의 「하이드」 「왕야처럼」 초목마저도 자라지 못하던 음산한 하늘 밑의 황막한 광야는 결코 아니며 살을 에어 내는 듯한 찬바람같이 휘몰아 치는 썬드라의 시베리아 벌판은 더욱 아름답다.

과거 정상 모리매들의 철면피한 수단과 교활한 개나팔로서는 도저히 개척할 수 없는 황무지도 버림받은 백성의 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명의 밝은 아침개가 이미 동리 울타서 이 동쪽에서만 광명을 부리던 도깨비들이 불은 누듯 사라진 지금, 다만 우리의 앞에는 무지개처럼 찬란한 희망만이 용솨를 칠 뿐입니다.

여러 장병들이여!

젊은 새나라의 일꾼들이여!

아니 삼천만 나의 사랑하는 애국동포들여! 줄면 눈을 크게 뜨고 저기 대다 보이는 평화의 보금자리들 바라보시라!

그 낙원은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곳

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낙원을 원치 않는가? 원한다면 왜 주저 하는가? 자!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힘을 모두어 보라.

백두산 정기를 받고 태어나신 단군의 피가 여러분의 열정으로 부풀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정열은 팔찌 보려고 있다.

우리들의 안타까히 바라고 기다리던 원만한 안식처는 바로 눈앞에 놓여 있다.

우리들의 앞에는 오직 진천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제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피곤했던 심신을 다음껏 휴식시키자.

당면한 순간적 고통, 한마디의 달콤한 불은 마수들의 유언비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임무인 구토방위에만은 정열을 기울이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나태와 불협조와 반 혁명정신 배타적 투쟁적 행위가 우편으로서는 진실로 새 사회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지옥과 같은 비참한 추엄을 택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현실에 만족하여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여 우렘치게 오히려는 혁명의 행진곡에 발을 맞추어 「간절천라 본체 하자」란 구호아래 한은인 함마와 평이를 힘차게 잡고 다른 한은인 혁명정신의 봉화를 높이 들자! 「하이드」의 최광한 불모지를 개척한 자! 「맨마르크」의 용사들처럼 우리 눈앞에 찬란히 보이는 「타골」이 예언한 부처의 나라 신이 축복한 평화의 낙원을 향하여 너도나도 다 같이 총진군하자.



# 自手成家

田 淑 禮

세상에는 自手成家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숨은 애비소스가 많다.

남이 밥을 먹고 누이 잘 때 그는 밥대신 콩을 볶아 허리춤에 달고 다니며 한복을 예기며 남이 잠을 자고 노는 동안 열심으로 일해 하고 장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잔 골비 한마리를 달아 매 놓고 보리밥 한술 떠 넣고는 그것을 쳐다 보고 골짜기 넘겨서 밥찬 없이 맨발만 먹고 누이를 앓아 다는 중 온갖 상상맞고도 유모의 스한 얘기가 일마던지 있다. 그것은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썩은 자기 힘으로 빈 주먹 들고 성공을 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즉 남이 하는 대로 할 일을 다 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非凡해야만 한다는 것 또 그렇게 非凡하기 위해서는 친신만 고은 것 고운를 각오하고 참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생

가한다.

물론 이렇게 자기 가 피땀 흘려 고생 하지 않고도 부모가 벌여 놓은 재산이 많아서 대대로 地主노릇이나 해가며 어찌의 유산으로 일생을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동양이요 서양이요를 막론 하고 흔하히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구히 애비의 속하는 이야기고 또 유산이 있잖아도 유산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일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내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술을처럼 일러 주시는 말씀이 있다. 즉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없어진다는 것, 자기가 피땀 흘려 얻은 소독이라야만 그만큼 유용하고 가치있게 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상적인 얘기자만 나는 가끔 이 말쯤을 되씹으며 한성해 본다. 또 내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정신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 공드리지 않고 쌓은 탑은 가파른 비바람에도 헐사리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 개이나나 한 가정에만 부합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국가적으로 볼 때 특히 우리나라가 처럼 남의 힘으로 두텁을 하고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야말로 신중히 생각하고 마음의 새겨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혁명이후 가끔

위에서 말한 자수성가란 말을 생각해 보고 본다.

혁명전까지 우리들의 생활은 너무 나 앞일하고 나태하고 또 사치스러웠다. 우리 피를 흘리지 않고 남의 힘으로 두텁을 얻고 막대한 국원으로 살아 온 우리들은 마치 열매진 바보 자식이 어버이의 유산으로 세상으로 자신만 아무렇게나 살아오다 일종일 적에 파산을 당하게 되면 꼼짝 못하듯 거의 타 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다.

혁명후 이제 사방에서 국토건설을 서두르고 의태품의 판매금지 와 생산 장려, 문맹퇴치, 건전한 교육제도의 확신과 아슬과 장려한 구민의 정신무장과 인간성 개조를 지향해 나간다. 노력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진부한 어휘지만 自手成家라는 분위기를 느껴 본 것이다.

맹주먹으로 — 힘과 정신력만 가지고 일가를 남보다 잘 살게 이루어 놓은 옛 사람은 얼마던지 있다. 이제 이것은 옛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닌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다.

부산하고 생기기 있게 노력하고 인내해 가며 하나하나 진실해 나가는 우리들은 틀림없이 자수성가를 무프로로 한 착하고 진실한이나 나라의 아들 딸들이다.

이와 따라 각 가정의 생활 역시 쇠퇴한 전야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나의 정우를 예로 한다면 우선 두사람을 쓰면 식도를 하나로 줄였다(주먹 시실만 권리하다면 하나다. 저 없애고 싶은 심정이다.) 또 해마다 천천히 새 옷을 사 입어야

## 령컨과 선거운동비

령컨이 美國大統領이 되기 전이야기다. 州會議員이 出馬한 령컨에게 黨에서 選舉運動費로서 겨우 二百圓라를 보내었다. 그러나 지금의 가난한 그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그 선거운동비 중에서 七十五圓트를 除한 一九九圓를 팔다二十五圓트를 당분부도 돌려 보내었다. 어리 黨員들은 잠적 놀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보내 온 다음과 같은 편지 사연을 읽고 모두들 머리가 숙으러져 버렸다.

— 선거연설 會場에서는 내가 주었고 또 仁會場까지 돌아다니는 데는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별비용이 들지 않았으나 다만 有志中에서 무이 말되다는 말이 있어서 사이다를 사 준 것이 七十五圓트를 들었음은 그다음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무난히 당선되었으니 —

만 할 줄 알면 생활을 고쳐 천 옷을 손질해 입기로 했다. 농주과 트럼프 수에 치마야 두었던 옷들을 모조리 꺼내 세탁용이 되기를 을 새로 하고 칠것을 또 세탁할지, 열기를 새로 할 것 등을 물라내고 보니 이렇게 손질해 입는다면 아직도 실련은 저정였어 입고 살 수 있는 의류가 흥분한데 새삼 놀랐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천천히 유행을 따라 모양과 색깔이 맞는 새 옷을 구입하여 번갈아 갈면 마음이 도리히 이상하게 여겨졌다. 이것은 우리의 경향임이 아니다. 많은 친구들이 같은 느낌을 얘기했다. 새 옷을 사드리고 사치로운 장신

모두들 人間은 太陽을 안고 불타 오른다

朴 巨 影

검은 손질이

유리窓 안으로 기어든다

靜寂은

죽음보다 무서운 것

그리하여

人間은

푸른 하늘을 模索한다

그것은

죽음을 拋棄하고

生命과 慾望을 가지려는 것

또한 그것들을

懲罰하는 權利를 가지려는 것

그 때

人間은

最初의 微笑를 던져오는 것이다

여기 정말로

未練과 절음이

물결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으니

아

旗발이어

旗발이어

모두들 人間은

太陽을 안고 불타 오른다

구를 작만하기 위해 마음을 때우고 또 그것들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공중에 들것 같은 虛한 기쁨이었다면 현 것을 再生해 가며 절약 하고 진실하게 살 토대를 마련하는 기쁨은 오히려 땅 위에 발을 굳게 디딘 듯한 든든한 기쁨일 것이다.

사람의 행복감이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던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오막사리에 브리밤 한 덩어리로 배를 채워두고 무거게 살며 고민에 쌓인 사람들과 보다 오히려 마음 편하고 떳떳하고 행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한 것과 가난하다는 것은 다르다. 가난할 지언정 궁상맞은 것은 싫다.

이것은 자자의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마음이 윤택하고 풍성한 사람은 아무런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산다 해도 궁기가 끼어 보이지는 않는다. 가난하나 마 뜻이 높은 곳에 있고 희망을 지녀 절손하나 천하지 않은 者, 이것을 가리켜 淸貧이라고 하지 않을까.

궁상맞다는 것은 배만장자에도 있을 수 있다. 제 아무리 경제력이 풍성한 사람이라도 마음자리가 풍성치 못한 사람은 어딘지 궁기가 있어 보인다.

은 저배가 한데 뭉쳐 自手成家의 非凡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이때 우리 각자는 마음의 무장을 가다듬고, 그러나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게 자기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筆者 隨筆家)

# 十代の職業

## 최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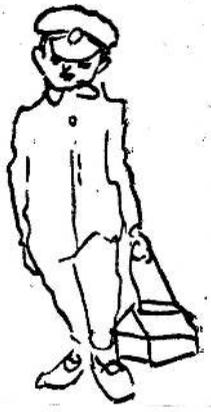
### 〈구두 무역〉

「유우샤인 보이」— 이는 확실한 十代 少年의 직업이다. 도시 생활을 하는 빈민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10대 소년들의 요청에서 생겨진 것인 양 서울에서는 언더처나 볼 수 있다. 변화한 거리에서나, 다방의 입구에서 큰 기쁨의 원판 앞에서나 선지어는 학교서까지 볼 수 있는 형편이다.

이 구두 무역의 직업이 우리 나라에 나타나게 된 것은 八·一五 해방 이후의 일로 연합군의 수입품(인)인 줄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하디라도 「유우샤인 보이」는 특수층의 계만 필요했던 사치로 느껴졌지만, 요즘은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최근 요즘처럼 皮革의 공급이 말라져 「신발」은 「구두」의 대명사로 지칭되고 있는 도민의 생활 속에서 「구두」를 신은 사람이면, 으레 五十원을 주고 「멋진 유행」을 손쉽게 빌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쯤은 보편화된 상식이요 보편 「구두 무역」이 증가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우리는 「구두 무역」 소년들의 미담을 종종 듣게 된다. 배울에 주된 10대의 소년들이 낮에는 구두 무역으로



돈을 벌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가혹한 마음싸나, 품주된 몸을 고쳐 보겠다고 이를 안고 구두를 파아 풀돈이 모아 수출비를 마련 하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나, 빈한한 생계를 위하여 지기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이들은 너무나도 버림받은 가난의 희생아들이다. 인정에서 학대받은 한구의 후인은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희가 많다.

빈잡스러운 서울의 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진풍경의 하나가 젊은 청년들이 가게 개인 대낮 대로(大路) 상에서 버젓이 앉아 구두를 파고 있는 모습이다. 이때의 구출팔을 팔러가며 두 손이 날개게 움직인다. 팔도 팔도 팔고 하여 이윽고 구두에서 검은 유행이 난다. 그러나 젊은이에게는 인정 없었다. 소년의 가련한 모습에는 아의 아랑곳 할 배 아 니고, 구두의 운이 문제이다.

참으로 온 웃음을 지우지 않을 수 없는 가난 사정이다. 소박한 민족성을 잃은 국민이 거액에 연체부의 이런 악취미가 불었고, 사치스런 생활을 좋아하게 된 지 모르겠다. 우리의 경제 적 사정이 이를 유발하기에는 너무나도

### 인색할 뻔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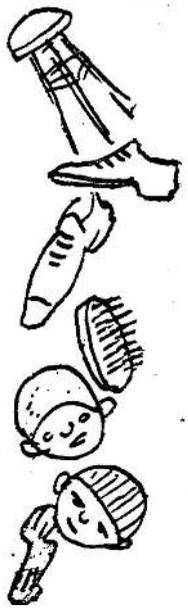
다육이 대학생들에게서도 이런 꿩은 번져가고 있다. 오히려 구두등을 메고 구두를 파아서라도 학비를 조하려야 할 입장에 놓여진 계층이 바로 한구의 대학생이 아닐까 생각하여 본다.

요즘 「수입내 지출」의 국민 운동의 전개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호 사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내핍의 생활로 지향하여야 되고, 그 방법은 극히 적은데서부터 옮겨 온 곳으로 옮겨야 할 줄 안다. 자기의 구두는 자기 가 뛰아 신을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의 신념을 실천으로 지켜야만 한다. 시궁창에 딛인 발로 이상만을 꿈꾸지 마는 생활이 우리에게서 필요하고, 현실에서 근면하는 생활신조가 요청되고 있다.

10대의 소년 앞의 구두를 파고 내미는 사람들의 생각도 현실과 일치했지만, 10대의 장도를 위하여서 남을 잔인스런이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 〈女 軍 靴〉

시내 바스의 여차장을 등장시킨 때부터는 느껴 오던 생각이지만, 10대 소녀들의 신발자 구제 방법이 아



닌 이상에는 좀 생각하 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온 것이 바로 이 10대 여차장 제이다.

나는 그 이유야 이해 하였던 간의 결과적으로 보아 「여차장」 문제는 이 나라 여성 교육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 나라 제 2세의 가정교육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 하고 있다.

생지육의 교훈받은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 차장에게는 더욱 큰 교역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빈잡한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도 빌고 타고 하고 하는 아우성 속에서 소리 지르는 「여차장」의 생리를 한 번 상상하여 보자. 무리하게 배우는 여차장의 실사도 파악하지 않지만, 물론 시간의 늦을 까봐 억지로라도 타 보겠다고 억측스럽게 떠벌드는 승객들의 면치도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현실이 용납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승객들은 「여차장」에게 갖은 불만과 실망이든 우습게 보든다. 그러하면 「여차장」은 자기대로의 태도를 한다. 오고가는 말쑥한 실의 아를 따지 못한 형용사 뿐이다. 하필이면 이런 말들을 10대의少女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지 알고 싶다.

새

朴 南 秀

새들이 돌아왔다.

햇볕의 靚力에서가 아니면

즐겁지 않은

새들이

처마 끝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날아 갈 때는

모두 품은 벌으로 뿌려져

노랑고

붉은

부리로, 벌방울 같은 소리를

벨고 있었는데,

가맣게 그슬린 하늘에

뿌려진 天上의 새들이

神의 失手를 웃고 있는 동안은

날개에 품은 벌들을 털면서

하늘로 날아 갈 아침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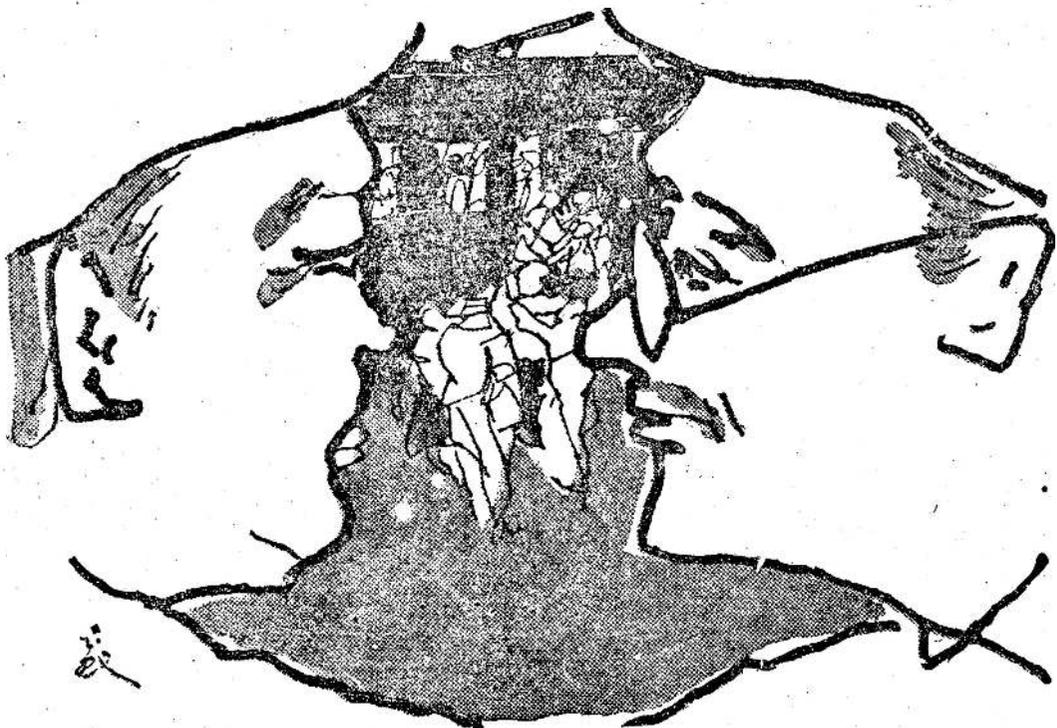
지금은 밤을 잔다.

어디까지나 여성의 미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품위가 있을 때 있다. 여성은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숙명이 있다. 아직까지는 불안정되고 사회 조직이 체계화되지 못하여 균형율이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네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10대의少女들에게 주는 직업교육은 말지 않는 것이 女車掌일 것이다. 물론 외국 의 예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 되기에는 시간을 요하 리라고 믿어진다.

인간의 발육에 있어서 10대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인 성장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 문제이다. 더욱이 여학생의 직업교육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라는 점에서 볼 때 여학생을 함으로 채워주는 결과로는 이들의 성격에 큰 결점과 장애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제도는 10대의 소년이나 소녀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구상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버림 받고 제멋대로 자라난 나무가 쓸모가 없듯이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원리는 적용되는 법이다. 가끔 뼈스를 탈 때마다 나는 이들 10대의 소녀들에게 이 고역을 담당시키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봐야 할 사회문제 같다.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短編說小〉

# 가을하늘 보다도

秋 湜

변선생(邊先生)은 혼자 실이 돌아  
안절부절했다.

(강박(強迫)이란놈, 이절 보던기가  
죽어 가지고는 그래도 부러워서 근  
침을 삼키었다.)

우선 그런 생각만으로도 여간 고슴  
하지가 않았다. 친번에 그런 피잔을  
먹은 강박에게 이제 오금을 들수 있  
게 된것은 천우신조라고까지 할진 없  
지만, 재수치고는 평생에 한두번 있  
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이봐 이게 입상(立像)으로 따졌다  
는 것이기가 막히거든..... 모르  
는 사람에는 이절 왜불(倭佛)이라  
고 할거야.....」 이젠 중주 부처  
지, 불제 이절 거리로 팔고 나와,

준다는 말에 절을 열두번이나 하다  
니 희희히. 「앗다 피도 좋겠우...  
..... 밤낮 어디 가서 그따위 구경  
스려온거나 주서 가지고 와선 혼자  
아판이시지.....」

「이건.....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이봐, 이절 보란 말야, 이 눈배가  
이렇게 조각된 불상(佛像)을 본적  
이 있어?」

변선생은 마누라의 경솔한 입버릇  
을 나무래고는 새로 사온 청동 부처  
의 눈매를 사뭇 신기하듯 어루 만졌  
다. 담장에 타도 싸들고 가서 강박에  
게 한바탕 자랑을 늘어 놓고 싶었지  
만 그럴 처지가 못된 것이 서운했다.  
강박하고는 그때 입다품을 한뒤로 사  
발질을 끊고 말은 것이다.

본시 강박하고는 그렇게 서서하게  
의절을 할 처지는 아닌 것이다. 젊어  
서부터 서로 숙진 없이 털어 놓고,  
비것 내것을 별로 가지지 않고 지나  
친다. 세상에서 「강박」하면 변선생  
을 바늘에 실처럼 누을 함께 쫓는다.  
아주 명난 호주(豪酒)요, 쉼결한 성  
품에 강박이라는 별호가 불을 만짐과  
물근지인 그와는 판판이, 술도 안하  
는 묘장병이에 한가지 밖에는 모르는  
고질불통 변선생이, 그처럼 막대하게  
지낸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었다. 그  
들사이에 통하는 것이 있다면 공동  
품수집에 대한 취미라고나 할까?

젊어서부터 누가 먼저 시작했는  
지는 모르지만 강박과 변선생은 공동  
품수집에 지이 발벗고 나서다 실이

했다. 강박도 어떤 신문사의 논객(論客)도 그만두고 오기 하다가의 하면서 술술 떠와 골동품 감상으로 소일을 하고 있다. 몇해전까지도 강박이 붓대를 들면 정체가 흔들린다고 하면 그때기도 이젠 그러했다. 그저 유유자적 하던 은퇴생활이다. 번선생도 골짜지 날이 밝아오기를 차던 고장직을 물러났다. 정년 퇴직이 된 것이다.

그쯤 되었으니 이제 서로 아끼면서, 조의를 살아 올린 골동품이나 서로 만지켜 부근히 지내면 될 것만 마치어린애를 같은 일다름으로 말을 들었고 말은 것이다.

「아니 아함은이야, 그래 이걸 레죽을 어디다 내볼려고 착나? 호호호」 자기 후시 이거 후만(興)「隨」으로 알고 버릴 한 것이 아닌가?」

번선생이 황재나 한 것처럼 사드 러 자라삼아 별치는 죽자를 보자 강박은 원구를 벌고 의뎌했다. 번선생은 골짜지 안된 근유이 바르기로 번선생다. 그래 정말 날이 빠였기로 서니 후선과 원구의 남초도 분간 못할 명칭이란 말인가? 피차에 하여가면 서 후시 실수가 있기로 서니 그렇게 까지 비양을 하는 강박이 꽤신했다.

그런 피소름같은 코트리로 번선생과 강박은 지이 몇달장간이나 왕 레를 끊었다.

영감들의 그런 것같은 신행이 때 문의 실상 에를 때우는 것은 번선생부인이다.

「저 학은이들이 저러다가 영를 어저저 파혼이라도 한다고 고집을 부리려면 오셔나?」  
「학부 직정, 양친과 벗이다.」

강박의 둘째 아들 인구(仁求)와 번선생의 동면(京媛)이 늘 약혼한 사이이다. 그후담 역시 어느쪽에서 먼저 끼였는지도 모를 만큼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드려 약혼까지 체결했다.

번선생과 강박이 서로 친기한 골동품을 캐내서 자랑을 하는 것과는 달리, 오직 음인구와 정원은 한가지 물건들 차만 하던데도 피리상의 물회고, 같이 나서서 골라 드린다. 물건이라는 것 역시 학은이들이 혼탁을 하고 그런 부활은 것이 아니다. 「토스트가 제대로 구이면 자동적으로 두정, 이렇고 정반의 발치나오는 것이 「토스타갈은, 말하자면 문화생활에 걸때 필수품인 반죽반죽 하는 것들이다. 공관장교인 인구의 안부이나, 불문학을 전공하고 의학표서 표현을 잡는 정원의 이상이나 골동품의 권위자들과는 판이한 것이 있다.

「오보, 그렇게 하다가 영문은 자기 전에 강박사님 칭해서 술이나 한 잔 권하고 서로 부수, 폐설이 그런 것도 없는 걸 갖고.....」

「몇번에 내가 술을 사고 사과를 해! 내가 될 잘못 했던 말야.....」  
「앗따 무슨 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나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젠 알지도 못하고!」  
「말해 다 알아요. 그렇다고 사은잔의 사은 그렇게 지낼 수는 없잖우?」  
「사은이 무슨 사은야!」  
「어머! 그럼 누가 사은을 삼았우 호호호!」

부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 한바탕 웃고난 영감은, 또 어원의 구슬들트트 했

「애들은 내일이라도 식을 올릴 준비를 다 하고 어른들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서두를 것 없어!」  
「외고집인, 번선생은 진실으로 하는 소린지 어쩔지, 혼안문제도 재고 해야 겠다는 말투다. 그럴수록 부인은 속이 띳다.

골동품치기만 하는 번선생의 노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은 채가이 너덧 달이나 강박과 피면을 안했다. 생활 실제와 아기가 한 「페이트」로 그저 즐겁기만한 인구와 정원은 아버지들의 그런 대담을 통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정원이 눈치를 채게 된 것이다. 「응중전신」가 있는 달아침, 상피리에서였다.

「아버지, 오늘이 어니랑 한강의 나가세요. 좀 인주 가서야 될 거예요.」  
「한강에는 칠초게 왜?」  
「아이, 아버지..... 오늘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  
「아이구 딱하기 두 하우, 아 오늘 공군에서 비행기 재추하는 행사가 있잖우.....」  
「.....」

부인도 제게 잘 됐다 싶어 옆에서 거드름피도 번선생은 신행하니 의면 을 한다.

「단 누구와 만나기로 해서 안간다.」  
「있다 고집 두 프로프, 사위애가 오 늘은 우리 내외도 쫓아 나와 구경을 하라드래야.」  
「말해 바쁜 다나카!」

번선생이 빌려 여정 내는 봉에 정원은 눈치만 살피다가 시무룩하니 일 이었다.

「애 너의 아버지 는 강박사님 하고 틀어져서 그러다. 저러다가 정말이 될라고 그대는지.....」  
「고집 부린 일도 아난가 보는데.....」  
번선생부인은 말에 제 변명비스럼히 소근거리고는 혀를 찼다.

「오보, 오를 사위애가 쟁투기를 타 고 재주를 한대요. 은 장안이 뒤꼍이 환강으로 몰리는데 정작 우리가 안 가서야 되겠우.....」  
번선생부인은 정원이 휘어하니 나간 뒤에도 영감을 또 한번 어원애 구슬 르트했지만 그럴수록 더 고집을 부리 고 나갔다.

「인자나 가구려, 난 바쁜일이 있어 못가.」  
하고는 모자를 털어 쓰고 마른기침 을 고느면서 골동으로 나가 버린다. 부인은 영감이 밭살갓기도 하고 속으 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하나 없이 유리알처럼 맑고 시원 한 것을, 바쁜일이 있다고 큰소릴 쳐 도 귀를 내서기는 했지만 실상 팔각도 마땅찮은 번선생이다. 오를라팔 팔 동뚱가게를 뒤져보고 싶은 생각도 배 키지 않는다.

공중전신은 오후 두시부터 라고 하 는데 거리는 아침부터 우알거린다. 노랑진발발의 천차에 매달릴려고 가 위 절사적으로 물 떠된다. 수제 천차를 단년할 때 들은 부스런히 환강쪽으 로 발걸음 저들고 들었다.

「마누라쟁이 하고 택사라도 한때 잡 아타고 빠졌이 같겠.....」  
어느들의 행렬의 끼이 환강쪽으로 발걸음 옮기는 번선생은 자신의 속아 지를 나무라면서도 그런대로 남들의 게 위신을 세우느라고 마른기침을 고

났다.

「장학은 제생일이다 당한것처럼 거드러기라겠지.....」

변선생은 일흔이지 달리는 자롱 차에서 장학의 눈길이 쏠리거나 앉을가 싶어도 도를이면 여려사람 부판에 숨나 싶이 하고 추근추근 걸었다.

삼각지족으로 걸어들면서 부러사람들의 물결은 헤칠 수가 없었다.

「이사람이야, 다른사람들은 못봐도 나는 부축은 자리의 앉아서 정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야.....」

변선생은 수으로 그런소리를 두런거리듯 하면서 군중들 틈새에 빠졌다.

「와아!」  
「와아아!」

비행기의 폭음이 밀려들자 관중들은 한층 울렁인다.

「쇼! 쇼! 순서의 따라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 내게 한다.」

「호호! 내게!」

「쇼. 플라야. 립의 뒤집기, 배지기, 솟구치기, 문두박이등아슬아슬한 공의가 벌어져자 변선생은 제절로 입이 벌어진고 「와아! 와아!」잔란이 터졌다.

「사위녀석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있나? 제가 이편을 알았으면 경원이한테 자세히 얘길 듣고 싶.....」

「마오드」의 서적하는 실험도 관중들의 두꺼기기는 소음때문에 두뚝히 들을 수가 없다.

「이제껏 모두가 훌륭한 재주야! 저녀의 마누라쟁이 한테 물어보면 사위녀석이 무슨 재주를 부렸

나 알수 있겠지.....」

변선생은 차일을 치듯한 관중들에게 큰소리로 사위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사듯 입만 벌을 거리는데 누가 열구리를 뒤지르며 손을 덜컥 잡는다.

「어!」

「혼자 왔나?」

「은다 왔지.」

「난 그만 뒤늦게 와서 친구들을 못찾겠어.」

「나도.....거참 장하군.」

변선생은 장박한데 잡힌 손에 힘을 주고 또 공중을 추켜 본다.

「자네 굉장한거 샀던군!」

「어떻게 아나?」

「봤지.」

「.....」

「자네 집에 다녀 오는길야. 하늘이 어지간히 서늘고 나갔기에 부쳐만 보고 왔지. 거 굉장한거는데.」  
「폭풍이 왔나? 난 아무래도 왜볼이 아닌것 같은데.....」

「왜볼이라니! 자넨 참! 명불명佛야! 이사람아! 어찌다 그런것이 하늘은이 한테 걸렸을까 참!」  
「엇기!」

변선생은 장박의 원두도 비위에 거슬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비야이 흐뭇하게 들리기도 했다.

「자네 내집에 같이 안갈라나?」

「술 사올래?」

「그때 마누라쟁이가 술받아준다고 넌 몰고 오라드라.」

「그럼 가아지. 꼬장뱅이. 하늘이야 립지만 사부인 초창이라던야.....」

「그놈의 주둥아리!」

「허허허허!」

「허허허허!」

두영장들이 허를잡스리게 웃는데 또 친지를 친동하는 폭음이 뒤덮는다.

「내날 잘 잡았지.」

「무슨 날차?」

「아, 애들 혼인 날차 말야.」

「아니 건자네 맘대로 하는건가?」

「그럼, 자네 아무런 말도 내가 보내라던 보냈지 부수었다. 허허허.」

「거 참, 별 뜻된놈의 하늘이 하고 사돈을 맺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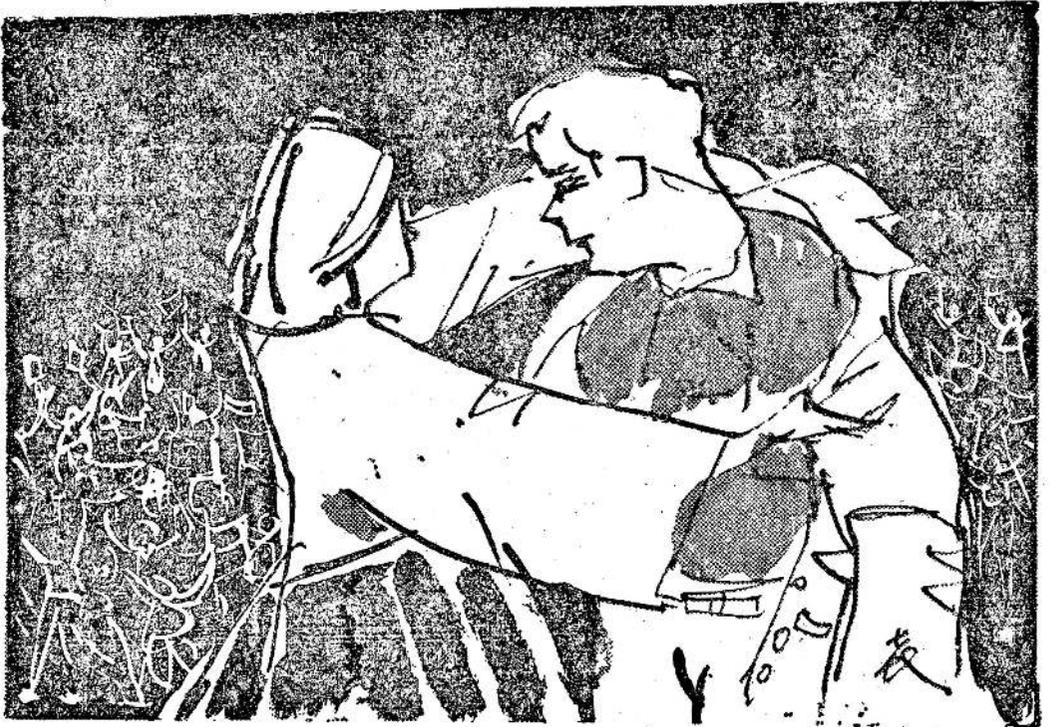
### 〈藥이 되는 말〉

#### ★ 名 解 夢

高麗時代 어느山村의 解夢을 잘 한다는 늙은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늙은이를 물어주려고 어젯밤에 꿩을 꾸었으니 解夢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늙은이 解夢해서曰, 오날은 먹울것이 생기리라 했는데 과연 出嫁한 누이가 먹울 해왔다. 青年은 이를듣는 또 꿩을 꾸었더니 오날은 웃이 생기리라 했다. 과연 妻家에서 웃이 解夢 생겼다. 青年은 그의 들날 또 꿩을 꾸었노라 했다니. 오날은 꿩작달고 집의 었으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면 매를 맞는다느 것이이다. 青年은 하루종일 집에 었다가 어름 사리가 끼어한 무렵에 절가에 나갔다가 어떤 한 무리의 사람으로 부터 誤認되어 매를 맞았다. 늙은이 解夢해서曰, 꿩이 탄놈이 울면 쳐슬면 배가 고파운다고 먹이들 준다

#### ★ 案內人과 電氣

英國의 有名한 物理學者 켈빈(一八二四—一九〇七)은 旅行中에 어느 水力發電所를 찾아 갔다. 젊은 案內人은 그렇게 偉大한 學者인 줄을 듣고 電氣學에 對해서 제법 아는 것 처럼 說明을 늘어 놓았다. 켈빈은 잠잠고 그의 說明을 듣고 있다가 헤여질 무렵에 조용히 니카. 『그런데 電氣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案內人은 잠잠이 말문을 이락혀 버렸다. 「아니 좋습디다. 당신이나 나나 電氣에 關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물론다는 사실 뿐입니다.」



때—8月 15日(1945年)

곳—어느 都市

人物—

어머니……50餘歲.

영희……結婚適令期의 處女.

錫錫……30歲. 不具者 왼편 손이없다.

영희의 姑母……40餘歲.

行人들 多數.

舞臺—어머니와 영희가 마루에 앉아서 애기하고 있다. 나즈막 담 넘어 오고가는 行人들의 머리가 보인다.

△戲  
曲▽

# 人間再生 (二幕)

柳 起 英

어머니 (영희에게 타이르듯) 뒷집 반장비아들도 기여쿠 징용을 가게 됐구나. 오늘 열두시 차무부산에 집합하게 된다구 인사하려 왔더라. 사람이 온통 죽은 상태이구나.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영희의 눈치를 살핀다). 두구 박, 그대누논코가 마루 배히구 사지가 멀정한 사내는 다 끌려가구 말테니, (영희의 어머한테 대꾸가 있기를 기다린다).

영희 (듣기 싫다는 표정이다).

어머니 요즘은 오늘 씩씩한 사람두 어느새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기면, 반장네 아들두 제만은 안잔다구 큰 소리 치더라만 기여쿠 끌려가게 됐잖나! 말이다. (말을 끝낸다).

영희 (피를 흘린 안색으로) 그 때 두 갈 사람은

가구 안 갈 사람은 안 가구 그렇지 마.....

어머니 (없는길로 영희를 돌려보내) 너는 그 사

람을 그렇게 싫어 하지 만 나는 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절대 두 좋다구 생각한다. 손가락

두개쯤 없게 훑을게 뭐냐. 그때 두 대학을 나

왔구 살릴일이 두 그만하면 됐구..... 그야 그

사람이 몇해 전의 사상 관제 두 잡으 살이 들

다지만 그정두 (말을 당추어) 투 개 놓구 말하면

두림은 좋겠으니 훑 될것두 아니잖나. (영희

로부더 무슨 네구가 있기를 기다린다.)

영희 .....

어머니 그 사람 두 손만 그렇게 앉았으면 별척

편가져 죽었을 사람이다. (다시 타이른다). 오

즘 말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신랑 잡구 하느라

모두들 해를 더 두알구 있었. 너는 이리구

잠을 못 잔단다.

영희 어머니는 내가 시절 보낸 딸 두만 하는

것 같이 말하셔. 그럼 전 전정애. 딸 남편

까지 시절을 안 가겠어요.

어머니 (화를 떨쳐낸다). 뭐라구? 十년

이십년. 잘 지 두 모르면 전정애——(다시 부드

러워 지며) 애야. 손가락 두개쯤 있는 것

이 아니잖나.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것

이 아니잖나. 그러니까.....(하고 남편을

파라분다 그러나 영희는 모친의 표정을

파꾸지 않는다. (해우 두부, 절절한 지 두 딸

의 진영의 울림가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 모르게 잊었다. 정순이 두 결혼

과 부 같은 시절사리가 아니냐. (영희의

無表示를 지내다. 그러나 영희는

어미의 말을 들으라. 그때 두 어미의

말은 있었어. 어머니가 두 부모

다.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 영희 (영희의 말을 추수한다.)

영희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 (잠각 울리며) 그럼 네 맘

이냐? (잠각 울리며) 그럼 네 맘

원천 손은 義手인 만큼 어딘가 不自然스럽다.

어머니 (웃음을 한다). 작년에 한번 보기는 했

지만.....

현석 (고모를 불러 보며) 아주머니

자구 해서.....

어머니 잘 왔읍니다. (방 쪽을

손님이 오셨는 데 부채 가져오면.

영희는 웃는 데 나오지 않는다. 고모가

가서 영희를 데리 오나. 鉉錫이

영희와 靑靑의 마주친다. 영희는

니에게 주고는 약간 요를 보

어머니가 무척을 鉉錫에게

고 권한다. 고모는 영희를

못이겨 비스듬히 앉는다.

어머니 와이사씨가

세요.

고모 어머니

하고

벗는다. 그러나 손이

다. 어머니, 당

를

손으로

회가

어머니 (거북한

다구

현석 (서슴치

다.

어머니 원

현석 네, 전

고모 (눈

현석 아주

내가

영희, 고

어머니 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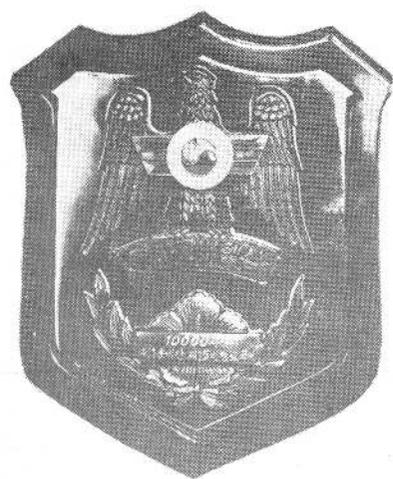
현석 네, 그



과 舊任 로버트 H 와렌 美空軍少將은 지난 10月 27日 金參謀總長을 禮訪하였다.

# 화보

지난 11月 3日 金參謀總長은 全世界에 放送網을 가지고 있는 美軍 라디오 및 텔레비放送을 通해서 韓國空軍의 任務, 活動狀況 및 韓·美空軍間의 協同問題 等에 對하여 說明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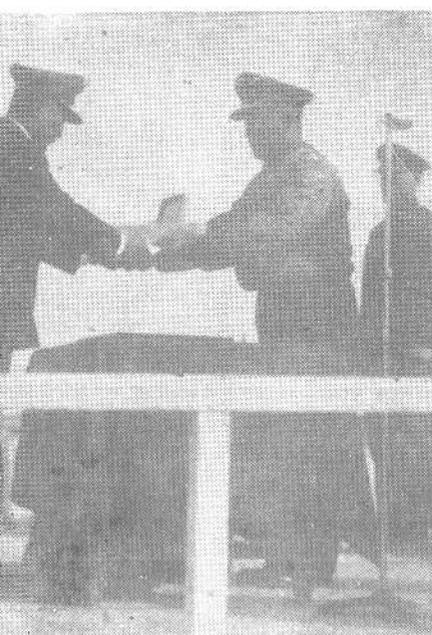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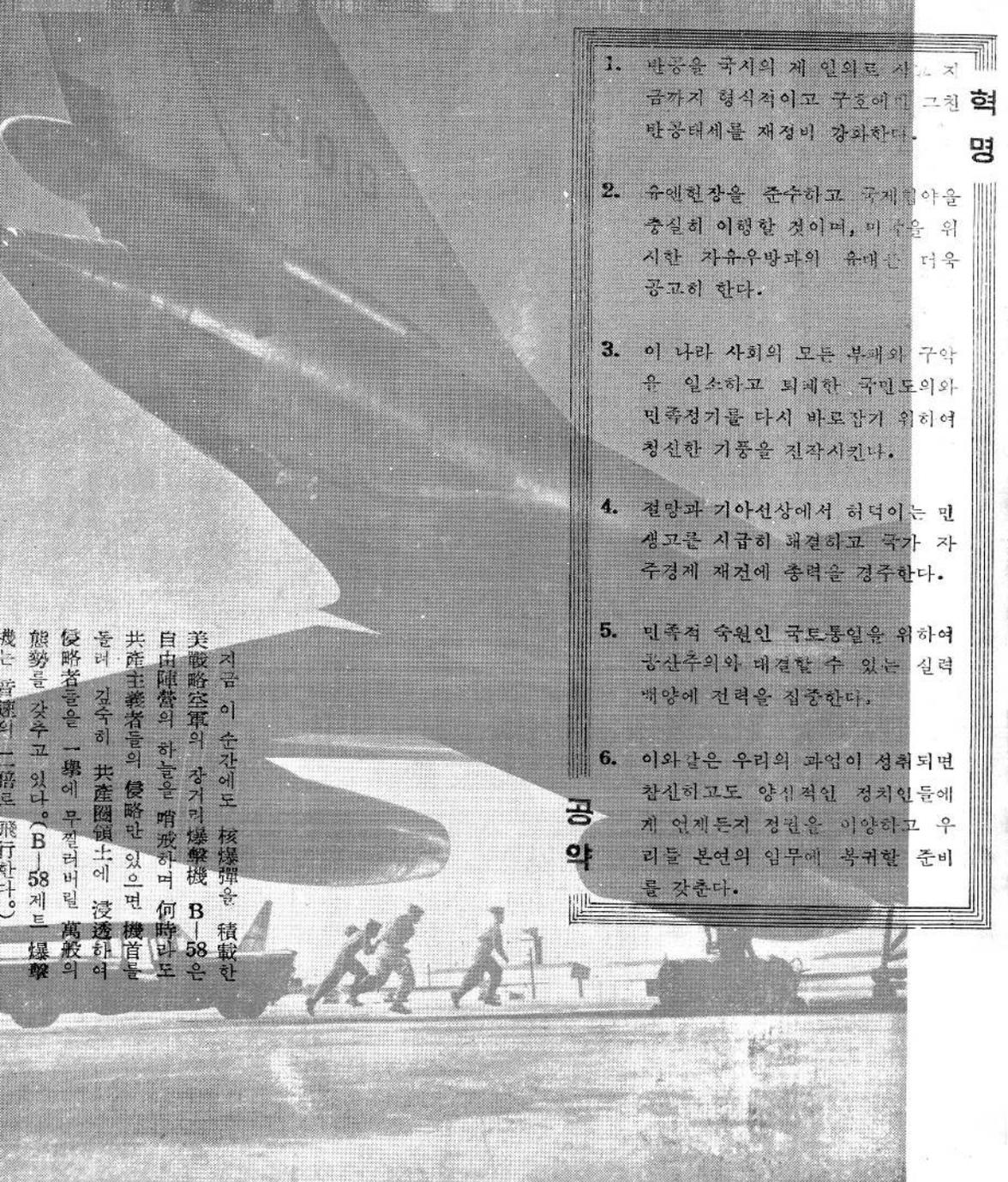
空軍全部隊對抗雄辯大會가 지난 10月 20日 空軍本部大講堂에서 개최되었다.

(寫眞은 同 施賞式 光景)



← 지난 十一月九日 第一訓練飛行團 第一初等訓練隊에서는 堂堂 無事故飛行 萬時間을 突破함으로써 韓國空軍의 洗鍊된 操縱術과 精密한 整備術을 또한 國內外에 誇示하고 金參謀總長으로부터 榮譽의 飛行安全賞牌을 獲得하였다.





1. 반공을 국사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이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법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파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찬신히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지금 이 순간에도 核爆彈을 積載한 美戰略空軍의 장거리 爆擊機 B-58은 自由陣營의 하늘을 哨戒하며 何時라도 共產主義者들의 侵略만 있으면 機首를 돌려 猛속히 共產圈領土에 浸透하여 侵略者들을 一舉에 무찔러버릴 萬般의 態勢를 갖추고 있다. (B-58 제트 爆擊機는 音速의 二倍로 飛行한다.)